인천5.3민주항쟁 기초조사 보고서

결과보고서

제출일 : 2021년 12월 30일

제출자 : 인천5.3민주항쟁 기초조사팀

발주처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CONTENTS

Ⅰ 개관

- 1. 조사배경 3
- 2. 연구진 현황 4
  - 1) 일반현황 4
  - 2) 조직 및 인원 4
- 3. 사업계획 5
  - 1) 연구현황 및 기초 자료 조사 5
  - 2) 자문위원 구성 5
  - 3) 결과보고서 작성 5
- 4. 사업 추진 전략 및 체계 6
  - 1) 전략 6
  - 2) 체계 7
-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

Ⅱ 5.3항쟁 상황 비교 분석

- 1.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 11
- 2. 대검찰청 중간수사결과발표 21
- 3. 신민당 진상조사보고서 노승환, 「인천사태의 진상」(5월 15일) 23
- 4. 5.3항쟁 당일 시위 전개 양상 개관 24
- 5. 인천5.3민주항쟁 시간대별 상황 재구성 26
- 6. 인천5.3민주항쟁 상황 종합 29
- 7. 상황과 주요 사건별 쟁점 36

Ⅲ 연구현황과 문헌자료 분석

1. 학술자료 43
1) 인천5.3민주항쟁 기념 행사 자료집 43
2) 학술 논문 64
3) 공공기관 발행 자료 72
2. 문헌 자료 81
1) 민주화운동 단체 발행 자료 81
2) 정치권, 정부기관 발행 자료 99
3) 판결문, 공소장, 탄원서 등 102
4) 경찰청자료 106
5) 기타 144
3. 언론 자료 185
1) 1985년까지 185
2) 1986년 186
3) 1987~1989년까지 196
4) 1990년대 197
5) 2000년대 198

Ⅳ 구술·영상자료 분석

1.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소장 구술자료 현황 205
2. 구술자료집: 『인천5.3민주항쟁증언록-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206
3. 증언집 중요 내용 분석 208
4. 영상자료 215

V 결론과 제언

• 결론과 제언 221

VI 부록

• 부록 1. 인천5.3민주항쟁 상황도 229
• 부록 2. 1986년 당시 시민회관4거리 약도 230
부록 3. 인천5.3민주항쟁 참가단체별 행진 일러스트 231



인천5.3민주항쟁 참가단체별 행진 일러스트

Ⅰ. 개관

Ⅰ. 개관

1. 조사 배경

○ 인천시에서는 2018년 8월에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천5.3민주항쟁을 인천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였음. 최근에는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음. 그러나 아직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기조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이 사건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 성과물이 10여 편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

○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는 인천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인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 계획이 있으며, 영상이나 그림 등을 활용한 '시각화'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 있음. 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운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자, 향후 건립될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전시 및 교육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이러한 모든 계획이 잘 추진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은 바로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기초조사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정부 차원의 주요 역사기념 사업들은 모두 <기초조사사업>이 먼저 진행되어 왔음. 2020년 출간된 『인천민주화운동사』 편찬 작업도 2005년에 수행된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인천지역>(책임연구원: 이우재, 공동연구원: 나준식, 노현기)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었음.

○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논문을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탐구에 한계가 있음. 인천에서 발생했지만 전국적인 의미가 있는 인천5.3민주항쟁이 여전히 '사태'로 불리고 있음. 또한 '실패한 투쟁'이라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 인천5.3민주항쟁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는 <기초조사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연구진 현황

1) 일반현황

○ 2021년 제35주년 인천5.3민주항쟁 학술대회를 계기로 「인천5.3민주항쟁 기초 연구 및 시민교육 교재개발 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꾸려졌음.

○ 기획단은 이번 기초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천지역 사회운동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진을 조직했음.

2) 조직 및 인원

○ 연구책임자: 김창수(인하대 초빙교수)

○ 연 구 원: 이재성(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안정윤(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

○ 연구보조원: 김혜영(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자 문: 송용한(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실장)

3. 사업 계획

1) 연구현황 및 기초 자료 조사

○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연구현황 조사 및 자문
- 연구 관련 단행본, 논문 등 리스트 정리
- 주요 연구 논점 정리 및 해제
- 필요시, 인천 5.3민주항쟁 주요 관련자 조사 또는 자문

○ 인천 5.3민주항쟁 사건 일지 구축
- 시간별, 장소별, 사건 주요 내용

○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단체 자료 조사
-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단체 현황 파악

○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사건 자료 조사
- 인천5.3민주항쟁 당일에 벌어진 사건들

2) 자문위원 구성

○ 인천 5.3민주항쟁 현장 상황 증언이 가능한 참가자

○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줄 연구자

3) 결과보고서 작성

○ 앞의 과업 내용이 반영된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집된 사료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

4. 사업 추진 전략 및 체계

1) 전략

○ 인천5.3민주항쟁을 제대로 알고, 기념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

○ 1986년 5월 3일에 전개된 인천5.3민주항쟁은 단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가진 사건이다. 35주년이 지나가는 2021년 현재까지 인천5.3민주항쟁은 주로 '사태'로 표현되고, 대체로 '실패한 투쟁'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인천5.3민주항쟁을 5월 3일 하루의 사건으로만 축소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6.10항쟁이 '6월 항쟁'이듯이 인천5.3민주항쟁도 1986년 개헌운동의 전체 맥락 아래에서 보아야 한다.

- 역사적 사건을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없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1987년 6.10항쟁도 단기적으로는 성공인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1987년 12월 대선에서 독재정권이 연장되는 결과가 되었다. 6.10항쟁의 주체들이 전두환 정권의 6.29선언에 대해 잘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선제 쟁취가 곧 민주화의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첫째로, 인천5.3민주항쟁은 신민당의 개헌추진위 지부결성식 및 현판식이었다. 즉 인천5.3민주항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신민당의 개헌운동의 전개이다.

○ 둘째로, 부산, 광주, 대구 등지를 거치면서 진행된 전국적인 지부결성식 및 현판식이 유사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3월 30일 광주대회에서부터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폭력 시위의 양상이 보였으며, 4월 5일의 대구대회에서부터는 신민당이 아닌 민통련과 학생운동 등 재야운동과 민중운동 진영이 별도의 대회를 여는 투쟁 형식이 만들어졌다. 인천5.3민중항쟁의 양상은 그 형식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 셋째로, 신민당과 함께 그러나 따로 대회를 열었던 재야운동 및 민중운동 진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민통련과 인사련, 서노련과 인노련, 학생운동 조직 등의 성격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조직의 구성원, 이념, 실천과 더불어 인천5.3민주항쟁 이후의 전개과정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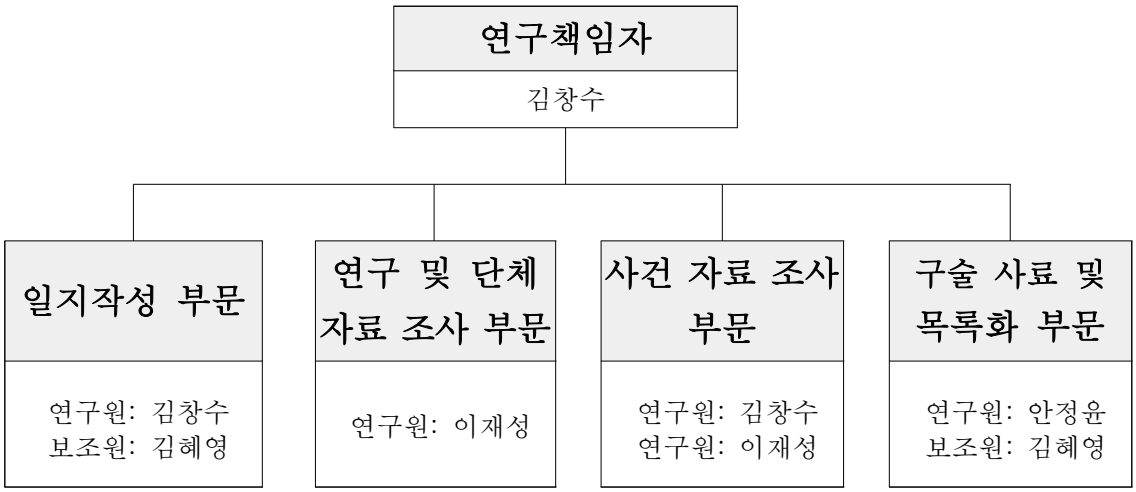
○ 넷째로, 미시적으로는 5월 3일 당일 인천 곳곳에서 어떤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내용이나 법원 판결문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포함된다.

○ 다섯째로, 1986년과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시위 양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인천5.3민주항쟁에서는 10시간에 걸친 치열한 투석전이 벌어졌다. 화염병도 등장했다. 이는 '폭력시위', '위법행위'로 매도되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에서의 다양한 시위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여섯째로, 인천5.3민주항쟁의 직접적인 결과는 공안정국이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배, 고문, 구속, 수감되었다.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국가폭력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어느 시점, 어느 범위까지가 기초 조사 연구의 범위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2) 체계

○ 참여 인력 편성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이 수집·정리될 것이다.

○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심층 연구 사업에 기초가 될 것이다.

○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교육 자료 제작 사업에 기초가 될 것이다.

Ⅱ. 5·3항쟁 상황 비교 분석



Ⅱ. 5.3항쟁 상황 비교 분석

1.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

시간구분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
08:00-09:10	[인원] 장내 50여명, 장외 30여명 [상황] - 옥외 확성기 8개 설치 - (시민회관 2층, 창가전면 4개, 동쪽방향으로 4개) - 플래카드 게시 14매 게시 - (장내6, 장외 8)
9:10-09:20	[인원] 장내 50여명, 장외 50여명, 구경꾼 30여명, 도합 130여명 [상황] ○ 대회장 상황 - "민주천하지대본" 등 내용의 만장 30개 - (대형5개, 소형25개) - 피켓100여개(개헌구호 등) - (시민회관 앞 계단 및 광장에 놓아둠) ○ 안내방송 실시 - (내용) - 여기는 신민당 개헌추진 지부 결성대회장입니다. - 개헌구호 방송 ○ 서명대 설치 3개 - (시민회관 계단 및 광장) ○ 국회의원도착 - 명화섭 의원 등 당직자 20여명
9:20	[인원] 장내 50여명, 장외 당원 60여명, 구경꾼 40여명, 도합 150여명 [상황] ○ 09:20경 명화섭 의원 등 당직자 20여명(청년당원)이 질서유지를 위해 배치된 모범운전자 노열부 등 30여명에게 욕설을 하며 시민회관 광장밖으로 몰아냄.

시간구분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
	○ 09:30경 시민회관 앞 횡단보도 등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배치된 정복경찰관에게 당원 60여명이 몰려와 "개새끼들 물러가라"며 밀어 부쳐 시민회관 동쪽 건너편 교보빌딩 앞으로 이동함.
09:30-10:00	[인원] 장내 60여명, 장외당원 100여명, 구경꾼 100여명, 도합 260여명 [상황] ○ 09:37경 시민회관 앞으로 밀려난 모범운전자들이 다시 시민회관앞 도로중앙선상에 일렬로 도열 배치 근무에 당하자 청년당원 20여명과 명화섭 의원이 재차 "행사장으로부터 2키로미터 밖으로 물러나라. 너희는 정보요원이 위장한 것이다"라며 청년당원들이 노열부 외 2명에게 "야 쌍놈의 새끼야 왜 여기는 왔느냐"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구두발로 정강이, 엉덩이 등을 차면서 밀어부쳐 몰아냄. ○ 10:00경 옥외방송을 통해 "행사장 주변에 있는 정, 사복 경찰과 정보형사는 현재시간으로 현위치에서 2키로미터 밖으로 물러가라 이를 이행치 않아 생기는 불상사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언동 ○ 10:00 플래카드 게시 7개 (시민회관 앞 차도변)
10:00-10:30	[인원] 장내70여명, 장외당원 60여명, 구경꾼 150여명, 도합 280여명 [상황] ○ 10:30경 주최측에서 옥외방송을 통해 "제물포역, 주안역에서 전투경찰이 본 행사에 참여중인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으니 주변에 계신분들은 시민회관 광장으로 모여 대처하자"고 하여
10:30-11:00	○ 10:40경 당원 100여명이 도보로는 주안역, 봉고차 편으로는 제물포역 지원차 분산 출발 ○ 10:45경 독재타도 개헌서명 이란 스티카와 당기를 부착한 승용차 20여대가 시민회관을 출발 주안 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며 행사안내 가두 방송하면서 김영삼, 이민우 등 영접차 출발
11:00-11:30	[인원] 장내 70여명, 장외 당원 50여명, 구경꾼 200여명, 도합 770여명 [상황]

시간구분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
	○ 11:17 김영삼. 이민우 등 일행 차량 3대, 시외버스 터미널 도착, 명화섭 의원 등 당원 100여명의 환영을 받은 후 ○ 11:25 차량 47대로 명화섭의원을 선두로 숭의로타리-신흥로타리-동인천역-송림동-백마장-부평역-백운역-간석5거리-1지구당사-시민회관-주안역 경유 12:30 주안가든 도착 중식.
11:30-12:00	[인원] 장내 700여명, 장외 당원300 학생 등 기타 600여명, 도합 600여명 [상황] ○ 11:30경 행사장 광장에 400여명이 집결 입장코저 하였으나 주최측에서 12:00부터 입장시키겠다고 제지. ○ 11:45 옥외마이크를 통해 - 식장 안과 밖에 사복경찰관이 배치되어 음과 양으로 방해공작을 펴고 있으니 철저하게 감시 바란다. - 시민회관 앞 상가를 시청에서 모두 철거를 요구하여 상인들의 상업행위마저 규제받고 있다. ○ 11:40부터 당원 입장 시작, 12:00 현재 당원 500여명 입장함. ○ 11:54경 행사장 부근(100미터 상가) 천주교 주안1동 성당 담장 뒤에 화염병 14개, 유인물 600매, 교련복 1개, 개헌서명 원부 1권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 동부서 일반중대 2소대 검문조에서 회수(의경 권오성) ○ 11:55 주최측에서 옥내외 방송으로 "광주학살 자행한 000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등 7건 구호방송. (남녀교대혼성방송) ○ 11:55경부터 시민회관 광장에 대기중이던 근로자풍 6명이(여자2, 남자4) 인천지역 구속자 가족협의회 명의로 된 "구속자 석방 쟁취"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 준비 - 노동자 사회복지 연합회 명의로 된 "구속자 석방을 쟁취하자"라는 플래카드를 근로자풍 10여명이 들고 시민회관 광장에 모여 연좌 - 민헌연 200여명이 "김대중선생 등 민주인사 사면복권하라"는 등 플래카드 7개를 들도 "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주안역 방향에서 차도로 시민회관 광장에 도착.
12:00-12:30	[인원] 장내 2,000여명, 장외 시위군중 4,000여명, 구경꾼 2,000여명, 도합 8,000여명 [상황] ○ 12:00경 학생풍 300여명이 주안1동 성당 옆 골목에서, 다른 학생

시간구분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
	풍 200여명은 시민회관 건너편 골목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대형을 형성하고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구호를 외치면서 갑자기 출현하자 행사장 부근에 모여있던 학생풍 2,000여명이 일시에 가세 스크람을 짜고 “미제축출, 파쇼타도, 민주헌법 쟁취, 독재정권 타도, 신민당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다량의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주안역 쪽으로 진출 타가 되돌아 시민회관 앞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시위군중이 4,000여명으로 증가
13:00-13:30	[인원] 장내 2,000여명, 장외 시위군중 6,000, 일반 4,000, 도합 12,000여명 [상황] ○ 13:05경 민통련 재야단체 200여명이 시민회관 동쪽 차도에서 집결 연좌시위하면서 “독재타도” 등 구호 제창하고 리어카에 스피카 4대 장착, 시위선동하여 시위꾼 3,000여명이 가세 연좌 시위. ○ 13:15 시위군중 2,000여명이 스크람을 짜고 민정당사(시민회관과 200미터)로 뛰어가면서 갑자기 당사에 투석, 동건물 전면2, 3층 유리창을 완전 파손(20매) 시킨후 계속 셔터문을 부수고 당사내 진입을 시도하므로 당사내에 들어간 경비경찰관이 당사 옥상에 올라가 휴대용 사과탄을 투척하자 시위군중이 다시 시민회관 앞으로 돌아와 시위를 계속 - 민정당사 경비인력: 이주 1개소대 내부: 3개 분대 차량: 1개 분대 정문: 3명, 첩문 샷다 내리고 안으로 피신 - 교통 전면 차단 - 여주소대 사과탄 5발 발사 ○ 13:20 여주경비과장 지원요청 - 수도사업소에 상황대기중이던 수원시장부대 민정당사 상황 진압을 위해 기동 1, 5, 8 서울 13동 4개중대 출동(기동 5중대 선발)
13:30-14:00	○ 13:35경 이들 시위군중 2,000여명이 다시 민정당사 쪽으로 몰려가서 당사를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져 집기류가 나면서 잠시후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시위군중은 다시 진압경찰을 향하여 돌과 화염병

시간구분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
	을 던져 순경 최동현 등 6명이 돌과 화염병에 맞아 부상과 화상을 입음. - 기동 5중대 신축 공사장 옆 골목 도착 시위군중과 대치 ○ 13:35경 주최측에서 방송을 통해 김대중 선생이 X인고져 10:00경 자택을 출발하여 하였으나 500여 경찰이 저지하였다고 방송. - 성명불상자가 장내에서 전화로 김대중에게 "현재 인파는 10만정도이고 시민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다. 학생 20,000여명이 참여중인바 경찰이 가스탄으로 시위를 진압코져 한다. 학생중 시위주도하는 자는 이우재와 홍석복이다"라고 상황보고. ○ 13:40경 과격 일부학생중 시위군중 일부가 취재기자 연합 이00 서울 왕00를 폭행하고 시민회관 앞 노상에서 주차한 신민당 깃발을 단 레코드 승용차 1대를 밀어다 민정당사 방향으로 세워놓고 방화 000 소유자 (김노진, 당원) 불이 붙자 경찰을 향하여 밀었음.(소방차 2대가 출동 진화하여 하였으나 시위대가 소방차를 탈취하려고 하여 접근치 못하고 돌아감) ○ 13:45 과격한 상태가 계속되어 최루탄을 발사 일단 저지 - 수원서장 지휘 기동 5중대 발사 ○ 13:45경 주안역 방면으로 행사장 쪽으로 이민우 총재, 김영삼, 당 지도부 등 300여명이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사장에 입장코저 진행. ○ 13:50 후속 3개중대가 도착(기동 1, 8, 서울13) - 기동 5중대와 합동 작전 전개와 동시 최루탄 발사 시민회관 방향으로 100미터 가량 밀어붙임
14:00-14:30	[인원] 장내 2,000여명, 장외 시위군중 6,000, 구경꾼 4,000, 도합 12,000여명 [상황] ○ 14:00 시위군중 세력 와해후 부대 100미터 가량 후퇴(민정당사로부터 신기4거리 방면 50미터 지점) 부대정비, 상황대비 ○ 14:05 시위군중 일부가 시민회관에서 자체소방 호수를 끌어내어 물

시간구분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
	을 뿌리는 한편 주안역 버스 승강장 시설물을 뽑아 쓰러트려 민정당사 방향에 있는 진압부대 쪽으로 밀고감. ○ 14:10경 민통련등 시위군중 1,500여명이 시민회관 앞 차도에서 연좌한 가운데 민통련 사회국장 조준구가 선동 "000 독재정권 타도" 등 구호 제창후 민정당사 방면으로 투석 시위와 동시 민정당사에 돌 500여개, 화염병 80여개 투척 화재 발생 - 여주소대 사과탄 15발 발사(민정당 옥상) - 수원서장 부대 대치 ○ 14:15경 이민우 총재 등 당지도부 30여명이 도보 행진으로 시민회관 부근 성심의원 앞 노상(행사장과 약150미터 상거)에 이르었으나 시위 군중들이 "신민당은 각성하라"면서 시민회관 입구에서 입장을 저지 일시 주안가든 쪽으로 되돌아왔다가 잠시후 재입장을 시도 하였으나 역시 저지 당하여 입장치 못함. ○ 14:20경 주최측에서는 방송으로"근로자 학생 여러분 금일행사는 꼭 치우러져야 합니다. 이총재 등 당직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는 방송을 함. ○ 14:20경 시민회관 앞 차도에서는 학생등(민통련) 1,500여명이 꽹가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연좌 시위, 분위기 고조
14:30-15:00	○ 14:30 민정당 방향 수원서장 부대 시위군중 1500여명 시민회관 방향 150미터가량 밀어붙임 - 소방차 5대 민정당사 화재 진화 ○ 14:30 시위군중 일부 극렬학생 등 200여명이 행사장 부근 주안1동 성당(130미터)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1개. 이정표 2개를 쓰러뜨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경찰에 투석 및 화염병 투척. ○ 14:30 이민우, 김영삼, 당지도부,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태극기를

시간구분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
	앞세우고 도보로 신민당사 앞에 도착 ○ 14:30 시민회관 동쪽 차도상 교보빌딩 앞에서 허수아비와 성조기를 불태우며 - 미국은 핵무기를 철수하라 - 미일외세 물러가라 - 생활임금 인상하라 - 군부독재 파쇼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침. ○ 14:35경 시위군중 200여명이 시민회관 건너편 인도의 보도블럭을 깨어 진압부대에 투석 - 안양서장 부대 배치(석암4거리 방향) - 수원서장 부대 배치(민정당사 방향) ○ 14:50 신민당사에서 이민우 총재 등 당지도부와 주최측의 명화섭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대책회의 실시
15:00-15:30	[인원] 장내 2,000, 장외 시위군중 5,000, 구경꾼 2,000, 도합 9,000여명 [상황] ○ 15:00경 학생풍 시위군중 1,000여명이 민정당사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것을화학탄을 발사 저지 - 수원서장 부대 와해 분산 작전 전개 ○ 15:10 노승환, 이택돈, 박왕식, 명화섭, 유제언 의원 등이 시민회관에 입장키 위해 도착하였으나 시위군중에 의해 저지당하고 다시 당사로 되돌아와 "경찰의 악랄한 방해와 학생들의 무분별한 폭력적 망동으로 신민당 행사는 무산되었다. 잠시후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방송 한편 행사장에서는 노승환 지부장이 "경찰 책임자를 만나서 경찰의 최루탄 발사 등 방해공작으로 행사가 중단된 것을 규탄하고 예정대로 행사를 속개토록 하겠다"고 방송. ○ 15:20경 당사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민회관에서 대회를 금일중 개최하기로 결정하겠다" 고 방송당시 지구당사 앞 도로에서는 당원 300여명이 연좌

시간구분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
15:30-16:00	○ 15:30경 시위군중 1,000여명이 시민회관 광장에서 북과 꽹가리를 치며 “김영삼, 김대중에 의한 개헌운동 중지하라”고 구호제창하고 진압부대에 투석하면서 스크람을 짜고 민정당사 방면으로 진행. ○ 15:35 관할 인천동부서장이 경찰국장과 함께 신민당사를 찾아가 동부서장이 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15:40경 안기부 분실장이 석암파출소 직원을 통하여 10분후에 인근 석암파출소(당사와 400미터 상거)에서 만나자고 요청(메모지) 하였으나 만날필요 없다고 거절당함. ○ 15:45경 시위군중이 계속하여 진압부대에 투석 및 화염병 투척 등 시위가 점차 극렬화 되는 등 시위가 더욱 악화되므로 이를 진압고저 진압차량을 앞세우고 시민회관 4거리 부근에 전진하였을 때 군중이 진압차량을 포위 등 차량에 탑승한 전경들을 각목 등으로 무차별 폭행 전경 1명이 가스차에서 추락되는 등 당시 현장에서 전경 사복1명, 진압복장 전경 2명이 납치되어 무차별 집단 폭행함으로 수원서장 부대 즉각 반경 SY 44탄 발사와 동시 사복부대(8중대) 투입 시위 폭행자 검거에 당함.이때 구출작전으로 진압부대 및 8중대 사복의 부상자 많이 발생 ○ 15:50경 대한생명 빌딩 앞에서 민통련이 주도하던 시위대는 허수아비 화형식을 가졌음. ○ 15:55경 주최측에서 방송을 통하여 “조금 더 기다려 보다가 이총재와 길고문의 참석 없이도 행사를 진행시킬 예정이다”라고 방송한후 안동선, 장기욱 의원 등이 교대로 개헌구호를 선창하면서 분위기 조성.
16:00-16:30	[인원] 장내 2,000, 장외 시위군중 4,000, 구경꾼 2,000, 도합 8,000여명 [상황] ○ 16:00경 교보빌딩 앞 시위대 일부가 주안1동 성당 부근에서 화염병으로 보이는 라면박스 5개 분량의 물건을 손수레로 시민회관 앞

시간구분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
	4거리까지 운반하여 시위군중과 합세극열 시위
16:30-17:00	○ 16:30경 주안가든 앞에서 시위군중 100여명이 안양서장 부대에 최류탄 지원 가던 경찰 타이탄 트럭 (1045번 가스탄 476발 적재) 1대를 탈취 행사장 앞 4거리로 밀고 가면서 - 신민당은 각성하라 - 신민당은 자폭하라 - 이원집정제 반대 - 미제국주의 철수 등 구호 제창 ○ 16:45 탈취한 타이탄 트럭을 시민회관4거리에서 적재함 덮개를 벗겨서 적재함위에 놓고 불을 부쳐 석암4거리 쪽 진압부대를 향하여 밀었음. - 안양서장 부대가 차량 회수와 동시 진화 - 이때 장내에서 방송으로 "2차에 걸쳐 김영삼고문 등 당지도부가 행사장 입장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학생들 자극으로 입장치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늦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대로로 행사장에 들어 올 것이다"라고 방송 ○ 16:50 시민회관 앞 시위대는 탈취차량에서 조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탄용산자 확보 ○ 16:55 동시위대 성명불상자가 "금일 하루를 시위와 농성으로 완전히 장악하자"라고 선동.
17:00-17:30	[인원] [상황] ○ 17:00경 주안1동 성당 부근 500여명과 행사장 앞4거리 500여명 등 1,000여명의 시위군중은 - 000독재 정권을 이민우가 물리쳐주겠는가 - 김대중, 김영삼은 안된다 - 우리 스스로가 해야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투석을 하여 극렬시위 계속 - 안양서장 부대 대치

시간구분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
	○ 17:20 홍사덕 대변인 성명 발표 - 경찰의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악랄한 방해에 의해 신민당 결성대회가 좌절되었다. - 당지도부가 대회장에 입장하는 시간에 맞추어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청년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하여 그들의 출입을 봉쇄한 것이다. - 이후 걷잡을 수 없는 불행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정부에 있으며 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 17:29경 이민우 총재, 김영삼고문과 당소속 의원 30여명은 승용차 편으로 상경
17:30-18:00	○ 17:40 진압작전 전개최루탄 발사로 행사장 주변의 시위군중이 주안역 등지로 분산 ○ 18:10 시민회관의 당원들은 만세삼창을 한후 자진 해산 귀가

2. 대검찰청 중간수사결과발표

시간구분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1986.5.19.) "나. 시간별 소요 진행상황" pp.79-
12:00-12:30	○ 12:00경부터 학생등 2,000여명이 인천 시민회관 앞에 집결하여 시위를 개시한 후 시간이 흐르자 4,000여명으로 증가하고 교통마비
13:00-13:30	○ 13:15경 학생등 2,000여명이 민정당 인천 제1지구 당사등에 투석, 2·3층 유리창 20여매를 파손한 후 당사내 진입 시도 ○ 13:26경 경찰이 최루탄(사과탄) 5발 투척 ○ 13:35경 학생등 2,000여명이 화염병 10여개를 위 민정당사에 투척하여 건물일부를 소실하고, 진압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무차별 투척하여 경찰관 6명 부상 ○ 13:40경 학생등 일부가 취재기자등을 폭행하고, 시민회관 앞 노상에 주차한 신민당 깃발을 단 레코드 승용차 1대(신민당원 김노진 소유)를 밀어다 민정당사 방향으로 세워놓고 방화 ○ 13:50경 시위가 과격해지자 경찰이 최루탄 발사
14:00-14:30	○ 14:00경 신민당 이민우총재, 김영삼 고문 등이 대회장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속지말자 신민당 이란 플래카드를 든 일부 시위군중의 저지로 입장치 못하고 14:17경 현판식장으로 퇴거 ○ 14:30경 학생등 200여명이 행사장 부근 공중전화박스 1개, 이정표 2개를 쓰러뜨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경찰에 투석 및 화염병 투척 ○ 14:30경 시민회관 앞 동쪽 차도에서 학생등 1,000여명이 성조기를 불태우고 반미구호 등을 외치며 경찰에 투석시위
15:00-15:30	○ 15:20경 신민당 주최측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회를 강행하기로 한다"고 방송하였으나, 시위군중 계속 투석 ○ 15:45경 학생등 일부가 경찰차량을 포위하고 경찰관들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 3명이 부상

16:00-16:30	○ 16:30경 학생등 100여명이 경찰타이탄트럭 1대를 탈취 적재함에 불을 붙여 경찰을 향해 밀어부침
17:00-17:30	○ 17:20경 신민당 홍사덕 대변인은 대회를 무기연기키로 결정하였다고 발표 ○ 17:40경 학생등 1,000여명이 주안역 앞으로 이동하면서 버스 안내판 2개를 뽑아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극렬투석
19:00-19:30	○ 19:00경 학생등 300여명이 제물포역 앞으로 이동
20:00-20:30	○ 20:20경 학생등 300여명이 도화국민학교 앞에서 시위 하면서 형사기동대 봉고차량 1대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소실
20:30-21:00	
21:30-22:00	○ 21:40경 소요종료

3. 신민당 진상조사보고서 노승환, 「인천사태의 진상」(5월 15일)

시간	내용	비고
12:40	인천시청 쪽으로부터 학생 근로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대회장 쪽으로 대거 행진하자 길가에 줄지어 앉아 있던 학생과 근로자를 가장한 2,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이에 가세 “미제 축출” “파쇼타도” “인천해방구” “신민당은 각성하라”는 등 격렬한 구호를 외치며 각종의 유인물을 뿌리기 시작함	
13:40	당지도부가 대회장에 입장할 즈음 민정당사와 승용차에 불이 질러지고 거의 동시에 대량의 최루탄이 발사 되었다는 점은 시차의 계획성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것이었던 바, 이는 대회 방해를 위한 공작성의 증거라 하니할 수 없다.	
3:40	가스차 1대가 아무런 필요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쪽으로 돌진하다 급정거했다.	

4. 5.3항쟁 당일 시위 전개 양상 개관

■ 5.3항쟁 당일 오전 상황

○ 5.3항쟁 전날인 5.2일에는 민통련 관계자들은 인천으로 와서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민통련과 인사연 관계자들은 다음날 시위에 필요한 유인물이나 플래카드와 준비물들을 시민회관 인근의 주안1동성당로 옮겨 보관해두었다.

○ 경기도경찰국은 5월 2일 저녁 9시부터 5월 3일 새벽 5시까지, 3,759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5.3대비 인천 일원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다. 숙박업소 1,053개소를 포함한 1,271개소의 장소를 검색하였고, 유인물, 화염병을 비롯한 시위용품 81종 1,240점의 물품을 압수하다.[1] 또 경기도경은 자체병력 35개중대 4,690명,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 지원인력 45개중대 6,030명, 계 80개 중대 10,720명을 오전 9시에 배치하여 주요 지점에서 검문검색을 하면서 진압 작전을 준비하다.

○ 신민당은 개헌 추진 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 및 현판식을 5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민통련과 재야단체가 시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충돌의 전조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 5월 3일 오전, 신민당원과 당직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회관 마당에 나와서 개헌 현판식을 준비하거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은 행사 직전에도 시민회관 인근인 주안1동성당 일대를 검문실시, 주안역과 제물포역 승객에 대한 검문검색, 시민회관 광장에 모범운전자와 정복경찰 배치 등으로 신민당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었으며, 신민당은 방송을 통해 경찰이 대회장 2km 밖으로 물러날 것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경찰은 행사장 100~200m 내외까지 근접한 압박 배치를 변경하지 않았다.[2]

○ 재야단체의 시위는 12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주안1동성당에서 민통련 회원등 200여명와 40여 명의 인노련 회원들은 각각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확성기를 설치한 리어카로 시위를 시작했다. 시민회관 네거리에서

1)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내무부, 5.19.). p.41
2)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28).

시위가 시작되면서 주변에 운집해 있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시위대는 곧 2천여 명 규모로 불어 났으며, 민통련 주도의 집회가 시작될 무렵인 13시 경에는 4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 오후 1시 20분경, 민정당사 앞 신기촌 방향을 맡고 있던 경찰이 시위대와 공방을 벌이던 중 운집중인 수천명의 시위군중 향해 다연발 최루탄 무차별 발사하여, 여러 명이 파편에 부상당하는 사고로 이어지자 이에 격분한 2,000여명의 시위대는 경찰과 투석전으로 벌이며 민정당사를 공격했다.[3] 이 과정에서 민정당 제1지구당 화재가 발생하고 경찰이 시위대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4]

○ 오후 3시 45분경, 수원서장이 담당하고 있던 신기촌 방향의 시위대가 늘어나면서 시위가 격화되자 진압차량을 앞세우고 시민회관 4거리 부근까지 전진하였다가 시위대에 의해 진압차량이 포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후 4시 30분경에는 시위 현장에 경찰의 최루탄 운반차가 돌진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최루탄 운반차는 신기촌 쪽에서 출발하여 본래 경인상가 앞에서 대치하고 있던 경찰에게 최루탄을 보급할 예정이었다. 석암 4거리에서 진압부대의 후방으로 접근해야 할 차량이 주안역 대로의 시위대 가운데로 진입하여 시위대에 점거된 사건이다.

○ 오후 5시 20분경, 신민당 홍사덕 대변인 '경찰 방해로' 개헌 현판식 무기 연기를 발표하고, 김영삼 고문등 신민당의원들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민통련 200명의 시위대는 철야시위를 결의하고, 2,000명 시위대는 시가행진하며 대열을 정비했다. 신민당 개헌현판식이 무기 연기된 이후 시위대와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최루탄 발사와 투석전이 계속됐다.

○ 오후 6시 20분경 경기도경은 시민회관 사거리의 네 방향에서 진압부대를 일시에 투입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해산된 시위대는 주안역, 제

3) 경찰의 과잉 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하고 격렬한 투석과 화염병 공격으로 이어졌다는 증언이 많다.
4) 『선봉』4호 ('86.5.13)

물포역, 수봉공원입구, 부천역, 동인천역으로 옮겨 시위를 계속하다가[5] 오후 10시경 10시간에 걸친 5·3 당일의 항쟁은 종료되었다.[6]

5. 인천5.3민주항쟁 시간대별 상황 재구성[7]

■ 09:00~12:00

시간	내 용	비고
5/2 21:00~ 5/3 05:00	경기도경 3,759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5.3대비 인천 일원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함. 숙박업소 1,053개소를 포함한 1,271개소의 장소를 수색하고, 시위용품 81종 1,240점의 물품을 압수함.[8]	검문검색
09:00	경찰 경기도 자체인력 35개중대 4,690명과 타 시도 지원인력 45개중대 6,030명 80개 중대 총 10,720명을 09:00까지 시민회관 주변의 석바위, 신기촌, 제물포역, 주안역 방향 도로에 배치 완료함	진압경찰 배치
09:00	신한민주당 시민회관 옥외에 대형 확성기 8대 설치하고 집회 안내방송 시작함	신민당 방송
09:20	신민당 청년 당원 60명 시민회관 광장 배치된 정복 경찰관 철수 요청함	신민당 항의
10:00	신민당 충돌을 우려하여 경찰관들을 행사장으로부터 2㎞ 밖으로 철수할 것을 요청하는 옥외 방송을 함	신민당 항의
10:40	신민당원 100여명이 주안역과 제물포역으로 이동하여 경찰 검문검색에 항의하고 중지를 요청함	신민당 항의
11:54	경찰 검문조 주안1동성당 앞 화단에서 화염병14개, 유인물600매, 교련복 한벌을 수거함 "광주학살 자행한 군사독재정권 타도, 군사독재 몰아내어 민주헌법 쟁취하자"는 내용의 구호 방송이 시작됨	검색압수, 신민당 방송

5) 서울로 귀가 중인 문미숙, 송민정 외 20명은 부천역전 시위를 시도하다가 연행되기도 했다.
6) 대검,「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보고」(1986.5.19.), 경기도경 「실황조사서」(5.28) 등 참조
7) 경기도경찰국,「실황조사서」(5.28)를 중심으로 정리한 상황임
8)「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내무부, 5.19) p.41

■ 12:00~17:40

시간	내 용	비고
12:00	주안1동성당에서 민통련 회원 등 200명, 플래카드, 확성기 달린 리어카로 시위를 시작함 시민회관 네거리 시위대가 출발함, 시민회관 건너편 학생 300명, 대회장 주변 2천명이 운집함 -주안역앞 300명이 시위군중 20개의 플래카드, "인천을 해방구로"를 앞세우고 행진을 시작함	민통련 시위 민민투 시위
13:00	대회장 주변 4천명이 운집하고 민통련 장기표 정책실장 주도로 시위를 시작함	장기표 연설
13:15	시위대 2천명이 신기촌 방향의 진압부대와 대치하며 투석, 화염병 투척하는 과정에서 민정당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35분경 민정당사 화재로 전소됨 (여주소대가 민정당사에 고립되고 13;26 경 경찰 사과탄 5발 투척하는 등 구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민정당 공격 사과탄투척
13:40	시위군중 200명이 노상 주차된 신민당원 차량에 방화하여 전소됨 -시민회관 앞 근로자 200명 유인물 2천여매를 살포하며 시위함 -학생 800 명이 시민회관 사거리 스크럼 시위하며 돌과 화염병 투척하자 13:35, 경찰 최루탄을 다량 발사함	당원차량전소 투석전 격화 최루탄발사
13:45	신기촌 방향의 진압부대 4개 중대, 최루탄을 사용하여 민정당사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고립되었던 여주 소대가 본대에 합류시킴	민정당사진압
14:05	시위대 시민회관 소방호스로 대회장 물을 뿌림. 시위대가 주안성당앞 버스 승강장으로 민정당사 앞의 바리케이트를 설치함	바리케이트 설치
14:20	민통련회원 100명의 선도로 1500명 풍물패 선두 유인물 배포	풍물패 행진
14:25	민통련 장기표 '구속자 석방' 구호를 외치면서 연설하고 시위를 시작함	장기표 연설
15:30	-주안초등 건너편 시위대 200명, 시내버스 안내판, 공중전화박스 쓰러뜨려 바리케이트 설치함 -민통련 회원 등 1,000명 교보빌딩 앞 "속지말자 신민당" 플래카드 들고 성조기와 군사독재 화형식을 개최함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물러가라,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김영삼과 김대중이 벌이고 있는 개헌운동 중지하라) -15:45. 시민회관4거리로 돌진했던 경기 기동8중대 소속 가스차가 시위대에 포위되어 기동 8중대장 김윤옥 경감 등 10명 부상	바리케이트 설치 가스차 포위

시간	내 용	비고
16:30	시민회관 북쪽 시민화원 앞으로 돌진했던 최루탄운반용 타이탄 트럭이 100명의 시위대에 포위됨. 시위대는 트럭에 불을 붙여 석바위 쪽 시위 진압부대 쪽으로 밀어냄(17:10)	타이탄 포위 방화
17:20	신민당 홍사덕 대변인이 대회 무기 연기를 발표함 -민통련 200명 등 시위대 철야시위를 결의하고 시위대 2000명 시가행진 대열을 정비함 -17:30, 시위군중 2,000명이 민정당사 진압부대 향해 투석, 화염병 투척함 -17:30, 신민당 김영삼 고문 등 당소속 의원 승용차편으로 서울로 출발함	현판식연기 시가행진 투석전격화
17:40	경기도경 3개 방향에서 34개 중대를 투입하여 동시다발적인 진압 작전 전개함, 시위 군중 주력이 분산되었으며 약 1,000 여명의 시대위는 주안역 앞으로 이동하며 버스 승강대 2개로 바리케이트 설치하고 투석전을 시작함	바리케이트 설치

■ 18:15~21:40

시간	내 용	비고
18:15	-주안역 앞 100, 주안역앞 계단 200명, 제일연탄 300명 시위를 계속함 -주안1동 파출소, 법원4거리 방향 산발적 시위가 이어짐 부천서 소속 5개중대, 남양주서 소속 4개중대, 광명서 소속 4개중대 주안역 석바위 일대의 시위를 진압함	주안역 시위
19:04	제물포 역 앞 동인천역 앞(연좌시위), 용덕마루 화평교 축현초교 주안 5,6공단 등지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짐 -19:30경 동암역 시위 9)	제물포역 시위
20:00	서울 귀가 중인 문미숙, 송민정 외 20명 부천역전 시위를 시도하다 모두 연행됨	부천역전 시위
20:20	도화초등학교 앞 도화4거리 시위대 300명이 교통 초소에 투석하고 인천동부서 기동대차량 방화하여 차량 전소됨	도화초등 시위
21:40	중구 경동 4거리 동인천 방향 시위대 200명이 차도 위에서 재집결하여 시위를 계속함 - 남양주경찰서 인천경찰서 소속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고 상황이 종료됨	동인천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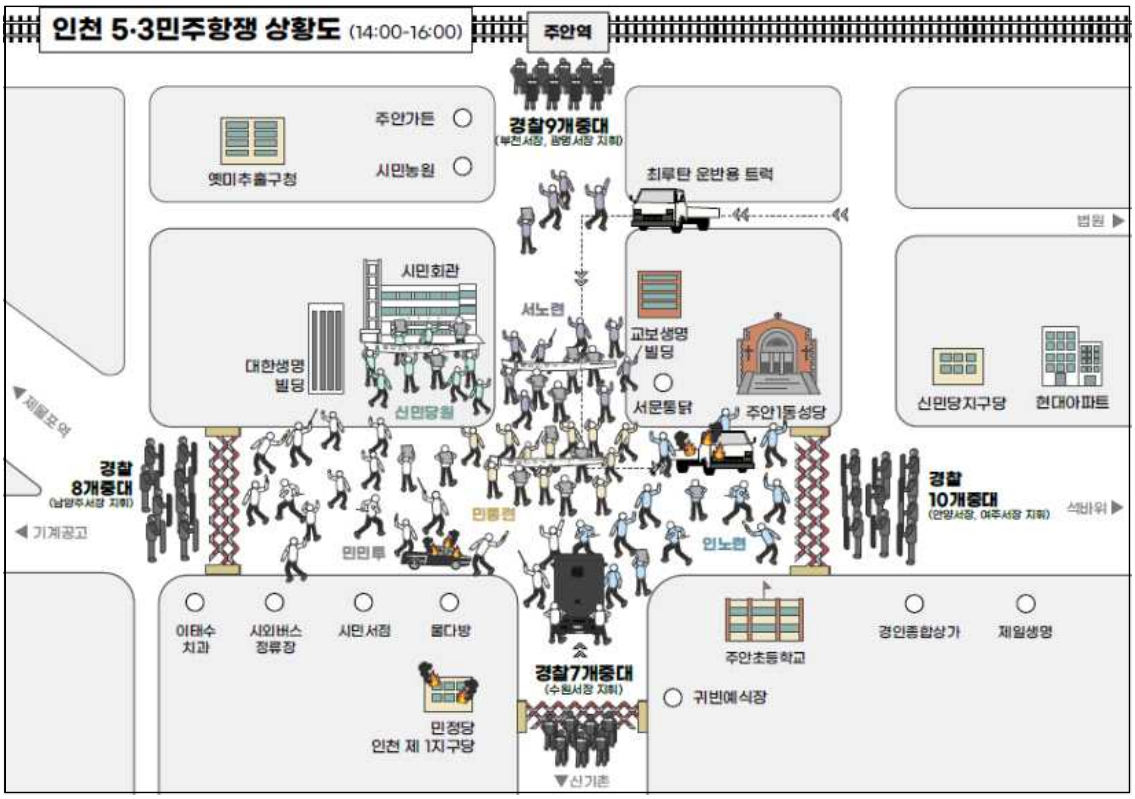
9) 경인일보, 5월5일자 보도

6. 인천5.3민주항쟁 상황 종합

■ 개요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전국의 민주화 운동단체와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단체, 인천시민들이 1986년 5월 3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인천 시민회관사거리 일대에서 군부독재 퇴진과 민주헌법 쟁취, 신군부 집권연장책인 이원집정제 비판, 노동3권의 보장 등 민중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1만여 명의 진압경찰과 맞서서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5·3항쟁은 약 10시간에 걸쳐 옛 시민회관 사거리를 중심으로 주안역·석바위·제물포역·동인천·부천역 일대에서 전개되었으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비롯한 재야단체, 학생 및 노동운동 단체와 인천시민 약 5만 명이 시위를 주도하였다. 당시 참여단체로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전국학생연맹(민민학련)·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자민투)·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인천기독청년협의회(EYC) 등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대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서울대· 연세대·서강대·숭전대·고려대·장신대·인하대·인천대·중앙대·외대·이화여대·성심여대·안동대 등 24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인천5.3민주항쟁 주요 상황도(14:00~16:00)

■ 시위직전 상황

5.3 당일 민통련과 재야단체의 시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충돌의 전조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 5월 3일 오전, 신민당원과 당직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회관 마당에 나와서 개헌현판식 준비하거나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9시 20분경 신민당 청년당원 60명 질서 시민회관 광장에 배치된 정복경찰관의 철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했으며,[10] 10시경 신민당 측이 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진압 경찰관을 행사장 2km 밖으로 철수할 것을 요청하는 방송을 하였다. 10시 40분경 주안역과 제물포역 검문검색이 과도하다는 연락을 받고 신민당원 100여 명이 주안역 제물포역으로 가서 검문검색에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행사 직전에도 시민회관 인근인 주안1동성당 일대를 검문을 실시하여 화염병과 유인

10) 주최측이 행사장 근처에서 경찰 병력 퇴거를 강하게 요구하자 인천동부경찰서장은 질서 문란시 의법조치하겠다고 경고로 대응했다.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화」(경기도경)

물을 회수하는 등 집회 주최 측인 신한민주당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최근 경찰측 자료인 「실황조사서」에서 확인되었다.[11]

■ 경찰배치 상황

신민당은 개헌 추진 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 및 현판식을 5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었다. 경기도경찰국은 자체병력 35개 중대 4,690명,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 지원인력 45개 중대 6,030명, 계 80개 중대 10,720명을 오전 9시에 배치하여 주요 지점에서 검문검색을 하면서 진압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원된 경찰은 개헌현판식 행사장인 시민회관 주변에 총 34개 중대가 배치되었는데 시민회관 남쪽 신기촌 방향은 수원경찰서장이 지휘하는 7개 중대, 제물포역으로 가는 시민회관 서쪽에는 남양주서장 지휘 8개 중대, 석바위 방향 시민회관 동쪽에는 안양서장과 여주서장이 지휘하는 10개 중대, 주안역 광장에는 부천서장과 광명서장이 지휘하는 9개 중대를 배치했다.

■ 시위 시작 상황

민통련 산하 단체인 인사연, 민청련, 민불련 회원 500명은 주안1동 성당에서 집결하여 대열을 정비한 다음 12시부터, 시민회관 사거리 행진을 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민통련은 시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연좌 집회 형식의 '민주화 촉진 인천시민대회'을 개최하였다. 장기표 정책실장, 이호웅 인사연 의장, 정동년 등의 간부들이 정치연설을 이어가는 동안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를 수립하자'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주로 외쳤으며, 14:20분 경에는 풍물패를 선두로 행진하며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사죄하라! 저임금, 실업 강요하는 재벌정권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학생 시위대 시위 상황

인하대와 인천대는 인사연과 연락하며 대회에 참가하였고 서울 시내

11)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28)

의 대학은 참가 결의를 하고 인천으로 집결했다. 당시 조직적으로 참가한 대학은 인하대, 인천대를 비롯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숭전대, 고대, 장신대, 중앙대, 외국어대 등으로 약 4,000명의 시위대오를 형성했다. 참가 학생들은 대체로 민민투(민민학련)와 자민투로 나뉘어 시위에 참가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민학련은 시민회관 남쪽 신기촌 방향을 맡아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했다.

민민학련의 정식명칭은 전국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학생연맹(AIAF NDSF)으로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을 예속자본과 민중 간의 모순이라고 보는 정치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국 각 대학에 설치된 민민투위의 전국연합조직이었다. 민민학련은 집회를 “광주학살원흉처단, 미제처단과 헌제회의쟁취를 위한 범민중궐기대회”으로 결정하고 서울 서부지역평의회 대학(연세대, 서강대, 이대 등), 남부지역평의회 대학(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등), 동부지역평의회(고려대, 외대, 경희대 등), 북부지역평의회(성균관대 등)에 속한 10개 대학 2,0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민민투는 시민회관에서 출발하여 석바위, 제물포를 거쳐 저녁 10시경 동인천으로 이어지는 4차 집회까지 계획대로 개최하고 해산했다.

■ 노동자 및 단체 시위 상황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기독노동자연맹의 노동자들이 주로 참여했다. 노동자들은 주안역에서 주안1동 성당 앞쪽에서 시위하였으며 “군사독재 타도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생활임금 쟁취하자!” “8시간 노동제 쟁취하자!” “파업자유 쟁취하자!” “박영진의 원수를 갚자!” “폭력경찰 때려잡자!” “노동해방 쟁취하자!” “노동자의 손으로 삼반정권 타도하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삼민헌법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경찰 진압과 시위대 해산 상황

신민당 개헌현판식이 무기 연기된 이후부터 오후 내내 시위대와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최루탄 발사와 투석전이 계속됐으나, 오후 6시 20분경 경기도경은 시민회관 사거리의 네 방향에서 진압부대를 일시에 투입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해산된 시위대는 주안역, 제물포역, 수봉공

원 입구, 부천역, 동인천역으로 옮겨 시위를 계속하다가[12] 오후 10시경 10시간에 걸친 5·3 당일의 시위 상황은 일단 종료되었다.[13]

■ 주요 참가 단체와 항쟁 규모

인천5.3민주항쟁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6월 민중항쟁 이전 단일시위로 최대 인원 참가한 연합집회, 10시간 이상 지속한 최장 시위(12:00~21:00)였으며 시민회관 시위대 진압 이후에도 남구 도화동, 제물포역, 동암역, 중구 경동4거리, 동인천역, 부천역 등에서 크고 작은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 참가 인원은 5만명으로 추산[14]되며, 그 규모는 5·3민주항쟁은 광주 5.18 이후 최대의 항쟁이었다.

주요 참가 단체로는 인천의 대표적 민주화운동단체였던 인사연과 민통련 산하 23개 단체, 학생운동의 양대 세력이었던 민민학련과 자민투 소속 수도권 대학들과 인하대, 인천대, 노동운동 단체로는 인노련과 서노련, 인천기노련이 망라되었다. 민주화운동의 부문으로 볼 때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과 같은 민중운동과 학생운동, 문화예술운동, 종교운동, 단체연합 조직 등이 참가하였다. 5·3항쟁은 인천의 항쟁이자 전국 민주화운동 세력의 항쟁이기도 했다.

---

12) 서울로 귀가중인 문미숙, 송민정 외 20명은 부천역전 시위를 시도하다가 연행되기도 했다.

13) 대검,「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보고」(1986.5.19.), 경기도경 「실황조사서」(5.28) 등 참조

14) 5.3항쟁 참여 인원에 대하여 경찰 내부 보고 자료에는 시간대별 최대 1만 2천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보도는 5만, 집회 측에서는 1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시위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연인원 개념을 도입하여 동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동아일보의 추산을 인용한다.

구분	주요단체	인원 (명)	비고
재야	민통련(전국지역협,민청련), 인사연	1,000	
노동자	인노련, JOC,기노련,서노련 등 수도권 노동자	3,000	
학생	민민학련(민민투), 자민투	4,000	
정당	신한민주당 당원	2,000	
시민	인천시민 (당시 남구, 중구 구민 중심), 철거민	40,000	
소계		50,000	『동아일보』

■ 시위대의 요구와 주요 구호

5.3항쟁의 주요 요구는 “직선제 개헌과 민중생존권 보장”이었다. 전두환 정권과 공안당국은 인천5·3항쟁 당시 중요한 요구보다 특정 구호만을 부각하여 시위의 과격성을 확대 재생산했다. 집회 참가 단위별 입장은 부문별 특성과 정치 노선상의 차이도 존재했지만 직선제 개헌을 일관되게 요구하면서 신민당의 이원집정제에 대한 반대로 집중점을 이루고 있었다.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미일외세 축출을 요구도 높았으며 노동운동 단체와 학생들은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중권력 수립도 제기했다. 이같은 인천5·3민주항쟁의 핵심적 요구는 이듬해 6월 항쟁으로 이어졌으며 7,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다.

표1. 5·3시위 참가한 각 단위의 입장

	이원집정제	직선제 개헌	미일외세축출	노동자 농민 생존권	삼민헌법 민중권력
신민당	○	○	×		×
민통련	×	◎	○	○	
서·인노 노동	×	○	◎	◎	◎
민민투	×	○	○	◎	◎
자민투	×	○	◎	○	○

◎ : 적극 주장, ○ : 소극 주장, × : 반대

[그림 2-2] 자료출처: 김영곤(2014)

민주화운동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반독재투쟁으로 국한하여 이해할 경우 민주화운동의 입체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은 독재에 대한 반대를 넘어 대안 체제인 민주정부 수립과 새로운 헌정체제 확립을 요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나아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 국제적으로도 자주적인 외교를 요구하는 노력도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된다. 종합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인천5·3민주항쟁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당시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민주변혁의 과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였으며, 그 문제제기의 연장선에서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연속적으로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3] 자료출처: 경향신문

7. 상황과 주요 사건별 쟁점

■ 최루탄 가스차 돌진 사건

가스차(페퍼포그) 돌진 사건는 오후 3시 40분, 시민회관 남쪽 신기촌 방향의 진압경찰과 시위대의 대치선 쪽에서 발생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 가스차 1대가 아무런 필요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쪽으로 돌진하다 급정거, 운동화 차림의 젊은이들과 충돌한 사건은 경찰 측의 의도적 연극처럼 보였다고 한다.[15] 경찰은 가스차 돌진 상황과 관련하여 “신민당 현판식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신민당 인천제1지구당사에서 대기중이던 이민우, 김영삼 등 20여 명의 행사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 진압부대 대신 기동1중대 소속 가스차를 앞세우고 사복중대(134명)을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각목 등을 든 시위군중이 가스차량을 포위함으로써 후진하는 순간 가스차의 기어가 얽혀 시위대에 포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16] 시위군중이 밀집해 있던 시민회관 사거리 중앙으로 가스차와 함께 2개 중대의 사복경찰을 진입시킴으로써 시위대를 자극하고 시위가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경찰이 가스차가 후진하다가 차량 뒤편에 있던 경찰이 차량 아래로 깔린 상황이 벌어졌는데 경찰은 ”기어가 얽혀“ 일어났다고 해명했으나 의도와 배경의 의문이 남아 있다.

■ 최루탄 운반트럭 돌진 사건

최루탄 운반용 트럭 돌진 사건는 오후 4시 30분경에 일어났다. 주안역에서 시민회관 4거리 방향 주안가든 앞쪽에는 인노련과 서노련 등 노동자 단체 주도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위대 가운데로 경찰 최루탄 운반 트럭이 진입했다. 시위 군중들이 트럭을 포위하자 운전자와 동승자가 트럭을 버리고 도주했다. 시위대는 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던 최루탄을 모두 내리고 트럭을 석바위 쪽으로 밀고 갔다.

경찰 측에 의하면 당시 최루탄 운반트럭은 “수경 기동 2중대 4.5톤 복사 트럭으로 16시 30분경 시민회관 남쪽에 대치 중인 진압부대에 최루

15) 「질의예상답변자료』,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42쪽
16) 「질의예상답변자료』,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10쪽

탄을 1차 보급하고 2차 시민회관 동쪽에 대치 중인 진압부대에 공급하기 위하여 석암 4거리를 거쳐 시민회관으로 가야 하는데도 지름길인 현대아파트 골목으로 잘못 진입 시민회관 북쪽 시민회원 앞에서 순식간에 시위대에 포위 탈취당하였으며(운전사 등 2명은 피신) 탈취 시위대는 적재하고 있던 최루탄 476발을 꺼낸 후 차를 시민회관 앞 30미터까지 밀고 가서 6시 40분경 최루탄 수송차량 적재함 덮개를 벗겨 적재함에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여 시민회관 동쪽 70미터에 위치한 진압부대에 밀어부쳤으나 진압부대가 조기 진화 회수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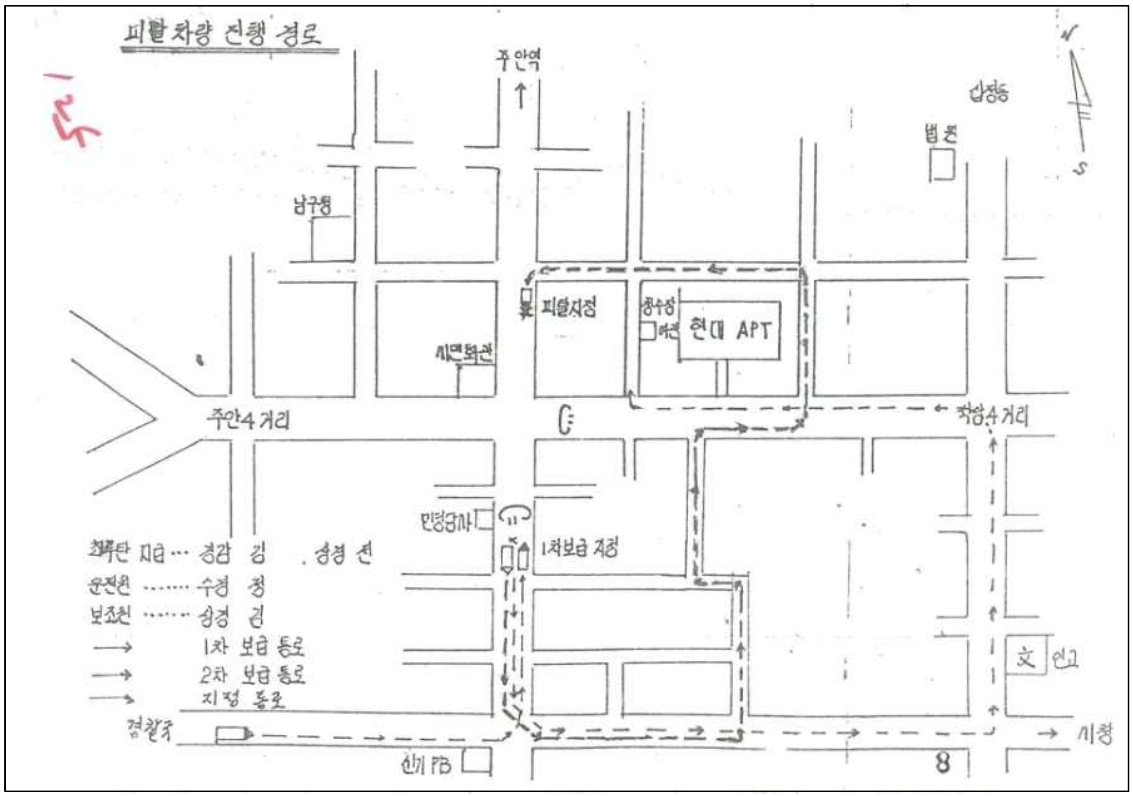


[그림 2-4] 자료출처: 박근원

최루탄 운반차가 경인종합상가 옆골목을 통해 경인대로로 나오면 바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10개 중대의 진압경찰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보지 못하고 대로를 횡단하여 현대아파트 옆골목으로 진입하였다는 주장은 의문점이 많다. 당시 목격자들은 시위대를 자극하기 위한 의도적 돌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언론도 돌진 사태의 원인 규명은 도외

17) 「질의예상답변자료』,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6쪽

시하고 충돌장면만 편집하여 시위대의 과격성을 극적으로 부각하는 자료로 삼았다.



[그림 2-5] 「질의예상답변자료』,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6쪽

■ 경기도경 점거 계획 협의

경찰의 이른바 '경기도경 점거 기도설'은 5·3 항쟁의 폭력성과 극렬 좌경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 사례 중의 하나였다. 시위 후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계획할 수는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이 심야에 경비가 철저한 경찰국을 점거하는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18] 당시 전두환 정권은 시위사건에 소요죄를 적용하기 위해 민민학련의 소속 학생들이 5·3일 자정 무렵을 기하여 경기도경을 점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23:00~24:00 동인천역으로 진출하여 군중대회를 개최한 후 경기도경을 점거키로 했다"는 것이다.[19] 민민학련은 5.3항쟁 4일 전인

18) 「5·3인천민중항쟁을 왜곡하지 말라」(민주 통일민중운동연합, 1986.3.19.)
19) 「인천소요사건 진상보고」(내무부) 및 「인천소요사건 중간수사발표」(대검찰청, 1886.6.19.)

1986년 4월 29일에 결성된 조직이다. 민민학련이 동·서·남·북부 평의회 소속 10여 대학에 적극 참여를 권유한 것은 이 집회를 “민족민주의 조직 이념을 소속학생과 경인지역의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과 공유하고” 노학연대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20] 실제로 시위현장에서 주로 제창한 구호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제국주의 축출하자, 일당 7천원 쟁취하자!, 파업자유 쟁취하자! 등의 구호가 중심이었다[21]

경찰 측은 일부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도경점거 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소요죄의 근거로 삼는 한편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으나, 민민학련은 4월 29일에 대학연합 단체로 결성되었으며, 5.3항쟁에 참가한 주목적이 새로 정립한 민족민주변혁을 선전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조직원의 대량 검거가 불가피한 도경 점거 계획을 수립하였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

20) 「연세대 민민투 5·3참가 배경」(김OO,백OO 진술서)
21) 「연세대 민민투 5·3참가 배경」(김OO,백OO 진술서)

Ⅲ. 연구현황과 문헌자료 분석

Ⅲ. 연구현황과 문헌자료 분석

1. 학술자료

1) 인천5.3민주항쟁 기념 행사 자료집

(1) 5.3민주화운동 제17주년 기념 토론회

■ 행사개요

구분	내용
자료명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행사명	5.3 민주화운동 제17주년 기념 토론회
주최	5.3인천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일시	2003년 5월 2일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발표문	1. 5.3인천사태를 뒤돌아보며(이우재) 2. 5.3인천사태와 급진적 민주주의 정신(조희연)
참고	이우재의 “5.3인천사태를 뒤돌아보며” 원고가 『5.3에서 미래로』(2006) 자료집에 재수록되어 있음. 이 자료에 대한 해제는 ‘기타’ 항목의 (1) ‘회고 또는 평가문’ 항목에서 다루고 있음.

■ 자료집 내 학술자료

① 조희연. 2003. 5.3인천사태와 급진적 민주주의 정신

■ 발표문 목차

1. 급진적 민주주의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분출한 5.3인천사태
2.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정상화가 제기하는 도전들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5.3인천사태에서 중요한 의미는 광주항쟁 및 80년대 초반 사회운동의 심화를 통해 출현한 급진적 민주주의 세력이 개헌이라는 당면 과제에 개입하면서 급진적인 민주주의의 전망을 요구하며 싸웠다는 점이다. 급진적 민주주의 세력은 광주민중항쟁의 경험과 80년대 초반 비합법적인 수준에서의 급진적 논의들과 급진적 현장운동의 실험, 전투적 학생운동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이들은 광주의 비극 이후 전두환 독재정권을 파쇼적 국가권력으로 인식하게 되고, 나아가 대미종속적인 권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70년대 민주화운동과 구별되는 80년대의 반파쇼 혁명운동, 반외세 자주화운동, 민중운동 등의 성격을 띠는 사회운동이 성장하였다.
2	80년대 광주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국가권력은 국가테러리즘과 폭력을 기초로 출현한 국가였다. 그러나 반공규율사회로서 한국에서 국가폭력은 부각되지 않고, 저항운동에 있어서의 무장 저항은 통제되어 비무장 '평화' 운동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광주항쟁 이후 국가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급진화된 사회운동 진영에서 국가권력은 '적'으로 규정되고, 사회운동은 혁명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각성이 동반되었다. 사회는 계급적 지배의 체제로 해석되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민주화운동 탄압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시켰다.
3	정치적 자유주의 세력과 급진적 민주주의 세력이 현실 속에서 연합한 공간이 바로 개헌투쟁이었다. 5.3인천사태는 개헌이라고 하는 현실적 투쟁 속에서 급진적 민주주의 투쟁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투쟁이 결합되어 표출되기 시작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합투쟁 속에서 비로서 87년 6월 민주항쟁도 가능했다. 1987년 이후 지배와 저항의 대치선은 국가의 예외적인 폭력성과 반민주성을 쟁점으로 하던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실질화와 확장을 쟁점으로 하는 상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상적인 자본제적 민주주의적 형태'의 계급적·정치적 지배질서의 형성 속에서 어떻게 5.3의 정신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이다.

4	5.3인천사태는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존재하던 상황에서 자유주의 세력과 급진적 민주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투쟁하던 사건이다. 이러한 연합투쟁이 국민적 투쟁으로 발전하면서 87년 6월 민주화대투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87년 이후는 이러한 연합이 분리되고, 급진민주주의 세력은 자유주의적 성격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합리화하는 동력으로 수혈되어지거나 장외의 사회운동세력으로서 제도정치의 민주화를 추동하는 세력으로 존재하여 왔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공간 속에서 과거의 전투적인 저항운동이 다양한 지역적, 전문적 사회영역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5.3투쟁에서 표현된 바와 같은 급진적 민주주의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필자는 더 많은 이슈영역들, 과거에는 쟁점화되지 않았던 많은 이슈들이 급진적 생동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져야 한다. 전통적인 노동계급의 이슈와 더불어서 동성애운동, 양심적 병역거부, 학벌철폐 등 기존에 쟁점화되지 못했던,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에 국한될 수 없는 사회경제문화적 내용들, 생활세계의 이슈들이 급진적 쟁점이 되어야 한다.

(2) 인천5.3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 자료집

■ 행사 개요

구분	내용
자료명	『5.3에서 미래로』
주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일시	2006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발표문	1. 5.3에서 미래로: 1986년 5.3인천투쟁과 '위기의 민주주의'(조현연) 2. 5.3인천사태와 급진적 민주주의정신(조희연)
자료	1. 5.3인천사태를 뒤돌아보며(이우재) 2. 5.3항쟁의 개요(이우재)
참고	이 자료집에 수록된 발표문 중 "5.3인천사태와 급진적 민주주의정신"은 조희연의 글로서 2003년에 개최된 기념식 자료집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에 실렸던 것을 재수록한 것임. 자료 해제는 위의 2003년 행사 자료집의 해제 항목에서 다루고 있음. 이 자료집에 수록된 회고록 "5.3인천사태를 뒤돌아보며"(이우재)는 2003년 기념식 자료집에 수록된 것을 재수록 한 것으로서, 해제는 아래 '기타' 항목 중 '해제 또는 평가문' 항목에서 다루고 있음. 이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 "5.3항쟁의 개요"(이우재)는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 인천지역』에 수록된 사건 항목의 내용을 재수록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해제는 아래 '1차 자료' 항목 아래 '공공기관 발간 자료' 항목에서 다루고 있음. 전체 분량은 소책자 크기로 총 103쪽.

■ 자료집 총 목차

1. 5.3추모시
2. 발간사
3. 5.3을 말한다
3-1. 5.3에서 미래로: 1986년 5.3인천투쟁과 '위기의 민주주의'
3-2. 5.3인천사태와 급진적 민주주의정신
3-3. 5.3인천사태를 뒤돌아보며
3-4. 5.3항쟁의 개요
4. 5.3자료모음
5. 인천5.3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 조직도

■ 자료집 내 학술자료

① 조현연. 2006. 1986년 5.3인천투쟁과 '위기의 민주주의'(8~55쪽)

■ 발표문 목차

1. 왜 흘러간 과거를 되돌아보는가?
2. 1986년 5.3인천투쟁의 배경과 20년 전 그날 그 자리
2-1. 민주변혁운동과 개헌투쟁 논쟁
2-2. 개헌투쟁의 대중적 고양과 반독재 저항연대전전의 동요
2-3. '한국의 삐뜨로그라드': 20년 전 오늘 인천 시민회관 주변, 그 역사의 현장
3. 5.3, 그 후 20년: 민주화 이행·'민주'정부 수립에서 '위기와 퇴행의 민주주의'로
3-1. '민주'정부에 의한 정치적 보수지배체제의 변형주의적 재편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국가적 수용
3-2. 참여정부와 민주개혁의 자살
3-3. 민주노동당: '슈퍼맨 콤플렉스'와 발목잡는 낡은 정파 대결구도
4. 5.3에서 미래로: 역사는 과거가 아니며, 약자들의 마지막 무기는 기억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이 글은 20년 전 5.3인천투쟁의 특징적인 장면을 그려내고 그 교훈을 발견한 뒤, 그 후 20년의 과정을 민주주의의 시선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5.3정신'의 복원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 배경을 첫째, 민주변혁운동의 개헌투쟁 논쟁과, 둘째, 개헌투쟁의 대중적 고양과 '반독재 저항연대 전선'의 동요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본다.
2	3월 11일 서울에서부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인천, 마산, 전주로 이어지는 신민당 개헌현판식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연인원 약 50~70만 명에 달하는 대중들의 진출을 계기로 민주변혁운동권은 비로소 비판적 자기성찰을 통해 개헌투쟁이 갖는 실천적 역동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 개헌투쟁을 매개로 그동안 민주변혁운동 세력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노선 상의 차이점과 분화현상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3	민주변혁운동 세력에게 개헌투쟁은 대통령 선출 방식을 둘러싼 투쟁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서 체제변혁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다. 5.3인천투쟁은 민주변혁운동이 보수야당 세력에 대해 차별성의 획을 분명히 그어낸, 민주화운동과 민주변혁운동의 핵심 주체이자 독자적인 실체로서 스스로를 정립해낸 자기 주체선언이었다. 5.3인천투쟁을 전후로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관련해 '두 개의 민주주의' –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주변혁적 민중민주주의 – 가 각축을 벌였다. 1987년 이후 '민주' 정부가 연이어 들어서고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의 역설 내지는 배반'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문제를 핵임으로 한 총체적인 삶의 질의 악화이다.
4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전후한 국면에서 당시 민주주의 이행 과정의 방향과 성격을 둘러싸고 두 가지 이행 경로가 존재했다.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경로가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구체제의 지배블록에 의해 통제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였다. 5월 3일의 인천투쟁으로 표상되는 우리 사회의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전승하고 그 정신을 기억한다면 그 열쇠말은 아마도 군부독재와 제국주의적 외세로 상징되는 불의와 거짓에 대한 저항과 열정,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자기헌신적인 투쟁, 기득 헤게모니 질서에 영합하려고 했던 야당에 대한 경고, 침묵하는 사회에 대한 경종 등으로 모아질 것이다.

(3) 5.3인천민주화운동 21주년 기념식

■ 행사 개요

구분	내용
행사명	5.3 인천민주화운동 21주년 기념식
일시	2007년 5월 3일
주최	6월민주항쟁20년사업 인천추진위원회
주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발표문	5.3운동에서 노동자의 역할과 해방 정신의 계승(김영곤)
참고	이 글은 필자의 학술논문 "5.3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인천학연구』 게재)의 내용에 기반한 것임. 논문 내용은 '학술 논문' 해제 항목에서 참조할 수 있음. 이 자료집 전체 원본은 확인하지 못하고 강연문 인쇄물로만 확인함. 분량은 A4 10쪽.

■ 자료집 내 학술자료

① 김영곤. 2007. 5.3운동에서 노동자의 역할과 해방 정신의 계승

■ 발표문 목차

1. 머리말
2. 5.3운동의 해방 정신은 무엇인가?
3. 인천에서 5.3운동의 계승은 무엇인가?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우리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8.15해방 뒤 좌우대립과 남북의 분단, 87년 노동자대투쟁, 89년 동유럽 소련에서 역사적 사회주의의 붕괴, 현재 문재인 노동조합주의 대두를 예상하지 못했다. 뒷북을 친 셈이다. 현재 5.3인천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인천부터 5.3운동이라고 부르자.
2	당시 참여한 인원은 5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4만명이 노동자일 것으로 추정한다. 조직대오는 1만명이었다. 신민당원 2천명, 학생 4천명, 민통련 인사연 1천명, 노동자 2천명이었다. 노동자 1천명은 서·인노련이고 나머지 1천명은 JOC(카톨릭노동청년회), 기노련, 수도권 지역에서 참가한 노동자들이었다. 이렇게 노동자가 조직대오를 구성한 것은 8·15해방 정국이나 6·25전쟁을 거치며 민중운동이 무너진 뒤 처음 있는 이이다.
3	5.3운동은 5.3시위뿐 아니라 수배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인숙 사건, 유성환 국시논쟁을 포괄한다. … 5.3운동은 노동해방의 요구를 확산시켰다. 이것의 주제는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주체 역할을 했다. 그리고 노동운동, 민주노조운동을 선도했다. … 당시 노동자 학생 재야는 노동 현장 문제의 해결, 민중생존권, 반미 개방반대 자주, 민중헌법과 민중권력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런 과제들은 21년이 지난 지금도 현안인 채로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하면 5.3운동이 선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5.3운동의 정신이라고 평가하는 민주주의, 자주통일, 사회변혁, 급진주의를 현재의 입장에서 구체화할 경우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민주주의의 구체화요 삶의 질 향상이다. … 이런 것들이 87년 체제의 한계다. 그러면 이를 넘는 대안을 생각해보자. 1) 남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일이다. 2)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스스로 조직하고 협력하는 일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스스로 조직하고 협력하는 일이다. … 삶을 구성하는 식, 의, 주, 교육, 건강, 문화의 필요 가운데 이윤을 매개로 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조직해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돼 임금을 받는 존재에서 가족이나 이웃이 필요한 상품 서비스를 생산해 제공하는 존재로 돌아가야 한다. … 3) 국제적으로 삶과 노동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4) 마지막으로 부마항쟁 광주민중항쟁 인천5.3민주화운동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연결해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일이다.

(4) 제28주년 인천5.3민주항쟁 기념 토론회 자료집

■ 행사 개요

구분	내용
자료명	『인천 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주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행사명	제28주년 인천5.3민주항쟁 기념 토론회
일시	2014년 6월 20일
장소	부평구청 5층 중회의실
발표문	1. 인천의 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이준한)
자료1. 토론문	1. 인천5.3항쟁과 민주·진보운동의 미래: 요구 주의 주장을 중심으로(김영곤) 2. 인천5.3항쟁과 노동자(김지선) 3. 인천5.3항쟁에 대한 단견(이호룡) 4. 인천5.3항쟁의 영향(이우재) 5. 인천5.3항쟁에 대한 소고(권오광)
자료2	1. 5.3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김영곤) 2. 한겨레신문 연재, “5.3인천사태 국가가 폭력기관임을 다시 보여줬다”
참고	이 자료집의 발표문은 2014년 상반기 『인천학연구』에 게재되었음. 논문 해제는 아래 ‘학술논문’ 항목에서 다루고 있음. 여기서는 목차만 소개함. 토론문으로 실린 자료1의 내용은 학술 자료 성격이 아니라서 요약하지 않고, 다만 김지선, 이우재, 권오광의 글은 아래 항목의 ‘기타’ 중 ‘사건 당사자 회고록 또는 평가문’에서 다루고 있음. 토론문 중에서 “인천 5.3항쟁과 민주·진보운동의 미래: 요구 주의 주장을 중심으로”(김영곤, 29~49쪽)은 항쟁 참여 당사자의 글이 아니고, 역사에 대한 평가문도 아님. 오히려 필자의 이전 논문(2007)의 문제의식을 상세히 이어가는 학술적 성격의 토론문이기에 이 자료의 해제만 본 항목에서 제시함.

	이 자료집에 실린 김영곤의 “5.3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은 『인천학연구』(2007)에 게재된 논문을 재수록한 것임. 해제는 ‘학술논문’ 항목에서 다루고 있음.

■ 발표문 목차

1. 서론
2. 민주화의 주요 개념
3. 민주화 개념의 한국적 적용과 특징
4.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특징
5.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6.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 토론문1. (김영곤) “인천 5.3항쟁과 민주·진보운동의 미래” 목차

1. 5.3항쟁은 우리 사회의 주의 주장이 모인 저수지이며 파생한 수원지
2. 5.3항쟁의 뿌리 현장 현재 미래
   2-1. 5.3항쟁으로 요구 주의 주장이 모이기까지
   2-2. 요구 주의 주장이 모인 5.3항쟁 + 0년
   2-3. 내가 속한 이익공동체에 멈춘 5.3항쟁 + 30년
   2-4. 5.3항쟁 + 60년은 경쟁에서 협동하는 공동체로
3. 결론: 인천에서 세기에 걸친 노력 필요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도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치중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진보계열의 정의당 통합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지지자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핵심 당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런 오해를 받는다. 반면 IMF사태 이후 임금인상은

	정체되거나 인하되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졌다. 민주·진보운동은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2	5.3항쟁, 6월항쟁, 노동자대투쟁의 일련의 사건은 약간 넓은 의미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포함한 민주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큰 사건이다. 5.3항쟁은 여러 가지 요구 주의 주장 사상이 모인 저수지이며, 이들이 다시 5.3 이후 여러 가지 사건으로 파생한 수원지다.
3	– 진보정당이 합법화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진보는 기존의 논리를 고수하고 지분 지키기에 안주하며 독선적이어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 정파는 사상적으로 교조적이고 조직을 넘어서는 내부 비판이 없고 대중의 요구를 자신의 문제로 삼지 않는다. – 진보정당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무려 세 차례에 걸쳐 분당 사태를 겪었다. … 2014.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통틀어 광역단체장 선거 17곳과 기초단체장 선거 226곳에서 단 한곳도 얻지 못했다. 광역의원은 지역 705석 중 1석, 비례 84석 중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기초의원은 전체 2898석 중에서 단 51석을 얻었다.
4	5.3항쟁에서 나타난 요구 주의 주장은 지난 30년에도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화두였다. 이것은 앞으로 30년 즉 5.3항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되는 미래사회에서도 한국 사회를 민주적 복지사회로 이끌고 지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끄는데 사상의 수원지 역할을 할 것이다. … 한국사회는 지금 노동조합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넘어 넓은 의미의 공동체를 살리는 대안이 무엇이냐 고민하는 중이다.

(5) 인천 5.3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행사 개요

구분	내용
자료명	『인천 5.3민주항쟁 30년을 되돌아보다』
주최	인천광역시 남구청,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일시	2016년 4월 29일 (금)
장소	주안쉼터공원(옛 시민회관 터) '틈 문화창작지대' 1층 다목적홀
발표문	1. 인천 5.3사태의 평가: 대중성과 군부독재 타도 문제를 중심으로(서중석) 2.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5.3 인천 민주항쟁: 지금의 시점에서 본 여러 쟁점들(김동춘)
토론문	1. 인천 '5.3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심포지엄36 토론문(김명인) 2. 베트남으로 보는 '5.3'(윤대영) 3. '5.3인천민주항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김중현) 4. 욕망과 소비의 이중구조(전희식)
참고	서중석의 발표문은 인천지역 문예지 『황해문화』 91권(2016년 6월)에 게재되었다. 본문 내용은 동일함. 김동춘의 발표문은 완성된 글이 아니라, 필자가 제기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증언자들의 입장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증언자들의 입장은 주로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인천5.3민주항쟁 증언록』(2016)에서 온 것으로 보임. 위의 토론문 중 김중현의 글은 당시 사건의 참여자의 글로서 아래 항목 중 '사건 당사자의 증언 또는 평가문'에 해당함. 그러나 자료집에는 간단한 발표 목차 또는 개요만 적혀 있어서 해제는 생략함. 전희식의 글에 대해서만 해당 항목에서 다룸.

■ 자료집 내 학술자료

① 서중석. 2016. 인천 5.3사태의 평가: 대중성과 군부독재 타도 문제를 중심으로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 학생 재야운동권 노동운동세력과 야당은 큰 타격을 입고 퇴각했고 대중성을 그해 연말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5.3인천사태는 역전의 계기가 된 것이다. 앞의 문단에서 언급한 바 있는 평가를 가지고 말하든 뒤의 문제점과 역전 현상을 가지고 말하든 5.3인천사태는 민주화운동-개헌투쟁에서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2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하나는 민통련이 1985년 하반기에서부터 5.3인천대회에 이르기까지 견지하고 있었던 개헌투쟁노선에 5.3인천사태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 5.3인천사태가 군사독재를 퇴진시키거나 타도하고 민주헌법을 쟁취하는데 적절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른 하나는 5.3인천사태가 대중성을 획득하거나 대중투쟁을 하는데 적절한 형태로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3	이 시기 운동권은 개헌에 대한 주장이 시기에 따라 바뀌기도 해 자신들의 내부조차 통일성을 갖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5.3에서 민통련의 주된 구호인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다른 단체에 영향을 주기 어려웠고, 오히려 민청련에 의해서조차 비난을 받을 수 있었다. … 민통련은 이 농성이 야간까지 이어져 횃불시위로까지 간다면 전국이 변혁적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민통련의 농성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4	3월 30일 광주대회에서 … 광주의 상황이 전해지자 민통련의 분위기는 흥분과 긴장으로 고무되었다. 이러한 전달은 대개 과장되고 일방적일 수도 있는데, 운동은 이러한 전달을 통해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더구나 현장에 가본 적이 없는 학생·노동운동단체의 경우 과장된 전달에 더 분위기가 뜰 수 있었다. … 양김은 물론이고 이민우도 운동권이 주장한 바처럼 전두환의 4.30 양보가 야당과 운동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운동권은 적절히 대처했는가. 운동권은 야당보다도 더 전두환의 분열작전에 말려든 것은 아니었을까.
5	5.3집회를 전후로해서 이원집정부제가 집중적으로 비판과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전두환은 이원집정부제를 모색한 적이 없었다. … 운동권은 야당의 기회주의를 보수대연합과 연결시켜 맹렬히 매도하고 공격했지만, 양김이 보수대연합을 획책한 적은 없었다. … 벅찬 감성에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사명의식 또는 소명의식이 있을 때 환상이나 낭만이 들어올 수도 있다. 5월 3일 인천대회장 일대에 집결한 각 단체의 관계자들 상당수는 혁명적 열의와 변혁의지를 가지고 나왔다. … 그러나 5월 3일 인천에서의 혁명적 투쟁은 힘없이 무너졌다.

② 김동춘. 2016.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5.3 인천 민주항쟁: 지금의 시점에서 본 여러 쟁점들

■ 목차

1. 한국에서 야당, 재야의 관계
2. 재야의 정치적 역할
3. 학생운동과 대중동원
4. 야당과 노동운동, 재야와 노동운동
5. 교회와 사회운동
6. 지역사회와 5.3
7. 6월 항쟁, 7·8월 대투쟁과 5.3
8. 운동진영의 사상적 분화의 계기로서 5.3
9. 5.3 이념과 사회적 지도력
10. 5.3과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 5.3은 야당이 만든 공간? 운동진영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공간? – 한국 민주화에서 야당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가? – 전선운동은 (진보)정치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했나? 다른 길은 없었는가? –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역할분담은 어떠해야 하나? – 학생운동이 사라진 시대에 누가 지역의 동원세력이 될 수 있나? : “대구에서 5만 집회고, 광주에서 10만 이상 집회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대구는 중심가에 한 일부정도가 해방구였다면 광주는 전체가 해방구 형태가 돼 버렸어요.”(박계동)
2	– 직선제, 민주화는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5.3 당시 비조직 노동자들의 참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 인천지역의 지역사회에서 교회(가톨릭)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나? – 인천의 보통 시민들은 5.3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3	– 6월 항쟁, 7·8월 대투쟁과 5.3 – 운동진영의 사상적 분화의 계기로서 5.3 – NL론과 PD론은 지금의 시점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미친 부정적 효과는 무엇이며, 어떤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갖고 있나? – 5.3 참여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인정받아야 하나?

(6) 인천 5.3민주항쟁 35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행사 개요

구분	내용
자료명	『인천5.3민주항쟁 학술토론회』
주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일시	2021년 4월 30일 (금) 14시
장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3층 교육실
발표문	1. 인천5.3민주항쟁 현장 상황 분석(김창수) 2. 인천5.3민주항쟁 자료 해제 및 향후 과제
토론문	1. 김중성(인천5.3민주항쟁 참가자) 2. 송용한(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실장)
참고	토론문 중 김중성의 글 내용은 사건 참여 당사자의 증언 및 평가문 항목에서 다루고 있음.

■ 자료집 내 학술 자료

① 발표문 1. 김창수. 2021. 인천5.3민주항쟁 현장 상황 분석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온당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공안조작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다. … 언론의 보도도 인천5.3민주항쟁의 성격을 고정시켰다. … 당시 문화공보부, 안기부에서 내린 '보도지침'에 따라 이날 저녁 7시부터 KBS TV를 비롯한 방송들은 화염에 휩싸인 민정당 지구당사와 거리에 가득한 최루탄

	분말, 깨진 보도블록과 전경을 구타하는 장면을 반복해 방송하며 5.3시위를 '폭력난동'이라고 보도했다.
2	– 5.3민주항쟁 개요 – 5월 2일의 준비 상황 – 5월 3일 현장 상황 – 시민회관 진압 이후
3	– 신민당원과 경찰의 충돌 – 민정당사 화재 – 경찰 가스차와 최루탄 운반차의 돌진 사태 – 경기도경 점거 계획 – 국가기구의 폭력, 고문가혹행위

② 발표문 2. 이재성. 2021. 인천5.3민주항쟁 자료 해제 및 향후 과제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에서 검색한 5.3항쟁 관련 자료와 공개된 인천지방경찰청 이관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2	– '오픈 아카이브'에는 총 82건의 문서 자료와 58건의 사진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 '구술 아카이브'에는 총 7건의 인터뷰 자료가 있다.(장기표 2건, 이우재, 이명식, 이광철, 김종철, 최용석 등) – 사진 자료는 대부분 주안 시민회관 앞 시위 사진이며 주안역이나 석바위, 제물포역 등의 사진자료는 없다. – 문서자료는 성명서, 호소문, 투쟁평가 문건, 유인물 등이 주종이다.
3	– 경찰청 공개 문서는 총 21개의 pdf 파일이 있고, 총 3,174쪽의 분량이다.(파일번호 10번이 두 건이 있으므로 일련번호는 20번까지 매겨져 있다.) – 자료 생산처는 대부분 경기도경찰국, 경기도경 수사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부천경찰서, 인천동부경찰서, 부평경찰서 등의 명의로 되어있다. – 드물게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안기부 인천분실, 내무부 치안본부 명의의 문헌도 있다.

4	– 야당과 재야단체의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 답변을 제시한 자료가 두 건이 있다.(파일번호 2번, 파일번호 14번) – 경기도경찰국에서 5.3항쟁 직후부터 연달아 작성한 '종합수사 결과보고' 자료가 6건이 있다. 몇 건의 자료는 동일 자료이다.

(7) 인천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행사 개요

구분	내용
자료명	인천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주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83개 단체)
주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후원	인천광역시
일시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교육실
발표문	1. 인천5.3민주항쟁의 성격과 위상(김창수)
토론문	1. 인천5.3항쟁에서 꾸었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이성재) 2. 민주화운동의 기억과 기념 그리고 그 정신계승(조성혜) 3. 5.18광주민주항쟁의 계승으로서 인천5.3민주항쟁의 성격(연종엽)
자료	1. 인천5.3민주항쟁 일지
참고	토론문 중 이성재, 연종엽의 글은 '사건 당사자의 증언 또는 평가문' 항목에 해제를 하였음.

■ 자료집 내 학술 자료

① 김창수. 2020. 인천5.3민주항쟁의 성격과 위상

■ 주요 내용

	주요내용
1	혁명 직후 권력 이동의 측면에서 보면 68혁명은 드골의 재집권이라는 퇴행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실패한 혁명이 분명하다. … 68혁명은 학생반란, 청년반란, 세대반란으로 불리기도 하고 생활방식의 개혁, 문화혁명, 집단적 나르시시즘, 카니발 등등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성격은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 인천5.3민주항쟁에서 제시된 구호들은 정치적 민주화 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 이후의 과제,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자주적 외교 등의 사회 진보의 요구들이 망라되었으며 그 요구는 6월항쟁 이후에 전개된 7, 8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분출되었으며 다양한 부문운동의 과제로 추구되고 있다.
2	– 5.3민주항쟁을 전후로 군사정권은 국가기구를 총동원하여 수배와 검거 선풍, 공안정국 조성, 냉전적 이념공세를 펼쳤으나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 86년 8월, 600여 명의 노동자와 학생이 부평역앞에서 벌인 민주헌법쟁취 노학연대 시위는 5.3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집회로 과감한 가두 투쟁으로 평가된다. … 군사정권의 과도한 탄압은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 일으켰으며 5.3항쟁으로 자신감을 얻은 민주화운동 세력을 더욱 단결하게 만들었다. – 민주화운동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반독재투쟁으로 이해할 경우 민주화운동의 입체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은 독재에 대한 반대를 넘어 대안 체제인 민주정부 수립과 새로운 헌정체제 확립을 요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 변혁운동의 본격적 표출, 민주화운동에 내재화되어 있던 모든 주장과 요구 표출은 축제적 성격과 다양성의 발현이었다. … 인천5.3민주항쟁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당시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민주변혁의 과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였으며, 그 연장선에서 6월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이 연속적으로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5.3민주항쟁은 6월항쟁의 실제적 도화선이기도 했다. 5.3항쟁 관련 배후인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으로 … 이듬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한층 거센 저항에 직면하에 괸 것이다. 이 때문에 5.3항쟁은 6월항쟁과 내용과 형식에서 같다는 점에서 맹아이며, 6월항쟁을 실질적으로 촉발한 도화선이라고 평가되는 것이다. … 2018년 인천광역시는 「민주화운동기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천5.3민주항쟁을 인천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였다. 2001년에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등이 명문화되어 있는 만큼 인천5.3민주항쟁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안기부 등 공안 당국이 저지른 불법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2) 학술 논문

(1) 학위논문

① 1986년 인천 5·3항쟁의 전개와 의의

■ 문헌 개요

구분	내용
저자	최종훈
출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2020)

■ 논문 목차

1. 머리말
2. 5.3항쟁의 배경
   2.1. 정치 상황
   2.2. 노동운동 상황
   2.3. 학생운동 상황
3. 5.3항쟁의 전개
   3.1. 주체들의 정세인식과 투쟁준비
   3.2. 상황과 기억들
4. 영향과 한계
5. 맺음말

■ 주요 내용

	주요내용
1	인천5.3항쟁은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 5.3항쟁을 한가지의 성격으로 규정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양성이 당시 국면의 특성이었다. 당일 시위에 참여한 단체는 민통련과 산하 단체들(인사연, 민불련 등)을 포함한 재야 민주화운동 단체 그리고 노동단체(서노련, 인노련)와 학생단체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통련은

	신민당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민중의 권력'의 뜻을 가진 민주헌법을 주장했고, 노동 쪽에서는 민족·민주·민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삼민헌법을 주장했다. 민통련은 개헌집회를 이용해 무기한 철야농성을 계획한 반면에 인노련과 학생운동 단체들은 화염병, 각목, 돌 등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이러한 저항폭력은 권위 없는 국가권력이 독점한 폭력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집합적 방어수단이자 최후의 전략적 선택으로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추구했다.
2	당시 참가자들의 증언을 통해 다양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민통련 소속 참가자의 증언은 각 단체들이 연대하지 못하고 저마다의 주장을 펼치며 분열되었던 점에 대해 비판하였다. 당시 인노련 소속 참가자의 증언과 OBS 다큐멘터리 「그날」(2017)의 자료 등을 통해서는 경찰 측에서 고의로 페퍼포크 1대를 시위대 쪽으로 무리하게 전진시켜 폭력시위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3	6월 민주항쟁에서는 교사, 사무직 노동자 등이 포함된 '넥타이 부대'가 부각되지만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시위의 기본 동력을 제공하였다. 인천지역에서도 5.3항쟁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6월 민주항쟁과 이후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5.3항쟁 이후 서노련과 인노련 등이 해산하게 되었으나, 인천의 선진 노동자들은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인천부천노동자회(인부노회), 인천노동자해방동맹 등 비공개 조직을 만들었고, 이후 여러 노동단체들은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 나아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5.3항쟁은 1980년 광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사이에 위치한 사건으로서 수도권에서 최초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정치적 시위였다. 인천5.3항쟁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데에는 첫째로 신민당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분열과, 둘째로 민주화운동 세력 내부의 분열에 원인이 있다. 특히 '반미운동' 구호에 대한 당시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당시 논란이 된 반미운동은 한국 현대사에서의 여러 경험이 친일과 친미 성향을 배경으로 유지되어 온 보수주의적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와 저항의 맥락에서 표출되고 발전된 것이었다.

(2) 학술지 논문

① 5·3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

■ 문헌 개요

구분	내용
저자	김영곤
출처	『인천학연구』, 6호, 2007년 2월, pp. 313~354

■ 논문 목차

1. 머리말
2. 제도권 야당과 노동운동의 조우
3. 5.3운동에서 노동자의 역할
4. 5.3운동이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
5. 맺음말

■ 주요 내용

	주요내용
1	5.3운동의 범주는 1986년 5월 3일에 있었던 시위를 비롯해 5.3시위에서 파생한 권인숙 사건과 유성환 의원에게서 비롯한 국시논쟁까지로 잡았다. … 광주민중항쟁 뒤 학생들이 노동현장에 많이 들어갔는데, 인천은 그런 노동자가 1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들과 기존의 노조 활동가들이 결합해 인천의 노동운동은 강한 조직력을 갖추었다.
2	1986년 들어 3월 10일 인천지역 임투전진대회를 계양산에서 열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에 밀리고 밀려 결국 강화도 전등사에서 5백 명이 모여 대회를 열었다. … 인노련은 조직원이 5, 6백 ~ 1천명이었는데 회원수 집계가 신축적인 것은 조직이 공개, 비공개의 이원 조직이어서 노동자 스스로가 인노련 회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3	인천 부천을 비롯해 서울 안양 안산 등의 수도권 노동자 조직을 총동원했다. … 5.3시위 참가자는 모두 5만명이었다. (부산 20만명, 광주 35만명, 마산 20만명 등에 비해 참가자 수가 적은 것은) 5.3대회가 단순한 개헌 현판식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학생의 반신민당 기류가 강할 것이라고 판단한 신민당이 당원 동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 5만명 가운데 조직한 수가 1만여 명이었다. 신민당원 2천명, 학생 4천명, 민통련 인사연 1천명, 노동자 2천명 등이었다. 노동자 가운데 1천명이 서·인노련이고 나머지 1천명이 JOC, 기노련, 수도권 지역에서 참가한 노동자들이었다. … 노동자가 조직적으로 참가한 1만 명의 20%였다.
4	5.3시위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오전부터 현판식 시작 시간인 오후 2시 사이에 노동자 학생 민통련은 각기 집회를 갖고 민정당사를 불 지르는 첫 단계, 신민당의 개헌 현판식이 무산됨을 발표한 5시 30분까지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던 두 번째 단계, 이후 주안역 동인천역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산발 시위를 한 셋째 단계이다. … 학생이 경찰과 대치하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많은 수가 연행되면서 구속자 가운데 학생이 가장 많았다. 노동자는 시가행진을 중심으로 시위했기 때문에 연행자도 구속자도 비교적 적었다.
5	5.3시위에서 노동자는 2천여명이 조직적으로 참가했다. 노동자 도시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일반 노동자의 참여도 많았다. 이들이 모인 성격은 5.3이전에 노동조합의 파업과 그에 따른 연대집회에 모였던 노동자들과 달리 민주주의와 사회의 변화를 요구한 점에 차이가 있었다. 노동자들이 5.3운동을 통해 조직의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하나의 독자적인 사회운동 영역으로 발돋움했다. … (시위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그 뒤 사회과학 지식을 접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이들은 이런 변화를 겪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과감하게 파업 시위에 참가할 수 있었다. … 5.3시위에서 노동자들은 전체적으로 보수야당과 다르며 민통련과 같은 기존의 재야와 차이가 있으며 노동 현실의 당면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제기하며 또 수적으로 독자의 조직을 갖추면서 노동운동이라는 하나의 사회운동 영역을 구축했다. 이것이 5.3운동에서 노동자가 한 역할의 역사적 의미이다. … 6월민주항쟁에서 교사 사무직 노동자 등의 '넥타이 부대'의 등장을 강조하지만, 시위의 기본 동력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6월민주항쟁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②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 문헌 개요

구분	내용
저자	이준한
출처	『인천학연구』. 2014년 1권. 185~222쪽

■ 논문 목차

1. 서론
2. 민주화의 주요 개념
3. 민주화 개념의 한국적 적용과 특징
4.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특징
5.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6.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 주요 내용

	주요내용
1	– 이 논문은 프로테스트 모델에 입각하여 인천의 5.3 민주항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환경부터 분석하고 평가한 뒤 그것이 1987년 민주화와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추적한다. – 정치적 자유화의 결과 과거의 비민주주의 사회와 많은 면에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지만 아직 민주정부가 유권자의 손에 의해 탄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정치적 자유화가 시작되면 구정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 사이에 일련의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구정권 이후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준비하게 된다. … 정치적 자유화는 비민주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를 잇는 징검다리이다. … 헌팅턴은 민주주의 이행을 세 가지로 유형화했는데 구정권이 일순에 완전히 교체되는 유형(replacement), 구정권이 서서히 민주적 개혁을 실시해 나가는 유형(transformation), 구정권과 민주세력이 타협으로 민주화를 점진적으로 이루는 유형(transplacement)으로 구분했다.

	… 한국의 경우는 민주화 세력과 집권 세력 사이의 타협에 의한 경로를 따랐다고 할수 있다. … 그리고 정치적 시위가 민주화의 원인이 되는 프로테스트 모델이 적합하다.
2	이 논문은 인천의 5.3 민주항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라는 긴 여정에서 이어졌던 다양하고 장기적인 정치적 시위 가운데 하나로서 그 이듬해 본격화될 6월 항쟁의 서곡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이해한다. …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 이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정치적 시위 … 뿐만아리 '이념의 시위'이기도 했다. … 일반 시민이 참여한 정치적 시위에서 등장한 반미구호와 성조기 소각장면이 미국의 방송을 탄 것은 첫 사례로 꼽힐 것이다. –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시위가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사이에 분리되어 있지 않다.
3	이 정치적 시위는 인천에서 발생했지만 비단 인천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국한되었거나 대학생이라는 인척인 특성에 제한되지 않았다.

③ 1986년 개헌운동과 5·3인천민주항쟁

■ 문헌 개요

구분	내용
저자	이재성
출처	『기억과 전망』 겨울호(통권 45호), 2021.12.

■ 논문 목차

1. 서론
2. 1970~80년대 개헌운동의 '저항 주기'
   2.1. 1974년 1백만인 개헌 서명운동
   2.2. 1986년 1천만명 개헌 서명운동과 민중운동
3. 5.3인천항쟁의 전개 그리고 논쟁
   3.1. 신민당의 개헌운동과 민중운동의 개입

3.2. 경찰과 신민당·운동진영의 담론 투쟁
4. 국가폭력과 민중운동 그리고 헌법
4.1. 경찰 폭력과 사법 폭력
4.2. 민중운동의 정당성: 헌법과 저항권
5. 결론

■ 주요 내용

	주요내용
1	1987년 6월항쟁의 '성공'으로 규정하고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을 모두 '실패'로 규정하는 담론이나, 그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를 모두 '발전'이나 '공고화' 과정으로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논증이 필요한 부정확한 담론 또는 특정 정치적 입장에서의 평가이다. … 인천5.3민주항쟁을 전체 민주화운동, 즉 1985년부터 시작된 '개헌운동'의 전개라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 연구는 먼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진행되어 온 개헌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기본 패턴을 '저항주기'(cycle of protest)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5.3인천항쟁과 관련된 여러 논점을 헌법적 논의와 연결하여 평가해 보았다.
2	'개헌'이나 '개헌 반대'는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의제였다. 1969년 1월 신민당 김영삼 원내총무는 (박정희의 3선 개헌 시도에 대해) '개헌 반대'를 선언하고 '호헌 5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 3선 개헌 반대운동은 1970년대 들어 민주화운동으로서의 개헌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재야 정치세력들은 1972년 12월 24일에 '개헌 청원 1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민주화운동으로서 개헌 이슈가 처음 등장한 사례이다. *(이 운동은 1973년에 시작되었다 - 편집자 주)* … 개헌운동은 '공안 정국'으로 이어졌다. …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고) 1975년 4월 9일 인혁당 사건 관계자 8명에 대한 사형 판결 후 곧바로 형을 집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3	신민당은 1986년 2월에 개헌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 5.3인천항쟁은 단 하루의 투쟁이었다. 하지만 5.3인천항쟁은 1986년 개헌투쟁 중에서 특히 개헌운동 지부 결성식 및 현판식을 매개로 한 민주화운동 진영의 활동을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개헌투쟁이 다시 공안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항 주기'의 변곡점이었다. …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 … 5.3인천시위는 치밀한 계획 하에 격렬한 폭력 시위를 목표로 삼고, 민통련

	주도로 재야 불순 세력과 대학 내 과격한 좌경의식화 학생단체가 야합, … 궁극적으로 국가를 전복하려던 과대망상적 난동시위(였다). … (신민당과 함께) 민통련 역시 검찰 발표가 '허위 사실과 조작'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난했다.
4	내무부는 '인천 소요사건은 … 인천대회 날을 현 체제 전복을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날로 정하고 치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 아래 격렬한 폭력 소요를 감행하여 치안기능을 마비시킨 후 이를 이용 소위 민중봉기를 유발하려 했던 사건'으로 규정했다. … 직접적으로 저항폭력 문제를 다룬다면 5.3인천항쟁에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된다. … 폭력시위의 목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저항권'에 대한 규정이다. … 시민불복종과 직접행동, 그리고 저항권과 혁명 등의 논점은 사회적으로 정리되지 못했고 법적으로도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저항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3) 공공기관 발행 자료

(1)『다시 보는 5.3인천항쟁』

■ 문헌 개요

구분	내용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필자	미상
분량	소책자, 총 18쪽
목차	1. 5.3인천항쟁이란? 2. 1986년 대한민국은… 3. 1986년 인천에서는… 4. 민주세력간의 입장의 차이 5. 5월 3일 인천 주안 시민회관 앞 6. 이어지는 탄압 7. 마침내 6월항쟁으로 8. 완성되지 않은 과제, 5.3인천항쟁의 정신
특징	사진과 상황도 등 5.3항쟁 관련 자료 4점이 실려 있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85년 2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건 신민당이 승리하면서, 평화적인 개헌운동까지 탄압하던 전두환 일당은 미국마저 서명운동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자 서명운동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신민당의 개헌추진지부 현판식 대회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움추려 들었던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86년 3월 30일 광주에서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80년 5월 이후 최초로 금남로에 모여 전두환 정권의 퇴진과 직선제 개헌을 외쳤다.

2	80년 광주에서 벌어진 전두환 일당에 의한 피비린내 나는 학살극은 첫째로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둘째로 평화적인 운동 방식에 대한 회의를 불러왔다. 학생, 노동자들은 전두환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라면 투신, 분신자살도 마다하지 않았다. 5월 3일 인천 주안시민회관에는 수도권 일대 민주세력의 모든 그룹들이 총출동하였다.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인사연과 민통련, 서울운동연합과 인천지역노동자연맹, 그리고 학생운동 대오 등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5.3인천대회를 계기로 정국을 반전시키려 했다. 초기에 진압 가능했던 시위를 대규모 폭력시위로 조장한 후 민주세력을 좌경 폭력 세력으로 몰아갔다.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서슴지 않던 공안 기관들은 결국 6월에 부천경찰서 문귀동이 성고문을 자행하였다.
3	인천항쟁은 80년 5월에 펼쳐졌던 광주항쟁 이후 최대의 시위였을 뿐 아니라, 반정부운동의 차원에 머물고 있던 80년대 운동이 반파쇼 민주화 운동, 반외세 자주화 운동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었다. 5.3항쟁은 노동자와 학생을 비롯한 민주 세력이 야당이 주도한 제도개선 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압박한 시위운동이었다. 일반 시민의 정서와 거리가 먼 구호나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시위대의 공통된 주장은 '학살'로 집권한 전두환 일당을 타도하지 않고 추진되는 제도개선은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만 철저한 민주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4	5.3항쟁은 분열된 민주화운동진영에 대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5.3항쟁은 결코 '무산된 운동'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 개혁의 '출발점'이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청산되지 못한 비민주적 요소들이 남아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주체의 각성을 촉구한 5.3항쟁의 정신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작업 최종 보고서 – 인천지역

■ 문헌 개요

구분	내용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12.12.
저자	책임연구원: 이우재, 공동연구원: 나준식, 노현기
분량	· A4 사이즈 자료집, 총 182쪽 · 전체 내용 중 '5.3인천항쟁' 관련 항목은 45~50쪽
특징	'사건 항목 기초조사'의 일관된 목차에 따라서 정리되어 있음. '5.3인천항쟁'의 경우에도 1. 발생일 2. 관련사건 일지 3. 배경 4. 내용 5. 관련인물 6. 관련단체 7. 관련자료 8. 관련사건 등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1985년 후반 야당인 신민당에 의해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1986년 1월 전두환이 국정 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화세력의 대대적인 투쟁이 시작되었다.
2	민통련 중앙집행위원회는 신민당의 개헌추진 지부 결성대회 및 현판식이 민중의 민주화 열기가 고양되고 국민의 참여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신민당 행사로 외면하지 말고 민통련이 목적하는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달성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집회에 필요한 준비를 인사연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인사연 의장 이호웅은 민통련 산하 가맹단체와의 연락 유지 및 총지휘를 담당하고, 편집실장 홍성복은 인원동원 및 시위용품 제작을 담당, 집행국장 이우재는 인천대 학생회장 이재영, 인하대 학생 이용주, 이상명 등을 만나 학생동원 500명 이상 책임을 맞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3	민통련, 인사연, 인노련, 서노련, 민민투, 자민투 등 단체 시위대들이 합세하여 4,000여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시민회관 앞 4거리는 인파로 가득 찼다. 시민회관

	안에 모여 있던 2,000여명의 시민, 학생들은 신민당 이민우 총재와 김영삼 고문 등 지도부를 비판하며 행사장 입장을 가로막았고 대회는 무산되었다. 시위 과정에서 민정당 인천 제1지구당사에 화재가 발생했고, 신민당 소유 승용차가 전소되었으며, 성조기 화형식이 열리고, 시위대를 향해 깊이 들어온 페퍼포그와 경찰 트럭 등이 성난 시위대에 의해 손상되기도 했다. 경찰을 오후 5시 30분경부터 진압작전을 시작하여 324명을 연행했다. 시위대는 흩어지면서 인천, 부천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다음 날부터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운동 세력을 좌경 폭력세력으로 몰면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공안 당국은 5.3시위에 대해 형법 115조 소요죄를 적용하여 129명을 구속하고 60여명을 지명수배했다.
4	관련 인물: 장기표, 이호웅, 이우재 외 구속자 129명, 수배자 60명 관련 단체: 인사연, 민통련과 그 산하 단체, 인노련, 기노련, 인기노련, 청피(청계피복노조), 자민투, 민민투, 민민학련 관련사건: 1986년 6월 부천서 성고문 사건

(3)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 인천5.3민주항쟁 증언록

■ 문헌 개요

구분	내용
출처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2016. 6. 10.
분량	총454쪽
증언 채록	김현석, 인수범
정리	김현석
특징	구술 증언을 필자들이 재구성하여 집필하였다.
목차	1. 발간사, 격려사 2. 자료: 인쇄물, 기록사진, 언론보도, 각계의 목소리 3. 증언: 권병기 외 34건(인원수로는 36명)

■ 수록된 문헌 자료 종류

구분	내용
1	시위 당일 전단지 류 10건, 사진류 13건
	목록 1) 신한민주당 '헌법개정투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 안내문, 신한민주당 2) 민족민주 학생연맹의 지도하에 민중과 더불어 인천을 해방구로!!(1986.05.02.), 연세대학교 민족민주투쟁위원회 총학생회 3)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1986.06.03.),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4) 인천을 해방구로(1986.05.03.),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전국학생연맹 5) 신민당이시여, 민정당의원 멱살만 잡지말고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 군부파쇼 정권 타도의 대열에 동참하자!!!(1986.05.03), 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합 6) 『민중의 소리』 화보 특집(1986.05.10.),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7) '5·3인천민중항쟁'을 왜곡하지 말라 - 검찰의 중간수가결과 발표를 보고(1986.05.19.),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8) 5.3인천민중집회 진상규명에 관하여 신민당에 보내는 '서노련'의 결의(1986.05.26.), 서울운동연합 9) 미국의 사주에 의한 개헌술책을 폭로한다!!, 5.3노동자투쟁위원회
2	사진 13건, 언론 기사 8건, 학보 기사 2건
	기사 목록 1) 폭력난무 시가 공포의 도가니 - 신민 '인천대회' 학생 근로자 난동(경인일보 1986년 5월 5일자) 2) 혼란 저의 어디에 있나 - 인천의 과격시위 배후 가려져야(경인일보 1986년 5월 5일자) 3) 좌익정체 드러낸 인천사태(경향신문 1986년 5월 5일자) 4) '인천사건'의 파장 - 급진세력의 폭력은 민주화에 역행한다(동아일보 1986년 5월 5일자) 5) '인천'과 여·야 - 공존적 대타협의 노선을 수호하길(조선일보 1986년 5월 6일자)

	6) 인천사태를 중시한다 - 사회존립 위협하는 좌익난동의 실체(서울신문 1986년 5월 6일자) 7) 법정서 '소요죄 성립' 법리 논쟁 – '인천사태' 공판 재판장·피고 상해진단증거 싸고 설전(동아일보 1986년 8월 4일자) 8) 장기수 석방 없이 민주화 이득 - 장기표 씨(5.3인천사태 관련자), (한겨레신문 1988년 12월 22일자)
3	기관지·시론 등 10건
	목록 1) 타오르는 민족민주운동의 열기 - 5월3일 인천 가두투쟁(「민주화의 길」 제13호, 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6.05.13) 2) "미제축출! 파쇼타도!! 헌법제정 민중회의 쟁취하자!! – 인천5.3민중대회, 기만적 개헌술책 깨부수다(「선봉」 제4호, 반제반파쇼노동자투쟁위원회, 1986.05.13) 3) 민주화의 거센 물결 인천 강타! – 민주화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다(「인천의 소리」 제11호,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1986.05.16) 4) 5월3일, 찬연히 솟아오른 노동자 해방투쟁!(「노동자신문」 제15호,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 1986.05.24) 5) 인천주안거리 민주화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다(「민중의소리」 제17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6.05.24) 6) 민통련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서울의 소리」 제5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6.06.19) 7) 5.3인천에서(「인천주보」 소금, 1986.05.11) 8) 5월 3일 주안성당(「인천주보」 빛, 1986.05.18) 9) 실질적 개혁없이는 제2의 인천사태 막지 못해 – '인천사태' 대검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고대신문」 시사발언대, 1986.05.26.) 10)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돼야(「이대학보」 사설, 1986.05.19)

■ 특이 사항

○ 증언 내용은 기본적으로 '구술자료'에 해당하므로 아래 구술자료 항목에서 해제를 다루고 있다.

(4) 인천민주화운동사

■ 문헌 개요

구분	내용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인천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2019.12.15.
분량	총587쪽
편찬위원장	이우재
집필진	김성복, 김현석, 송성섭, 오유석, 연종엽, 유경순, 이재성, 이충현, 이한수, 이희환, 최광석, 한상욱
특징	인천민주화운동사 내용 중에서 제3부 1980년대 전반기 민주화운동 제 3장에 인천5.3민주항쟁 항목이 들어 있음. 또한 제5부 부문별 민주화운동의 제8장 재야전선운동 항목 안에 인사연과 5.3항쟁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음.
5.3항쟁 관련 내용 목차	제3부 제3장 인천5.3민주항쟁(pp. 145~179) 1. 2.12총선과 민주화운동이 가열화 2. 변혁이론의 분화와 운동노선의 분열 3. 인천5.3민주항쟁과 군부독재의 폭압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1985년 2.12 총선에서 제1 야당이 된 신민당은 직선제 개헌을 공론화 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후 전국적 단위에서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조직되었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도 활성화 되었다. 학생운동은 지역 차원에서도 조직화 되었다. 인천 인하대와 인천대는 경인지구학생연합(경인학련)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물으며 미문화원을 대상으로 한 점거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인천의 노동운동은 경동산업, 동보전기, 대우자동차, 한일스텐레스, 동흥전기, 경신공업, 대한마이크로, 대림자동차, 시브라더즈, 삼환택시 등에서 연이어 쟁의가 일어났다. 공단지역에는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민중교회가 활성화되었다.

2	1985년 6월 구로공단 동맹파업 이후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이 결성되었는데 이들은 조합주의, 경제주의적 노동운동을 비판하며 노동계급의 정치투쟁을 지향했다. 인천에는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이 결성되어 서노련과 같이 활동했다. 학생운동 내부에서는 서울대를 필두로 '반미운동' 성향이 확산되면서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가 결성되었다. 이들과 다른 정치적 입장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문제를 중시하는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과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가 결성되어 민주화운동 내부의 노선 갈등이 격화되었다. 재야단체인 민통련과 인사연은 민주헌법쟁취론의 입장으로서 신민당이나 학생·노동운동과 구별되었다. 신민당은 제도권 내에서 전두환 정권과의 협상을 통한 민주화를 추구했다. 여러 집단에 따라 의견이 달랐고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3	– 신민당의 개헌운동은 1천만인 서명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86년 3월 30일에 광주에서 열린 개헌운동 시도지부 결성대회 및 현판식에서 약 30여만 명이 운집하여 밤늦도록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민통련은 신민당의 개헌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대구, 대전, 청주 등지의 집회를 거쳐 수도권의 공단지역이 인천에서의 대회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 인사연과 민통련은 인천 결성대회가 열리는 5월 3일을 민주화의 한 계기로 만들 계획이었다. 군부독재 퇴진과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임으로써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민중궐기를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 서노련과 인노련은 공동으로 집회를 준비했지만, 그 실무는 인노련이 맡았다. 그들은 이번 대회를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서인노련의 존재를 국민대중에게 알리는 동시에 신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폭로하는 투쟁의 장으로 삼을 생각이었다. –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도 각기 나름의 계획을 세웠으나, 내부의 분열로 인해 서로 간의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인하대와 인천대 학생들은 인사연과 행동을 같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4	– 5.3시위가 민주화운동 진영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 인천의 민주화운동 진영이 이 타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6월항쟁 국면에 들어서면서였다. … 민주화운동진영은 5.3시위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의 침체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공세를 취할 만큼 다시 성장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5.3시위는 민주화운동 진영만의 시위였다. 수도권 일대의 민주세력이 총집결해 시위를 벌였으나 대중의 참여는 많지 않았다. 그것이 5.3시위의 한계였다.

	… 민주화운동이 이념적으로 급진화하고, 과격화한 데 원인이 있었다. … 인천5.3시위는 1980년 5월 광주 이후 민주화운동 진영이 고뇌하면서 싸워 온 온갖 투쟁의 결정체였다. 그런 면에서 인천5.3시위는 '인천5.3민주항쟁'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2. 문헌 자료

1) 민주화운동 단체 발행 자료

(1) 연합단체(전국)

①『민통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평가서(Ⅰ) – 자료편』

■ 문헌 개요

구분	내용
출처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년 10월
분량	489쪽
제작	민족민주운동연구소
특징	민족민주운동연구소가 '민통련 청산위원회'와 국민운동운동본부 관계자의 요청으로 민통련과 국민운동본부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여 각기 자료집을 출간함
목차	1. 민통련의 창립과 초창기 활동 2. 개헌투쟁과 민통련 3. 대통령선거 투쟁시기의 민통련 4. 민통련의 발전적 해체와 새로운 민중운동연합의 건설 5. 민통련 기관지 '민중의 소리' 사설 모음 6. 민통련 규약 7. 민통련 강령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자료 제목: 2. 개헌투쟁과 민통련(85.10-87.5) pp. 64~69.
	- 85년 10월부터 87년 5월 사이 기간에 이루어진 민통련 활동에 대한 해설 - 목차 1) 개괄적 상황 2) 민통련의 정세관 3) 민통련의 조직과 투쟁
	- 국민대중의 광범한 개헌요구가 일어나자 전두환 정권은 4월 30일 여야가 합의하면 임기내 개헌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발표하여 대중의 요구를 무마하는 한편 5월 3일 인천에서의 개헌투쟁을 계기로 민민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개시한다. - 5.3인천투쟁을 경과하면서 군사정권이 민민운동을 야당과 분리 탄압하고 야당은 국회내 '헌특' 설치를 통해 장내의 개헌논의로 끌어들임에 따라 반군사독재전선에 현격한 약화가 일어났다. - 87년 1월, 정권의 극렬한 탄압은 마침내 '박종철군 고문살해'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국민들의 광범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2	자료 제목: 민주헌법 쟁취위원회 결성선언문(1985년 11월 20일) pp. 70~71.
	- 현행헌법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마련한 온갖 독재적 장치에다 더한층 기만적이고 교묘한 탄압수단을 보탠 것입니다. 현행헌법은 안정을 핑계삼아 계엄령을 확대하고 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무수한 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인사를 대량투옥하고 국민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은 후 일부 군부를 중심으로 소위 국보위에서 만들어지 것이며 강제로 국민에게 지지하게 하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 국회에서 야당이 개헌을 주장하여도 현행헌법의 틀 안에서는 관철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장기집권을 제도화하려는 저들의 음모에 들러리를 설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 민주헌법은 민주정부의 주춧돌입니다. 그러나 주춧돌만 있어서는 집이 되지 않습니다. 집은 국민의 힘으로 지어야 합니다. 민주헌법은 이 땅에 통일과 평등과 평화와 자유와 민주를 건설하는 기본틀이 되어야 합니다.
3	자료 제목: 신년사(1986년 1월 7일) pp. 72~75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은 군사독재정권의 퇴진을 실현하고 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11월에 민주헌법쟁취위원회를 결성하고, 민주헌법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와 통일을 열망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과 민중의 싸움을 통해 쟁취되는 것이라고 밝히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적인 정부는 오직 여러분 자신의 손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지 군사독재정권이나 그에 기생하는 반민중적인 정치인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4	자료 제목: 강력한 연대운동으로 민주화와 통일을 성취하자 – 민통련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pp. 76~79
	– 이 사상 유례없이 잔인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와 통일을 향한 대행진의 기세는 더욱 당당해지고 있다. 최근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민주헌법쟁취운동은 군사독재의 종언을 선고하는 전국민적 의지의 표현이다. … 이 86년의 봄기운 속에서 우리는 민중해방으로 가는 대변혁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예감한다. … 우리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민통련 운동 1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해야 한다. 기층민중을 운동의 주축으로 삼고 있는 민통련은 특히 노동운동을 통일하고 연대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안팎으로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5	자료 제목: 군사독재 퇴진촉구와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선언(1986년 3월 5일) pp.83~85
	– 우리는 여기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에 가입한 23개 단체와 민주인사 303인의 이름을 명기함으로써 '군사독재의 퇴진을 촉구하고 민주헌법을 쟁취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음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바이다.
6	자료 제목: 민중은 군사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1986년 4월 14일) pp. 85~87
	– 3월 23일 부산 시위가 반독재 민중항쟁의 서막을 연 것이라면 3월 30일의 광주 시위와 4월 5일의 대구시위는 군사독재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도록 만드는 민중항쟁의 결정이었다. … 우리는 부산·광주·대구 민중시위를 거치면서 민주화운동단체는 물론 전국민이 오늘의 정치상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때가 왔음을 천명한다.
7	자료 제목: 민국련 기자회견과 왜곡보도에 대한 민통련의 입장(1986년 5월 1일) pp. 91~93

	– 23개 민중·민주운동단체의 연합체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은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민국련)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견해가 민통련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며 23개 단체의 민주적 합의에 따른 입장이 아니라는 판단아래, 이 보도가 나온 뒤에 신속히 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와 상설운영기구이자 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을 실천하는 집행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민통련의 공식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8	자료 제목: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1986년 5월 3일) pp. 93~94
	– 지금부터 6년 전인 1980년 5월 광주의 민중은 민주화를 총칼과 군화발로 짓밟는 일부 반민족적 군부세력에 맞서 과감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수천명의 동포를 살상하고 권력을 강탈한 현재의 군사독재정권은 지난 6년동안 천문학적인 액수의 특혜융자를 하고 온갖 불법적 정책지원을 함으로써 공룡처럼 비대해진 소수의 독점재벌을 길러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의 일족이 중심이 되어 있는 족벌은 이 독점자본과 결탁하거나 그들에게 군림하면서 엄청난 축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은 광주학살의 책임을 추궁하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세에 굴종하는 이 정권을 정당하게 규탄하던 학생과 노동자, 농민, 그리고 민주운동가들을 1천2백여명이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9	자료 제목: '5·3인천민중항쟁'을 왜곡하지 말라 –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고(1983년 5월 19일) pp. 97~98
	– 검찰은 오늘 오전 '인천사태에 관한 중간수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했다. … 민통련은 검찰의 이 발표가 나오기 이미 오래전에 '민통련은 회원단체인 인사연이 신민당의 행사장 앞에서 주도한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여했음'을 성명을 통해 명백히 밝힌 바 있다. … 검찰은 마치 민통련이 학생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방화, 파괴, 납치, 폭행'을 저지른 듯이 단정하고 있으나 23개 운동단체의 연합이 현 단계에서 학생들과 사전에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 우리는 이번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음모'나 '폭거'로 왜곡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10	자료 제목: 경찰폭력과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1986. 6. 10) pp. 104~105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은 전주민중대회에서 또다시 드러난 반민중적 정권이 폭력성과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자 한다. … 민통련은 특히

	지난 5월 3일 인천민중대회를 배후 조종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현재 본부의 문익환 의장을 비롯하여 산하 가맹단체의 주요 실무자급 회원들이 다수 구속, 수배 상태에 있으면서 … 새로운 민주헌법의 내용을 둘러싼 저간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의 내용 이전에 민주헌법을 만드는 절차와 형식이다. 민통련은 진정한 민주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도 민족사적 정통성을 상실한 현정권의 퇴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군사독재퇴진 및 민주헌법쟁취, 민주정부 수립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11	자료 제목: 민중이 주도하지 않는 헌법논의는 원칙적으로 무표이다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를 보고- (1986. 6. 7) pp. 107~108
	- 제130회 임시국회는 지난 6월 24일 여야 타협 속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다. … 현 군사독재정권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현행 국회가 나라의 민주화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광장은 결코 아니며 그들만에 의해서는 헌법문제가 정말 민주적으로 논의될리는 없다고 믿는다. … 신민당은 이번의 '개헌특위' 구성과정에서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보다는 집권 내지 권력배분 문제에 관심이 더 높지 않나하는 의혹을 강하게 주고 있다. 그것인 신민당이 '개헌특위'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양심수 전면석방 요구마저 그야말로 구렁이 담넘어가듯 슬그머니 철회해버렸기 때문이다.
12	자료 제목: 변태적 성고문을 강력히 규탄한다(1986년 7월 3일) pp. 108~109
	-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염치조차 망각한 현 군사독재의 구조적 폭력, 그 야수같은 만행에 치떨리는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잊고 있다. -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장 잔인한 고문이 성적 폭행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허양에게 가해진 참혹한 고문이 대한민국 땅에서 버젓이 자행되도록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중·민주화운동에 종사하는 이들로서의 뼈아픈 부끄러움과 함께 이것이 최근들어 봇물 터지듯 끌어 오르는 민중·민주화운동의 열기에 다급해진 현 정권의 말기적 증세의 단면임을 거듭 확인한다.(사건 발생 초기에는 피해자 권인숙 양 이름을 가명으로 감추었다 - 편집자 주) - 이 시간 현재 인천교도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허영숙 양의 의연한 모습에 새삼 깊은 경의를 표한다.
13	자료 제목: 전 민중의 역량으로 헌법개정 특위 분쇄하자! - 현 국면에서의 헌법문제에

	대한 우리의 결의 – (1986. 9. 15) pp. 114
	– 이제 군사독재는 그들의 잔명을 잇기 위해 '호헌'에서 '장내개헌'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한편 민중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을 더욱 악랄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합의개헌이 사기극임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 이제 우리의 싸움은 바로 민중의 참다운 민주주의로의 열망을 담은 군사독재와의 비타협투쟁이며 미국 등 외세의 본질을 폭로하고 민족자주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임을 분명히 한다.
14	자료 제목: 마지막 시련을 딛고, 최후의 승리로 줄달음치자! – 현 정권의 해산명령에 대한 민통련의 입장 – (1987년 4월 14일) pp. 116~117
	– 현 전두환 군사파쇼정권은 11월 7일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서울노동운동연합, 청계피복노동조합, 인천지역노동자연맹 등 14개의 노동운동단체에 해산 명령을 내린데 이어 그 다음날인 11월 8일 다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본부와 서울, 강원, 경북경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등 4개 지부에 해산하라는 경고장을 발했다. … 이제 우리는 전두환 군부독재의 '호헌' 주장을 보면서 80년 광주항쟁 이후 계속되어 온 민주화투쟁이 새로운 원점에서 전기를 맞게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15	자료 제목: 민주헌법쟁취투쟁의 평가와 반성 pp. 131~140
	원출처: 『민주통일』 5호
	– 참석 단체: 전남민주청년운동연합(전청련),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전북민협), 경북 민통련(경북민통),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 서울 민통련(서민통), 민통련 본부(본부) – 일시/장소: 1986년 8월 14일, 민통련 본부 사무실 – 인사연: 이 자리는 민통련 단위의 민주헌법쟁취투쟁, 특히 지난 상반기 신민당 개헌 현판식을 이용한 민중대회를 수행한 지역단체들이 모여 상반기 투쟁을 평가·반성하면서 차후의 싸움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전청련: 신민당 공식집회가 끝난 저녁 6시부터 밤늦게까지 광주는 하나의 해방구로서 민중집회의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대중들은 명백히 군사독재와의 비타협적 투쟁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현장의 열기를 보고 전남지역 청년운동세력 사이에서 3.30민중투쟁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였고 그것이 정리된 것이 광주의 소리에 실렸던 「3.30광주민중투쟁선언」이었던 것입니다. – 서민통: (4월 19일 대전, 4월 26일 청주) 이때부터는 신민당 개헌현판식과 민통련 민중대회가 보다 확연히 구별되고 정치집회의 성격이 더욱 짙어졌지요. … 그

	당시 일부에서는 민중대회의 분위기가 이미 호랑이등을 타버렸다 하는 표현에서 시사하듯 속도전 성격마저 보였습니다만 … 민통련이 당면한 역량의 한계가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만 … 5.3인천대회와 같은 양상과 그후의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겠지요. – 인사연: 대중이 스스로 싸우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전위대가 싸우면서 대중의 참여를 호소할 것이나 하는 차이가 현장에서 전술상의 큰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인천대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와 반성의 소지를 남겨놓은 셈입니다만 … 노동운동권이나 학생운동권은 인천투쟁을 반파쇼투쟁의 결정적 계기로는 삼지 않았던 듯 합니다. … 결과적으로 그런 구상은 민통련의 순박성으로 증명되었고 … – 경북민통: 마산에서는 5.3 직후부터 민통련 핵심 활동가들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진 직후여서 조직적인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 서민통: 인천 이후 대부분의 세력이 헌법싸움이 지속중인데도 불구하고 역량의 한계와 인식부족으로 다음 싸움에 대한 고민보다 인천싸움 평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② 전국 연합조직 문헌 목록 및 해제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기증자	설명
오픈아카이브	056579	민중의소리(화보특집)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 1986.05.10. / 2	민통련에서 발간하는 선전물. 5.3인천항쟁 직후에 발간된 '화보특집'호이다. 인천대회와 청주대회, 대구대회 등 사진을 실었고, 2면에는 학생, 농민 등의 투쟁과 죽음에 대한 소식을 실었다.

(2) 부문운동: 학생, 노동, 문화, 종교 등 문헌 목록 및 해제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기증자	설명
오픈아카이브	0522958	타오르는 민족민주운동의 열기 - 5월3일 인천 가두투쟁	민주화운동청년연합 / 1986.05.13. / 2	5.3투쟁이 민중이 민족민주운동의 주체임을 선언한 것이며, 반외세 운동을 통해 미국에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을 우려하는 내용이다. 민청련 기관지 『민주화의 길』 제13호 22쪽에 실렸다.
오픈아카이브	0522953	선봉 제4호	반제반파쇼노동자투쟁위원회 / 1986.05.13. / 4	"미제축출! 파쇼타도!! 헌법제정민중회의 쟁취하자!!!" 라는 표제하에 '인천5.3민중대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당일 '헌법제정민중회의 쟁취를 위한 민중대회'가 열렸다고적었다. 또한 시민회관 앞의 투쟁상황을 해당 조직위치를 중심으로 시간대별로 서술하고 있다.
오픈아카이브	0524670	애국학생들의 분신투쟁정신 계승하여 민족자주·민중민주쟁취를 위한 성전에 총궐기하자!	한국기독청년협의회 / 1986.05.22. / 4	서울대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의 사망과 '5.3인천항쟁 이후 공안탄압 상황에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독려하는 성명서. 정부가 주도하는 헌법개정에 반대하고, 5.3인천항쟁을 '군부독재에 대한 무제한의 전면투쟁 선포'로 평가하고, 광주에 대한 '학살원흉'과 타협할수 없음을 강조했다.
오픈아카이브	085979	5.3인천민중집회	서울노동운동연합 /	서노련은 5.3투쟁에서 '정당하고 민주적인 평화적 민중집회'에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기증자	설명
		진상규명에 관하여 신민당에 보내는 '서노련'의 결의	1986.5.26. / 2	대해 '적들'이 '무자비한 무장폭력과 선제공격으로 살인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권이 서노련을 5.3투쟁의 주범으로 단정하고 활동가 14명을 강제 납치하여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자행했다고 고발했다. 신민당에 대해서는 군사독재 정권과 개헌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서노련이 주장하는 '삼민헌법'을 지지하라고 요구했다.
오픈아카이브	0842882	천사협소식(제2호)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 1986.06.18. / 8	'지향', '5월의 기류', '인식', 이해', '소식'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헌과 보수대연합"이라는 글이 실려있다. 인천5.3항쟁 이후 군사정권이 신민당과 '국회내에서의 개헌'이라는 '보수대연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의 참여속에 근본적 사회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아카이브	0837686	5·3인천시위 구속자 잔혹고문 및 허위조사 건	5.3인천시위구속자 가족일동 / 1986.06.16. / 6	인천53항쟁 이후 인천교도소에 수감된 이상명 외 36명의 가족들이 경찰 조사과정과 수감 이후 폭행,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의 행위를 당했음을 고발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용. 이들은 6월 7일부터 7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소요죄 적용 철회', '용공조작 중지' 등을 주장했다. 별참자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기증자	설명
				료로 1. 호소문 2. 성명서 3. 구속자명단 등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호소문 내용에 따르면 이상명(인하대 4학년)은 이용주(인하대 3학년 제적)와 함께 민정당 지구당사 방화 혐의를 받았다. 가족들은 "경찰의 진압작전에 10분도 채 안되어 해산되어 버린 인천 시위가 부마사태와 광주사태와 어떻게 같다는 것입니까"라고 항변했다. 성명서에는 고문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픈아카이브	083261	개헌투쟁과 민중생존권	한국노동복지협의회 / 1986.07.00. / 6	「민주노동(17호)」 총32쪽 자료 중에서 5.3항쟁 관련 일부(4~8쪽, 27쪽)만 추린 파일이다. 이 자료는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천주교도시빈민사목협의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대표들이 모여 토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개헌과 관련되어미국, 정권, 신민당, 각단체 등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헌투쟁의 방향과 과제등을 제시하고있다. 27쪽에는 5.3항쟁이후 민통련 등에 대한 탄압상황을 알리고 있다.

(3) 지역운동 문헌 목록 및 해제

① 3.30광주민중투쟁자료집

■ 문헌 개요

구분	내용
제목	오월이여! 활화산 광주여! 전진하여 승리하라!!
출처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관리번호): 0125770
분량	15쪽
제작	전남민주청년운동연합
목차	1. 화보 2. 광주민중은 이렇게 싸웠다(3.30민중투쟁일지) 3. 군사독재퇴진투쟁선언 4. 자료(1) 관련 신문자료 5. 자료(2) 3.30 발행한 홍보물「광주의 소리」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투쟁일지> – 오전 9시: 신민당과 민추협 중심으로 가두홍보방송 시작 – 오전 12시: 시민 5만 집결(금남로 일대),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프랑카드와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 – 오전 12시 30분: 시민 10만으로 확대. 주요 인사들 도착. 도청 앞 분수대 완전 점령 – 오후 2시: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전남도지부 결성대회 및 현판식 공식행사 시작. 시민 20만으로 확대 – 오후 5시 40분: 폐회 이후 이민우, 김영삼 등 옥상으로 올라와 즉석 연설. 군중은 40만까지 확대 – 오후 6시 20분: 개헌추진본부 전남도지부 결성 현판식 거행. 신민당에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 제안, 신민당 인사들 상경. – 오후 7시~ 8시50분: 시내 각지에서 시위, 도청앞 분수대 앞 집결한 시위대가 민중대회 진행(3만 집결, 전청련 간부들 중심으로 진행)

	– 심야 시위: 미문화원 앞 등에서 시위. 자정 즈음에 경찰에 의해 해산됨.
2	<군사독재 퇴진투쟁 선언> – 우리는 3.30광주민중투쟁을 통하여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의 찬란한 복권을 보게된다. … 탄압의 시련을 극복하고 투쟁력을 회복·강화시킨 민중민주화운동은 2.12총선에서 민중의 정치적 열망을 확인하고, 군사독재에 대한 치열하고 끈질긴 투쟁을 수행하여 군사독재 세력의 본질을 폭로하고 고립시켜 나갔다. … 3.30 광주민중투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세적 위축상태로 몰려온 군사독재에게 결정적 일격을 가하여 군사독재에 대한 외세의 정치적 부담을 더한층 강요하게 함으로써 군사독재와 외세간의 갈등을 훨씬 첨예화시키는 직접요인이 되어지며, … 흔들리는 군사독재에게 결정적 일격이 가해진 것이다. … 정세는 우리에게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군사독재퇴진투쟁에 모든 민중민주화 운동의 결집을 요구한다. … 전국의 전민중이여! 전두환 군사독재의 즉각적인 퇴진을 위해 총단결하라! 총궐기하라! '군사독재퇴진'으로 모든 투쟁의 대열과 대오를 정비하고 구호를 통일시키라! 전면적인 군사독재퇴진투쟁으로의 총공세를 준비해 나가자!

② 기타 자료 해제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오픈아카이브	0884379	경북의 소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경북지구 / 1986.05.10. / 2	"5.3인천민중의 헌신적 민주화 투쟁을 재조명한다"는 표제로 5.3인천민주항쟁 관련 내용을 게재하였다.
오픈아카이브	0879157	민주강원 (제2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강원지부 / 1986.05.23. / 4	5.3항쟁의 사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5.3인천민중투쟁은 민중민주화운동에 획기적인 분기점을 마련함"이라는 표제를 달고 소식을 전하고 있다.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오픈아카이브	0413404	인사연운동론의정립을위하여(Ⅱ)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 1986 / 10	인천5.3항쟁 이후 운동권 내부의 노선 논쟁이 활발해 지자 인사연에서도 자체적으로 운동론을 정리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내용 중에는 인사연이 반군사독재민주화투쟁 속에서 '미일외세의 반민족적 반민족적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해내는데 소극적이었다'는 대목이 있다. 하반기 헌법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민중의 힘으로 군사독재 타도', '민중의 힘으로 민주헌법 제정' 등이 슬로건으로 제시되었고, '헌법제정 민중회의'를 장기적인 선전 슬로건으로 대중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이념적 경향을 수용하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오픈아카이브	0172161	인천의소리(12호)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 1986.07.02. / 2	5.3항쟁 이후 경찰의 폭력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2면에서는 인천교도소에서 5.3 인천시위 구속자들이 단식 항의농성을 벌인 소식과 민통련 관계자 50여명과, 인사연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글이 실려있다.
오픈아카이브	0199365	인천의소리(10호)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 1986.04.30. /4	'민중투쟁특보'로 발간되었다. 신민당 개헌 현판식 관련한 광주과 대구대회에 대해 약도와 사진을 포함하여 시간대별로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오픈아카이브	0301166	인천의소리 (13호)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 1986.07.25. / 2	5.3항쟁 이후 부천경찰서 문귀동 성고문사건이 발생했다. 민주화운동진영은 '폭력정권, 강간정권'이라고 비판하며 투쟁대회를 개최한 내용과, 사건의 개요를 담고있다. 또한 신호수 의문사 문제와 인천5.3 투쟁으로 재판을 받는 구속자 37명이 재판거부투쟁을 벌인 소식등이 담겨 있다.
오픈아카이브	0361484	인천의소리 (11호)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 1986.05.16. / 2	'민중투쟁특보'로 발행되었다. 주로 인천5.3항쟁 소식을 전하고있다. 경찰이 폭력사태를 유도했다는 주장과, '반미'를 용공으로 몰아세울 수 없다는 주장, 신민당이 각성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담겨있다.
오픈아카이브	0412845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창립25주년 기념 및 제3차 정기총회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 1986.00.00. / 15	정기총회 개최일은 9월27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자료집은 인사연 활동보고, 인사연 운동의 반성과 과제, 정세보고, 결의문 채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6년 1월부터 3월까지를 '민주헌법쟁취투쟁의확산기'로 보고, 3월30일부터 5월3일까지를 '민주헌법쟁취투쟁의 고양기'로 보고있다. 그리고 5.3항쟁 이후를 '현 정권 장기집권 노골화와 민중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저지 투쟁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오픈아카이브	0413411	[인사연활동정리]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 [미상] / 8	인사연의 활동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자료이다. 이 중에서 5.3민주항쟁에 대해서 1986년3.30 광주민중투쟁에서시작해 대구, 대전에서 전개된 '민헌쟁투'가 군사독재타도를 위한 국민총궐기 투쟁의 시기라고 판단하고, 인사연이 5월3일 신민당 인천개헌현판식에서 대규모 대중투쟁을 준비했다. 하지만 5.3 인천투쟁은 운동권의 분열로 인해 타지방에서만큼 대중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이호웅, 이우재, 홍성복 등이 수배됨으로써 중대한 역량의 손실을 입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1987년 4월에 인천지역민중운동연합건설을제기했다고 한다.
오픈아카이브	0530080	[자민투, 기독청년학생, 민청련운동노선정리]	[미상] / [미상] / 17	1. 자민투의 입장에 대해서 선전물인 '해방선언' 각호를 기초로 정리하였다. 2. 기독청년 학생조직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3. 민청련의 입장에 대해 정리하였다.
오픈아카이브	0879157	민주강원(제2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강원지부 / 1986.05.23. / 4	5.3항쟁의 사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5.3인천민중투쟁은 민중민주화운동에 획기적인 분기점을 마련함"이라는 표제를 달고 소식을 전하고 있다.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오픈아카이브	083261	개헌투쟁과 민중생존권	한국노동복지협의회 / 1986.07.00. / 6	「민주노동(17호)」 총32쪽 자료 중에서 5.3항쟁 관련 일부(4~8쪽, 27쪽)만 추린 파일이다. 이자료는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천주교도시빈민사목협의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대표들이 모여 토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개헌과 관련되어 미국, 정권, 신민당, 각 단체 등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헌투쟁의 방향과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7쪽에는 5.3항쟁 이후 민통련 등에 대한탄압상황을 알리고있다.

(4) 출처 불명 문헌 목록 및 해제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오픈아카이브	00882550	여론조사[인천5.3사태와 관련]	[미상] / 1986.00.00 / 1	6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설문지. 인천5.3투쟁의 원인,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묻고 있다.
오픈아카이브	0858583	인천민중투쟁경과보고서	[미상] / [미상] / 3	5월3일 당일 투쟁의 경과를 시간대별로 작성한 일지. 시위대와 전경의 대치상황을 지도로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민정당사 투석전이나 신민당 승용차 방화, 공방전 등에대한 설명이 상세한 편이다.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오픈아카이브	0105353	15. 5.3 인천시위 사건	[미상] / [미상] / 3	빨간 팬으로 교정교열을 본 문서이다. 어떤 자료집 중에 5.3항쟁 부분만 복사를 한 것이다. 신민당이 작성한 '인천사태 고문 보고서' 내용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전체 자료집은 독재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자료집으로 추정된다. 해당 내용의 쪽수는 49~51. 한휘석, 이상명, 왕주연, 온태희 등의 피해 사례가 나온다.
오픈아카이브	0117511	5.3인천투쟁을 운동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미상] / 1986.06.00. / 2	이 문건은 독재정권의 운동권 탄압과 5.3투쟁에 대한 악선전을 비판하면서 투쟁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있다. 즉 운동권의 투쟁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점, 신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 전 민중적 차원에서 '반제 반파쇼' 투쟁을 벌일 통일전선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등을 적극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반성적 평가도 제시하고 있다. 즉 이전 투쟁과의 연결이나, 이후 투쟁과의 연결이 부족했다는 점 등이다.
오픈아카이브	0859214	격동하는 '86 정세, 민중과 '보수대연합'의 갈등	[미상] / 1986.00.00 / 3	운동진영의 발간물의 일부(13쪽~14쪽). 내용 중간에 "미국의 대한 정책과 5.3시위 이후의 '대타협' 국면"이라는 항목이 있고, 전후로 1986년 정치 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이 적혀 있다.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오픈아카이브	0056849	["자민투"와"민민투" 비교분석개요]	[미상] / [미상] / 2	1986년 학생운동권 내 대표적인 두 정파였던 자민투와 민민투에 대해 비교한 표이다. 양 진영이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성격, 변혁이념, 투쟁노선을 정리했고, 2면에는 '혁명론' 다섯 가지를 비교한 표를 구성해 놓았다.
오픈아카이브	530080	[자민투, 기독청년학생, 민청련운동노선정리]	17	1. 자민투의 입장에 대해서 선전물인 '해방선언' 각 호를 기초로 정리하였다. 2. 기독청년학생 조직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3. 민청련의 입장에 대해 정리하였다.

2) 정치권, 정부기관 발행 자료

① 신민당 자료집

■ 문헌 개요

구분	내용
제목	「인천사태의 진상」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등록번호 00837672)
분량	7쪽
작성일자	1986.05.15.
작성자	노승환(신민당 개헌추진 인천·경기지부장, 인천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장)
특징	총 24개 항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천사태가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조작에 의해 폭력사태로 비화된 것임을 주장하는 내용

■ 주요 내용

	주요내용
1	– 당일 대회장 우측의 대한생명보험 빌딩에 당국이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민당 대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 당일 3시 40분경 가스차 1대가 아무런 필요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쪽으로 돌진하다 급정거, 예의 짧은 머리 같은 운동화 차림의 젊은이들과 충돌하는 연극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당국은 경찰 139명 중경상이라는 발표만을 할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 학생의 부상과 피해 상황도 발표하여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② 신민당 당보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오픈아카이브	00412642	신민주전선 14-1호 (호외, 특보)	신한민주당 / 1986.04.21. / 2	- 신민당보 - "개헌태풍 … 전국강타!"라는 표제로 전국 대회를 알리고, 인천 대회를 홍보하고 있다.
오픈아카이브	00885351	신민주전선 14-8호 (호외, 특보)	신한민주당 / 1986.05.02. / 2	- 신민당보 - "개헌태풍 … 전국강타!"라는 표제로 전국 도시 순회 대회를 알리고 있다.

③ 정부 기관 자료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오픈아카이브	0916088	보도지침 (5월3일)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 / 1986.05.03. / 1	인천개헌현판식 시위 관련 기사를 다룰 때의 편집 지침. 1. 머릿기사는 한·영 정상회담으로 하고, 시위 기사는 사회면 톱이나 중간으로 할 것. 2. 기사 내용의 방향은 '학생·근로자들의 시위'로 하지 말고 '자민투, 민민투, 민통련의 시위'로 할 것. 폭동에 가까운 격렬 시위인 만큼 비판적 시각으로 다룰 것 등등을 제시하고 있다.
오픈아카이브	0916089	보도지침 (5월5일)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 /	서울대 분신 사망 학생 장례식 주변 스케치하지 말고, 인천 시위 관련하여 '경찰의 과잉 개입이 과격 데모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1986.05.05. / 1	유발한 것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
오픈아카이브	0916095	보도지침 (5월15일)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 / 1986.05.15. / 2	광주사태(5.18) 관계 보도 지침과 김수환 추기경 대담 내용 작게 보도하라는 지침. 신민당의 인천사태 보도는 치안당국 발표 내용과 균형있게 보도하라는 내용의 지침.
오픈아카이브	0916098	보도지침 (5월19일)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 / 1986.05.19. / 1	대검찰청 인천사태 조사 발표를 사회면 톱 또는 1면 사이드 톱으로 눈에 띄게 크게 보도하라는 지침.
오픈아카이브	0916103	보도지침 (5월26일)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 / 1986.05.26. / 1	인천사태 관련 구속학생 60여명 26~30일까지 순화교육 사실 자체에 대한 보도 불가 지침.

3) 판결문, 공소장, 탄원서 등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오픈아카이브	0859077	이돈명 변호사 구속사건 변론요지서	김제형 변호사 등 변호인단 / 1986.12.00. / 32	인천5.3항쟁 이후 수배를 받게 된 민통련 이부영 사무처장을 이돈명 변호사가 숨겨준 것에 대해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과 범죄은닉죄를 적용하려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단이 반박 논리를 정리한 자료이다. 2장 1절에 '5.3인천사태' 및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성격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변호인단은 민통련이 용공좌경성향의 급진단체가 아니라는 점과, '인천사태'를 계획하고 주도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인천사태'에 대해서는 신민당이 주장하는 '오히려 정부가 조직적 대회 방해 및 민주화운동 탄압'이라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폭력시위나 급진적 구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 체제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사회 명사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오픈아카이브	084955	[탄원서와 호소문 묶음]	[구속자 가족들] / 17	구속자의 가족들이 자필로 적은 탄원서와 호소문. 구속자 이름과 담당 형사들의 이름이 함께 적혀있기도 하다.
인천	없음	이재영 외 9명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 사건: 86고합301 소요(302번 등 8건 병합)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민주화 운동 센터			/ 1986.9.26. / 24	– 1986.12.23., 31. 상고권 포기 또는 상고기간 경과로 형 확정 – 1987.07.10. 이들 중 6명에 대해서 특별사면 또는 특별복권 – 이재영 등 3인이 징역 2년형 – 피고인 명단: 황인구, 김윤기, 김동임, 한휘석, 손영일, 김수영, 이재영, 이상명, 이용주, 주상현 – 내용: 피고들의 정당방위 주장 불인정, 검찰의 '소요죄' 주장 인정, 이재영 등은 형법 115조 소요죄,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인천 민주화 운동 센터	없음	이재영 외 7명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 1986.12.23. / 11	– 사건: 86노 3211 소요 – 검사와 피고인(5인)이 모두 항소 – 판결: 양측 항소 모두 기각 – 내용: 정당방위의 인정 기준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주장 반박
인천 민주화 운동 센터	없음	권오광 외 10명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 1986.9.26. / 26	– 사건: 86고합 294(303번 등 9인 사건 병합) – 1986.10.5., 1987.1.26., 23. 상고권 포기 또는 상고기간 경과로 형 확정 – 1987.07.10. 이들 중 7명에 대해서 특별사면 또는 특별복권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 피고인 명단: 박명무, 박종문, 강경문, 민춘기, 권오광, 이현경, 주성종, 이현필, 방○○, 유원모 – 내용: 형법 제115조 소요죄, 집시법 위반 등 적용, 박종문 회 9인에 대해 각기 판결. 권오광 외 2명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 선고
인천 민주화 운동 센터	없음	권오광 외 1명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문 / 1987.1.26. / 3	– 사건: 86노3212 – 권오광 외 1인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함 – 내용: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기각
인천 민주화 운동 센터	없음	박○○ 외 5명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문 / 1987.1.26. / 10	– 사건: 86노3212 – 박○○ 외 5명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것에 대한 판결 – 내용: 박○○ 외 2인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약간 형량을 줄여 판결. 나머지 6명의 항소는 기각. 소요죄에 대해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소요의 발생이 예상됨에도 이에 가담한 것은 소요의 공동의사가 있음으로 간주'한다고 판결. 또한 정당방위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음.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설명
성공회 대학교 민주 자료관	10929	정상용 공소장	인천지방검찰청 / 1987.2.13. / 8	– 사건: 1987 형 2556 – 죄명: 소요죄 – 피고인: 정상용(전 전남민통련 의장) – 공소사실: 인천5.3시위 참가, 연설 등
오픈아 카이브	0190879	정상용 공판조서	인천지방법원 / 1987.5.29. / 13	– 사건: 87고합80 소요 – 피고인: 정상용 – 내용: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본인에게 확인함.

4) 경찰청 자료

■ 개요

○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 국가기록원에 요청하여 수집된 자료

○ 총 21개의 묶음 자료가 pdf 파일 형태로 입수되었으며, 1번에서 20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다. 10번 파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총 파일수는 21개이다.

(1) 5.3 사태 1.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56
분량	181쪽(A4 사이즈)
목차	1.「5.3 시위사건 종합 수사상황」(경기도 경찰국, 5.12.) 2.「5.3사건주요수사상황」(경기도 경찰국, 5.10.) 3.「수사보고」(경기도경찰국, 86. 5. 11.) 4.「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보고」(경기도경찰국, 86.5.8.) 5.「종합수사보고」(경기도경찰국 수사과, 1986.5.4.) 6.「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경기도경찰국, 1986. 5.20.)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5.3 시위사건 종합 수사상황」(경기도 경찰국, 1986. 5. 12.) – 시위 관련 연행자 신병처리 현황 – 추가 연행자 처리현황 – 검거대상자 – 주요 수사상황 – 수사계획	1~14쪽
2	「5.3사건 주요 수사상황」(경기도 경찰국, 1986.5.10.) – 배후 폭력 연계 관계 수사 – 폭력 교사범 등 수사 – 진범 여부 수사 – 서동석 수사현황 –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 연계도	15~21쪽
3	「수사보고」(경기도경찰국, 86. 5. 11.) – 주안성당 관계 – 화염병, 프랑카드 운반 관계 – 5.1~2. 성당 출입자 – 5.3 시위자 출입 관계 – 5.3 시위사건 수사현황(검거대상자): 인천서, 동부서, 부평서	22~48쪽
4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보고」(경기도경찰국, 86.5.8.) – 개요 – 시위현황 – 시위관련 연행자 및 처리현황 – 구속자 분류현황 – 수사결과 – 향후 수사계획(연대 민민투 조직도, 연대 언더 조직체계도, 장신대 언더써클 조직계보) – 5.3사건 관련 시위계보(민통련 조직도표, 정제익 배후세력계보, 서울대총연극회체계도, 고려대총학생회체계도, 성신여대 자민투조직체계도, 동국대 총학생회체계도, 인천대학교 배후세력계보, 중앙대학교 배후세력계보, 민중불교운동연합 연계도,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조직, 서울대 연극회 조직 및 연계현황, 연세대 공대 언더조직체계도, 장신대 언더서클 조직계보)	49~79쪽
5	「종합수사보고」(경기도경찰국 수사과, 1986.5.4.)	80~136쪽

	– 사건총괄 – 시위관련 연행자 신병처리 현황(종합) – 검거자 불순단체 가입현황 – 서별 연행자 명단(시위에 관련 연행자 조사결과)	
6	「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경기도경찰국, 1986. 5. 20.) – 사건개요 – 검거연행자 처리현황 – 수사상황 – 사건송치 – 결론 ※ 문서 뒤로 자료 첨부: 상황도, 구호 목록, 학생조직 시위준비 메모 등 7건	137~181쪽

(2) 5.3 사태 2.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57
분량	132쪽(A4 사이즈)
목차	1.「질의예상답변자료(5.3사태관련)」 2.「인천사태 인천소재 배후조직규명 수사계획」(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3「민민투 등 용공지하조직 수사계획하달」(내무부, 86.5.1.) 4.「진상보고」(부평경찰서, 1986.6.16.) 5.「수사상황」(부천서, 1986.6.17.)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질의예상답변자료(5.3사태관련)」 －9개 의혹에 대한 답변 －5.3 시위관련자(9인)에 대한 고문 사실 여부	1~38쪽
2	「인천사태 인천소재 배후조직규명 수사계획」(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검찰 －사경 －5.3인천소요 중요수배자(장기표) 수사상황 보고	39~70쪽
	※ 69쪽, 70쪽 제본이 잘못되어 마지막 쪽수가 68쪽으로 되어 있음.	

3	「민민투 등 용공지하조직 수사계획하달」(내무부, 86.5.1.) – 현황 – 기본방침 – 조사계획 – 행정사항 – 검거대상자 명단(38명) – 검거자 명단(26명)	71~88쪽
	※ 88쪽이 89쪽과 바뀌어 제본됨.	
4	「진상보고」(부평경찰서, 1986.6.16.) – (한휘석, 박명무 등에 대한 신민당의 고문, 구타 주장과 그에 대한 경찰 측 답변) – 진술조서 – 구속인명부 – 사건송치 공문	89~124쪽
5	「수사상황」(부천서, 1986.6.17.) – 전미영, 왕주현 수사상황	125~132쪽

(3) 5.3 사태 3.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58
분량	123쪽(A4 사이즈)
목차	1.「종합수사보고-5.3인천폭력시위사건」(경기도경찰국, 1986.5.5.)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종합수사보고-5.3인천폭력시위사건」(경기도경찰국, 1986.5.5.) - 사건총괄 - 5.3인천 시위사건 관련 연행 조사자 처리방안 검토 자료(86.5.4.)	1~123쪽

(4) 5.3 사태 4.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59
분량	50쪽(A4 사이즈)
목차	1.「5.3사태 송민정, 문미숙 수사경위에 따른 추가 보고」(부천서, 86.7.31.) 2.「전언통신문 – 인천사태관련 구속자 석방상황」(1986.8.1.) 3.「부천경찰서 점거 농성 사건 등 수사보고」(인천경찰서, 1986.7.5.)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5.3사태 송민정, 문미숙 수사경위에 따른 추가 보고」(부천서, 86.7.31.) – 인천5.3사태 관련 피의자 송민정, 문미숙 등에 대한 수사경위보고(86.7.28)에 따른 추가보고 – 인천5.3사태 관련 여자 피의자에 대한 동향보고(86.7.28.)	1~15쪽
2	「전언통신문 – 인천사태관련 구속자 석방상황」(1986.8.1.) – 배영미에 대한 대공분실 조사 상황 – 심문일지 – 권인숙의 변호인 접견시 언동에 대한 진상보고 – 배영미 남편 장훈열 과거 동향	16~40쪽

	– 7.2부천서 농성자 배영미 보호 조치 경위	
3	「부천경찰서 점거 농성 사건 등 수사보고」(인천경찰서, 1986.7.5.) – 인천지방경찰청 방화사건 조사상황 – 부천경찰서 점거 농성 사건 등 수사보고 – 부천경찰서 농성 관련자 명단 – 제소자 권인숙의 접견 언동에 대한 진상	41~50쪽

(5) 5.3 사태 5.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60
분량	142쪽(A4 사이즈)
목차	1.「5.3사건 관련자 수사상황 보고」(부천서, 1986.7.22.) 2.「왕주현에 대한 고문 사실 여부」 3. [온태회, 황언구 등 수사 및 송치 자료](부천경찰서, 86.5.) 4.「전언통신문 - 5.3시위사건 관련피의자 이배호에 대한 수사보고」(1986.6.9.) 5.「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자 검거 보고」(부천, 1986.6.2) 6.「5.3관련 수배자 조사진행 상황」(부천경찰서, 86.5.24.) 7.「5.3시위사건 수사상황」(부천서 수사과) 8.「5.3사건 수사상황 보고」(부천경찰서, 1986.5.14.) 9.「5.3사건 수사상황 보고」(부천경찰서, 1986.5.13.) 10.「5.3사건 수사상황 보고」(부천경찰서, 1986.5.11.) 11.「5.3사건 수사상황 보고 -제4보」(부천경찰서, 1986.5.10.) 12.「5.3사건 수사상황 보고-제2보」(부천경찰서, 1986.5.8.) 13.「5.3사건 수사상황 보고-제3보」(부천경찰서, 1986.5.9.) 14.「5.3사건 수사상황 보고」(부천경찰서, 1986.5.)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5.3사건 관련자 수사상황 보고」(부천서, 1986.7.22.) – 수사지휘품신(장신대 김사무엘 관련 자료)	1~12쪽
2	「왕주현에 대한 고문 사실 여부」	13~14쪽
3	[온태회, 황언구 등 수사 및 송치 자료](부천경찰서, 86.5.)	15~31쪽
4	「전언통신문 – 5.3시위사건 관련피의자 이배호에 대한 수사보고」(1986.6.9.)	32~34쪽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자 검거 보고」(부천, 1986.6.2.) – 장신대 소미화에 대한 자료	35~39쪽
6	「5.3관련 수배자 조사진행 상황」(부천경찰서, 86.5.24.) – 수배자 검거 전담 편성표 – 양승조, 이호웅 등에 대한 정보	40~65쪽
7	「5.3시위사건 수사상황」(부천서 수사과) – 5.3시위사건 수사상황보고 – 합동 전담 수사반(86.5.6. 편성명단)	66~71쪽
8	「5.3사건 수사상황 보고」(부천경찰서, 1986.5.14.) ※ 불완전한 자료 두 부가 이어져 있음	72~77쪽
9	「5.3사건 수사상황 보고」(부천경찰서, 1986.5.13.) – 구속된 피의자 43명 관련 자료 – 부인(富仁)지역 연합 민민투 계보 – 장신대 민민투 5.3시위계획 요도 ※ '시위계획 요도' 이미지는 '문헌자료 내 사진 또는 그림' 항목에서 다룸. 주안역, 제물포역, 동인천역이 모두 나와 있고 경기도경 앞까지 진출하는 계획이 표시되어 있음.	78~101쪽

10	「5.3사건 수사상황 보고」(부천경찰서, 1986.5.11.) －(온태회 등 구속자 총 43명에 대한 자료)	102~110쪽
11	「5.3사건 수사상황 보고 -제4보」(부천경찰서, 1986.5.10.) －(탁지일 등 수사 대상자 43명에 대한 자료) －5.3인천시위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11~120쪽
12	「5.3사건 수사상황 보고－제2보」(부천경찰서, 1986.5.8.) －(탁지일 등 수사 대상자 13명에 대한 자료)	121~125쪽
13	「5.3사건 수사상황 보고－제3보」(부천경찰서, 1986.5.9.) －(탁지일 등 7인 검거 대상자 명단)	126~133쪽
14	「5.3사건 수사상황 보고」(부천경찰서, 1986.5.) －(온태회 등 47명 검거 현황 등 자료) －배후 조직 계보	134~142쪽

(6) 5.3 사태 6.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61
분량	110쪽(A4 사이즈)
목차	1. 「민정당사 방화범 검거」(경기도경찰국, 1986.5.22.) 2. 「5.3시위관련자 박종문, 이상명, 이용주, 조사경위보고」(인천동부경찰서, 86.6.16.) 등 관련 자료 묶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민정당사 방화범 검거」(경기도경찰국, 1986.5.22.)	1~4쪽
2	「5.3시위관련자 박종문, 이상명, 이용주, 조사경위보고」(인천동부경찰서, 86.6.16.) 등 관련 자료 묶음 – 이용주, 이상명 사건 송치 자료(의견서, 진술서, 신문조서 등)	5~110쪽

(7) 5.3 사태 7.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62
분량	134쪽(A4 사이즈)
목차	1. (날짜별 경기도경 수사상황 보고 묶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 「5.3관련자 신병처리 및 수배자 검거현황」(형사계, 1986.5.21.) -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현황 보고」(경기도경찰국, 86.5.20.) - 「5.3사건관련 연행자 처리 및 수배자 현황」(수사과, 1986.5.19.) - 「5.3사건 관련자 수사상황 보고」(경기도경찰국, 86.5.18.) - 「프랑카드 등 선전문 분석」(경기도경찰국, 1986.5.16.) - 「5.3사건 관련자 조치현황 보고」(형사계, 86.5.17.) - 「시위관련연행자 조치상황」(수사과, 1986.5.16.) -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보고」(경기도경찰국, 1986.5.16.) - 「시위관련 연행자 조치상황」(수사과, 1986.5.15.) -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보고」(경기도경찰국, 86.5.15.) - 「시위관련 연행자 조치상황」(수사과, 1986.5.14.) - 「5.3인천시위 관련자 수사상황보고」(경기도경찰국, 86.5.14.) - 「시위관련 연행자 조치상황」(수사과, 1986.5.13.) -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보고」(경기도경찰국, 86.5.13.) - 「시위관련 연행자 조치상황」(수사과, 1986.5.12.)	1~134쪽

	– 「시위관련 연행자 조치상황」(수사과, 1986.5.11.) – 「시위관련 연행자 조치상황」(수사과, 1986.5.10.) –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보고」(경기도경찰국, 86.5.10.) – 「시위관련 연행자 조치상황」(수사과, 1986.5.9.) –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보고」(경기도경찰국, 86.5.9.)	

(8) 5.3 사태 8.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63
분량	53쪽(A4 사이즈)
목차	1.「5.3사건 추가검거자 처리현황」(경기도경찰국, 1986.5.27.) 2.「5.3사건 추가검거자 처리현황」(경기도경찰국, 1986.5.27.)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5.3사건 추가검거자 처리현황」(경기도경찰국, 1986.5.27.)	1~9쪽
2	「5.3사건 추가검거자 처리현황」(경기도경찰국, 1986.5.27.)	10~16쪽
3	「5.3시위 추가검거자 수사상황」(인천경찰서, 86.5.26.)	17~27쪽
4	「5.3시위 추가검거자 수사상황」(인천동부경찰서)	28~40쪽
5	「5.3 인천사건 추가 검거자 수사상황(부평경찰서, 86.5.26.)	41~48쪽
6	「5.3사건 추가 검거자 수사상황」(부천경찰서)	49~53쪽

(9) 5.3 사태 9.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64
분량	13쪽(A4 사이즈)
목차	1.「수사보고」(인천동부경찰서, 1986.5.6.)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수사보고」(인천동부경찰서, 1986.5.6.) -(신민당 승용차 방화 소실 사건 관련 자료)	1~13쪽

(10) 5.3 사태 10(1).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65
분량	159쪽(A4 사이즈)
목차	1.「실황조사서-5.3시위」(경기도경찰국, 1986.5.28.) 2.「긴급업무보고-실황조사서」(인천동부경찰서, 1986.5.29.)

※ 이 자료와 다음 자료(관리번호 DA1431866)은 파일번호가 10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련번호는 10번, 11번으로 하고, 파일번호는 10(1)과 10(2)로 각각 다르게 표기하였다.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실황조사서-5.3시위」(경기도경찰국, 1986.5.28.) - 개황 - 실황조사의 장소 - 실황조사의 목적 - 현장의 위치 및 부근상황 - 시위상황과 경찰의 진압상황 - 피해상황 - (첨부 자료: 지도 2점, 상황도 7점, 부상자 명단, 민정당사 화재피해상황, 사진 47점)	1~73쪽
2	「긴급업무보고-실황조사서」(인천동부경찰서, 1986.5.29.) - 공문	74~159쪽

	– 「실황조사서－5.3시위」 – 「실황조사서－5.3시위」(미완성 원고) – (첨부자료: 지도 2점, 상황도 7점, 부상자 명단, 민정당사 화재피해상황, 신민당인천행사 진행상황, 5.3작전이동상황, 5.3행사 사건 상황도)	

(11) 5.3 사태 10(2).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66
분량	92쪽(A4 사이즈)
목차	1. 「5.3인천소요사건 진상보고」(내무부, 1986.5.6.) 2. 「보도자료: 인천소요사건 중간수사결과발표」(대검찰청, 1986.5.19.) 3. 「5.19 대검 발표 수사내용의 특이점」(경기도경찰국)

※ 이 자료와 위 자료(관리번호 DA1431865)은 파일번호가 10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련번호는 10번 다음으로 11번으로 하고, 파일번호는 10－1과 10－2로 각각 다르게 표기하였다.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5.3인천소요사건 진상보고」(내무부, 1986.5.6.)	1~68쪽

	– 개황 – 사건내용 및 특징 – 피해상황 – 경찰조치 – 금후대응 – 부록: 사건현장 요도, 부상경찰관 명단, 중요수배자 명단, 구호, 프래카드, 유인물	
2	「보도자료: 인천소요사건 중간수사결과발표」(대검찰청, 1986.5.19.) – 수사개요 – 사건의 성격 – 수사상황 – 향후 수사방침	69~82쪽
3	「5.19 대검 발표 수사내용의 특이점」(경기도경찰국)	

(12) 5.3 사태 11.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67
분량	70쪽(A4 사이즈)
목차	1. (수사자료, 특히 자술서 등 묶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수사자료, 특히 자술서 등 묶음) ※ 연세대학교 학생 조직에 대한 수사 자료들임	1~70쪽

(13) 5.3 사태 12.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68
분량	141쪽(A4 사이즈)
목차	1.「6.18부평시위관련 연행자(일반인) 전과사실현황(1987.7.9.) 2.「집시법 위반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부평시가지 시위기도사건 발생(종합)」(86.11.22.) 3.「기습시위발생보고」(86.8.17.) 4.「부평역 앞 기습시위 발생 상황(종합)(86.8.17.) 5.「5.3사태 구속자 가족동향 보고」(부평서, 86.6.27.) 6.「5.3시위사건수사」(부평경찰서) 7.「5.3시위사건 수사상황보고」(부평경찰서, 86.5.1.) 8.「긴급업무지시에 대한 조사보고」(부평경찰서, 86.5.11.) 9.「5.3시위사건 종합 수사보고(제6보)」(부평경찰서, 86.5.13.) 10.「5.3시위사건 종합 수사보고(제5보)」(부평경찰서, 86.5.11.) 11.「5.3시위사건 종합 수사보고(제4보)」(부평경찰서, 86.5.10.) 12.「5.3시위사건 종합 수사보고」(부평경찰서, 86.5.9.)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6.18부평시위관련 연행자(일반인) 전과사실현황(1987.7.9.)	1~33쪽
2	「집시법 위반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부평시가지 시위기도사건 발생(종합)」(86.11.22.)	34~37쪽
3	「기습시위발생보고」(86.8.17)	38쪽
4	「부평역 앞 기습시위 발생 상황(종합)(86.8.17)	39~42쪽
5	「5.3사태 구속자 가족동향 보고」(부평서, 86.6.27.) – 전언통신문	43~44쪽
6	「5.3시위사건수사」(부평경찰서) – 수배자 현황 및 전담반 현황 – 인노연 조직도, 인노투 관련자 조직도	45~72쪽
7	「5.3시위사건 수사상황보고」(부평경찰서, 86.5.1.) – 5.3시위사건 이간 장소별 분석 – 현장 주변 약도	73~82쪽
8	「긴급업무지시에 대한 조사보고」(부평경찰서, 86.5.11.)	83쪽
9	「5.3시위사건 종합 수사보고(제6보)」(부평경찰서, 86.5.13.) – 민불련 – 인노연 – 서울대 써클 – 서울대 연극회 – 연세대 공대 언더조직	84~94쪽
10	「5.3시위사건 종합 수사보고(제5보)」(부평경찰서, 86.5.11.) – 5.3시위사건 검거자 분석표 – 5.3시위사건 구속자 현황 – 조직계보도: 민불련, 인노련, 서울대연극회, 연세대 공대 언더조직	95~113쪽
11	「5.3시위사건 종합 수사보고(제4보)」(부평경찰서, 86.5.10.) – 추가 검거자 처리 현황 등 ※ 동일 자료 반복	114~123쪽
12	「5.3시위사건 종합 수사보고」(부평경찰서, 86.5.9.)	124~141쪽

(14) 5.3사태 13.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69
분량	268쪽(A4 사이즈)
목차	1.(인천서 수사 자료) 2.(부천경찰서 자료) 3.(경기도경 수사 자료 묶음) 4.(광명경찰서 자료) 5.「인천지검 구속사건 송치현황」(1986.5.31.) 6.「검찰문의사항(인천지검 303호 이상○ 검사)」(86.6.2.) 7.(광명경찰서 자료) 8.(경기도경찰국 자료 묶음) 9.(장기표 관련 수사 자료) 10.「5.3시위관련자 신병처리현황」 묶음 11.「5.3인천소요 수사 관계관 회의자료」(치안본부, 86.5.17.) 12.「5.3인천소요사건 수사종합 보고」(대공수사단, 86.5.17.) 13.(미완성 자료) 14.「보고사항」(1986.5.16.)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5.3시위 관련자 처리상황」(인천서, 86.7.30., 7.26, 7.25, 7.24, 7.23,7.21, 7.16, 7.11., 7.9., 7.8., 7.7.) 「5.3시위사건 수배자 진철승 검거보고」(인천경찰서, 1986.7.7.) 「5.3시위 관련자 처리상황」(인천서, 86.7.1., 6.30., 6.28, 6.27., 6.25., 6.24., 6.22., 6.21.)	1~21쪽
2	「5.3사태 관련 피의자 검거 및 조치결과 보고」(부천경찰서, 1986.6.20.)	22~24쪽
3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찰국, 6.21., 6.19., 6.14., 6.13., 6.12., 6.11., 6.9., 6.8., 6.7., 6.6., 6.5.)	25~81쪽
4	「집시법 위반 피의사건 발생 검거」(광명서, 86.6.3.)	82~92쪽
5	「인천지검 구속사건 송치현황」(1986.5.31.)	93~95쪽
6	「검찰문의사항(인천지검 303호 이상○ 검사)」(86.6.2.)	96~99쪽
7	(광명경찰서 자료)	100~102쪽
8	「5.3 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 보고」(경기도경찰국, 86.6.4., 6.3., 6.2.) - 5.3인천소요 및 민민투 관련자 수사에 따른 추가 지시(경기도)	103~117쪽
9	(장기표 관련 수사 자료) - 5.3인천소요 주요수배자(장기표) 수사상황 보고	118~150쪽
10	「5.3시위관련자 신병처리현황」(형사계, 86.6.1.) -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 보고(경기도경찰국) 「5.3시위관련자 신병처리현황」(형사계, 86.5.31.) -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 보고(경기도경찰국) 「5.3시위관련자 신병처리현황」(형사계, 86.5.29.) -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 보고(경기도경찰국) 「5.3시위관련자 신병처리현황」(형사계, 86.5.27.) -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 보고(경기도경찰국)	150~217쪽

	– 5.3사건관련 합동회의 개최 상황 「5.3시위관련자 신병처리현황」(형사계, 86.5.26.) –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 보고(경기도경찰국) 「5.3시위관련자 신병처리현황」(형사계, 86.5.25.) –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 보고(경기도경찰국) – 추가 검거자 수사 상황 「5.3시위수배자 검거 현황」(86.5.23.) 「5.3시위관련자 신병처리현황」(86.5.23.)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 보고」(경기도경찰국, 86.5.24.) 「5.3시위관련자 신병처리현황」(형사계, 86.5.23.) –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 보고(경기도경찰국, 5.23., 5.22.) –「5.3사건 수사보고」(86.5.21.)	
11	「5.3인천소요 수사 관계관 회의자료」(치안본부, 86.5.17.) – 현황 – 문제점 – 대책 – 행정사항	218~222쪽
12	「5.3인천소요사건 수사종합 보고」(대공수사단, 86.5.17.) – 연행자 처리현황 – 검거 및 수배상황 – 수사진척사항 – 수사미비점 – 5.3소요사건 미검자 명단(52명) – 시위장소 및 시간별 검거자 현황	223~257쪽
13	(미완성 자료)	258~265쪽
14	「보고사항」(1986.5.16.)	265~268쪽

(15) 5.3 사태 14.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70
분량	51쪽(A4 사이즈)
목차	1.「23개항에 대한 답변자료 – 인천사태 관련」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23개항에 대한 답변자료 – 인천사태 관련」	1~51쪽

(16) 5.3 사태 15.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71
분량	333쪽(A4 사이즈)
목차	1. (인천경찰서 수사보고 자료 묶음) 2. (인천경찰서 검거보고 자료 묶음) 3. 「5.3시위 관련자 수사 상황」(1986.5.14.) 4. 「5.3시위관련자합동수사상황」(인천경찰서, 1986.5.13.) 등 묶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인천경찰서 수사보고 자료 묶음) -「집시법위반 피의사건발생 검거보고」(인천서. 86.12.15.) -「카도릭회관 시위관련자 검거보고」(86.12.14) -「반제동맹 수배자 검거보고」(86.12.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보고」(86.12.2.) -「부평, 대한빌딩 옥상 기습시위관련자 수사보고(86.12.1.) -「인천 시위 관련자 신변처리 결과 보고」(86.11.) -「집시법 위반사건 검거보고」(86.10.30.) -「구속영장 집행상황보고(안성)」(86.10.13.) -「미림극장앞 시위관련 관련자 수사보고(인천)」(86.9.30.) 외 -「성남시가지 기습시위 발생상황」(성남, 86.10.1) -「집시법 위반 피의자 검거 보고」(동부서, 86.9.28.)	1~124쪽

	– 「구속영장 등 집행 결과 보고」(인천서, 86.9.28.) – 「집시법 위반 피의자 구속 집행」(화성서, 86.9.27.)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동치상사건 보고」(인천서, 86.9.24.) – 「집시법 위반 사건 발생 검거 보고」(인천서, 86.9.26.) ※ 인하대 시위 관련 – 「집시법 위반 사건발생검거」(화성, 86.9.20.) – 「인하대학교 시위관련자 조사결과보고」(인천경찰서, 86.9.) – 「위장취업자 검거 보고」(인천서, 86.9.5.) – 「감호피의자 동향보고」(인천서, 86.8.16.) – 「집시법 위반 피의자 구속 집행」(인천서, 86.8.7.) – (5.3구속자 김경숙, 전재일 등 관련 자료) – (미완성 자료) – 「5.3관련 여자 조사처리 내용」 – 「피의자(집시법위반)접견동향」(인천서, 86.8.8.)	
2	– 「인천소요사태 관련 수배자 검거 및 지휘보고」(인천경찰서, 86.7.27.) – 「5.3사건 수배자 검거보고」(인천서, 86.7.26., 7.23. 7.21. 7.8., 6.5., 6.4., 5.26., 5.23., 5.16., 5.17., 5.16.)	125~199쪽
3	「5.3시위 관련자 수사 상황」(1986.5.14.) – 수사상황표 – 조서 – 현장약도	200~226쪽
4	「5.3시위관련자합동수사상황」(인천경찰서, 1986.5.13.) – 정재익, 송대헌 등 관련 「5.3시위관련자합동수사상황」(인천경찰서, 1986.5.11.) – 유형별 통계 – 안동교구 카농 수사상황 – 조직단체계보 「5.3시위관련자합동수사상황」(인천경찰서, 1986.5.10.) – 추가검거자 신병처리현황 – 정재익 배후세력 「5.3시위관련자 검거보고(추가)」(86.5.9.) 「피의자 정재익, 제성민의 수사상황」(인천경찰서, 86.5.9.)	227~333쪽

	「5.3시위 관련 검거 대상자 명단」 ※ 중복 자료 있음. 「5.3시위관련자 수사보고」(인천경찰서, 86.5.9.) 「5.3시위사건 관련 수배대상자 보고」(인천경찰서, 86.5.6.) 「인천서 - 5.3사건관련 수배자 수사상황」	

(17) 5.3 사태 16.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72
분량	126쪽(A4 사이즈)
목차	1.「5.3인천소요사태수사조정」(안기부, 86.5.7.) 2.「5.3시위로 인한 피해상황」(경기도경찰국) 3.(경기도경찰국 수사 관련 자료 묶음) 4.「연행자 수사결과」 5.「연행학생 및 근로자명단 보고」(인천동부경찰서, 86.5.4.) 6.「5.3시위사건종합수사보고」(부평경찰서, 86.5.4.) 7.(부천경찰서 수사 자료 묶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5.3인천소요사태수사조정」(안기부, 86.5.7.) – 전언통신문: 5.3인천소요사태수사조정 – 구속수사통보 – 전언통신문: 구속수사통보	1~6쪽
2	「5.3시위로 인한 피해상황」(경기도경찰국)	7~8쪽
3	(경기도경찰국 수사 관련 자료 묶음) –「집시법위반사범 추가검거보고」(부천서)	9~39쪽

	–「5.3사건 수사상황보고」(부천경찰서, 1986.5.)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 철저 지시」(1986.5.6.) –「시위관련 연행자 조사상황 보고」(86.5.5.) –「5.3시위관련 수배 대상자」 –「유치장 수용 상황」(86.5.5.) –「시위관련 연행자 신병처리현황」 –「유치장 입감 조정 및 관리 강화 지시」(86.5.5.) –「5.3시위관련 업무지시」 –「연행 피의자 수사 철저 지시」(86.5.4.)	
4	「연행자 수사결과」 – 통계를 내기 위한 자료 포함	40~62쪽
5	「연행학생 및 근로자명단 보고」(인천동부경찰서, 86.5.4.)	63~90쪽
6	「5.3시위사건종합수사보고」(부평경찰서, 86.5.4.)	91~110쪽
7	(부천경찰서 수사 자료 묶음) – 분류표 – 연행자 조사결과표	111~126쪽

(18) 5.3 사태 17.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73
분량	190쪽(A4 사이즈)
목차	1. (피의자 신문 조서 묶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피의자 신문 조서 묶음) ※ 당사자 이름과 내용 중 일부가 삭제(비공개처리)되어 있음	1~190쪽

(19) 5.3 사태 18.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74
분량	280쪽(A4 사이즈)
목차	1. (인천동부경찰서 수사자료 묶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인천동부경찰서 수사자료 묶음) - 「5.3사태중점수사상황」(5.14.) -「주안1동성당 관계수사」(1986.5.10.) - 「5.3시위구속자중간수사상황」(1986.5.11.) - 「5.3사태추가검거자 수사보고」(1986.5.11.) - 「5.3시위구속자중점수사보고」(86. 5.10.) -「5.3사태관련 수배자명단」(86.5.10.) - 「5.3시위관련구속자현황」(86.5.) -「5.3시위관련자 수사결과 보고」(1986.5.10.) 등 - 「5.3사태중점수사상황」(5.14.) - 「기습시위 기도 관련자 수사상황 결과보고」(1986.9.30.) - 「5.3사태관련자국회답변자료」(인천경찰서장, 1986.8.2.)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발생 검거보고」(1986.11.3.) - 「5.3사태관련수배자 검거보고(자수)」(1986.8.9.) - 「5.3사태 구속자가족 동향보고」(86.6.26.) 등	1~190쪽

	– 「인천소요(5.3시위) 수배자 사건처리 결과보고」(1986.7.) 등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자 신병처리보고」(1986.7.9.) 등 – 「5.3시위 관련자 조사경위 보고」(86.6.18.) 등 – 「5.3시위 관련자 구류 집행 보고」(86.5.31.) 등 – (수배자 수사 보고 자료 묶음: 이재훈, 박종문, 이상명, 이용주 등 관련) – 「동부서: 미검가담자현황」	

(20) 5.3 사태 19.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30년
관리번호	DA1432050
분량	272쪽(A4 사이즈)
목차	1.「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경기도경찰국, 1986.5.20.) 2.「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경기도경찰국, 1986.5.16.) 3.「5.3시위사건 종합수사상황」(경기도경찰국, 1986.5.13.) 4.「종합수사보고: 5.3인천폭력시위사건」(경기도경찰국, 1986.5.5.)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경기도경찰국, 1986.5.20.) – 사건개요 – 검거연행자 처리현황 – 수사상황 – 사건송치 – 결론 – 자료: 약도, 메모 등	1~45쪽
2	「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경기도경찰국, 1986.5.16.) – 사건개요 – 검거연행자 처리현황 – 수사상황	46~93쪽

	– 사건송치 – 결론 – 자료: 단체조직도 등	
3	「5.3시위사건 종합수사상황」(경기도경찰국,1986.5.13.) – 시위자명단 – 5.3시위관련 구속 피의자 수사상황 – 상황도 – 검거자명단 – 구속자명단 – 유인물분석표	94~148쪽
4	「종합수사보고: 5.3인천폭력시위사건」(경기도경찰국, 1986.5.5.)	149~272쪽

(21) 5.3 사태 20.

■ 문헌개요

구분	내용
생산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
생산년도	1986
보존기간	준영구
관리번호	DA1431875
분량	254쪽(A4 사이즈)
목차	1. (경기도경 수배자, 미검자 명단 묶음) 2. (경기도경 구속기소자 명단 묶음) 3. (연행자 명단 묶음) 4. 「5.3시위사건 종합수사상황」(1986.5.13.) 5. (연행자 명단 묶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페이지
1	(수배자, 미검자 명단 묶음) -「수배 및 검거자 명단」(86.5.19.) -「5.3인천시위사건 미검자 명단」(86.5.20.) -「주요수배자명단」(86.5.14.)	1~66쪽
2	(구속기소자 명단 묶음) -「5.3시위사건 관련 구속자 기소상황」 -「시위관련 연행자 처리현황」 -「서울지검 관내 이송상황」 -「5.3사건 구속자 명단」 -「구속기소자현황 및 경찰의견」(1986.6.15.) -「구속피의자 신병 인도 상황(인천소년교도소」(1986.6.)	67~193쪽

	-「5.3시위사건관련 구속기소자명단」(1986.5.30.)	
3	(연행자 명단 묶음) -「시위관련 연행자 조치상황」(1986.5.12.) -「5.3시위사건 종합수사상황」(1986.5.12.)	194~214쪽
4	「5.3시위사건 종합수사상황」(1986.5.13.) - 국회답변자료	215~222쪽
5	(연행자 명단 묶음) -「시위관련 연행자 조치상황」(1986.5.13.) -「시위관련 연행자 조치상황」(1986.5.14.) -「피의자분석표」 -「5.3사건관련 시위계보」	223~254쪽

5) 기타

(1) 사건 당사자의 회고록 또는 평가문

① 방현석, “인천5.3항쟁, 1986년 5월”

■ 출처: 방현석, 『아름다운 저항』,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 책, 2004
■ 원출처: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1998년 5월 8일, 연재기사
■ 문서양식: 100~110쪽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차	1. ‘가투’에 나선 노동자들 2.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현판식과 5.3 3. 인터뷰: 5.3의 막내 야사, 이춘식
1	86년 5월 3일, 벌써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내가 인천의 한 공장에 엎드려 막 일을 배워가고 있던 그날 나의 안쓰러운 동세대들은 80년 5월 이후, 잔인했던 그 6년의 세월 동안 칼을 갈며 기다려왔던 전두환 살인정권과 사활을 건 일전을 벌이기 위해 인천 시민회관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재야와 학생들의 전유물이던 가두정치투쟁의 선봉에 노동자부대가 참전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인천지역 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 의장 양승조 전 청계피복노조지부장) 지도부는 이미 한 달여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2	신민당 개헌현판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 12시 정각, 약속된 시간은 왔고 7인의 야사(야전사령관 - 편집자주)들은 시민회관 앞 도로 가운데로 나섰다. 순식간에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야사들을 중심으로 대오를 형성했다. … 방송리어카를 타고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인노련 삼민투쟁위원장이었던 전희식과 서기화였다. … 시민회관 옆 대한생명 빌딩 10층에 비밀리에 진압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이때부터 전국 각지에서 지원받은 73개 중대 1만여 명의 병력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진압에 나섰다. … 노동자들은 주안역의 뒤쪽 담장 50미터 가량을 넘어뜨리고 5공단 쪽으로 넘어갔다. 5.3은 87년 6월의 승리와 7~8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지는 1년여에 걸친 거대한 민중항쟁의 대장정을 알리는 신호탄인 동시에 가두정치투쟁의 선봉에 노동자들이 그 깃발을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다.

② 김지선, “80년대 초반의 노동운동과 5.3인천항쟁”

■ 출처: 『이론과 실천』(2002년 6월호), 민주노동당, 70~91쪽

■ 대담자: 최영민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당시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사무국장이었던 김지선 중앙위원을 만나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의 80년대 노동운동과 이 속에서 5.3항쟁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2	72년 말, 열 아홉 살쯤에 인천에 돌아와 부평4공단 삼원섬유에 취직했어요. … 84년에 한국노동자복지협이 만들어지고, 인천에서도 85년 노협이 만들어지면서 양승조 씨가 위원장을 하고 내가 사무국장을 했어요. …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지원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박살이 나면서 이후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절감했죠. … 선도투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3	인노련의 공식지도부 말고 ‘안개’라고 비공개 지도조직이 따로 있었어요. 서, 인노련의 지도부 일부를 포함해서 비밀리에 운영되는, 일종의 전위조직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 그때 우리는 삼민헌법을 주장했어요. 대학에서는 제헌의회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민통련에서는 민주헌법을 주장하고…, 그런 주장들이 노동자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4	5.3에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대중과 떨어진 투쟁이었다는. 그런 면은 지적되야겠지만, 노동운동이 당시의 정치적 흐름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는 건 중요하다고 봐요.

③ 이우재, “5.3인천사태를 뒤돌아보며”

■ 출처1: 『5.3에서 미래로』(2006),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출처2: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2003),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필자 개인과 당시 소속되어 있던 인사연과 민통련의 입장에서의 견해이다.
2	5.3사태는 전두환 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이 맹위를 떨치던 그 험한 80년대 중반에 압제의 사슬을 끊고 민주화를 외치며 들고일어난 민중항쟁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사에서 그렇게 자랑스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컸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사건이었다.
3	인천사회운동연합(인사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인천노동자연맹(인노련),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그리고 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을 위시한 학생운동세력 등은 공동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상호 유대감마저 없었고, 상호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이는 당시 운동권 내에 극심했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87년 6월항쟁에서 모든 운동권 세력이 국민운동본부의 깃발 아래 공동의 전선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5.3은 실패하여 오히려 대탄압의 빌미를 제공했지만, 6월항쟁은 6.29라는 군사독재의 항복선언문을 받아낼 수 있었다.
4	5.3사태는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전두환 군사독재와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이며 5.3사태가 없었다면 87년 6월항쟁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4월 28일의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분신에서부터 시작한 학생들의 반미운동은 비록 상당히 거칠고 조악하며 관념적이었지만, 오늘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 이라크전쟁 반대운동 등에서 나타는 새로운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대중운동의 뿌리가 되었다.

④ 정동근, “5.3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립을 위하여”

■ 출처: 정동근, 2004

■ 문서양식: A4 프린트 4쪽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차	1. 들어가는 말 2. 5.3민주화운동의 시대상황 3. 5.3민주화운동의 전개 4. 5.3민주화운동 주도세력에 대한 분석 5. 5.3민주화운동의 의의
1	만시지감이지만 5.3민주화운동 17주년을 맞으면서 지난해에 5.3투쟁에 참여했던 일부 주체가 모여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18주년을 맞는 올해 인천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제와 결합하여 “5.3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주안역 앞에서 프랭카드를 앞세우며 출발한 2백여명이 시민회관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는 1천여명의 시위대오가 현성되었으며, 12시 40분경 석바위 쪽에서 스크랩을 짠 500여명의 시위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5천대오의 시위물결이 수백개의 프랭카드와 무수히 뿌려지는 각종 유인물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 시위대는 전투대오와 연좌대오, 행진대오의 세갈래로 나뉘어지기 시작했다. …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인천에 도착한 이민우 총재, 김영삼 고문 등 신민당 지도부는 차량 50여대로 동인천지역과 부평지역을 중심으로 한시간여 동안 카퍼레이드를 한후 주안가든에서 식사와 휴식을 취하고 1시 50분경에 대회장소인 시민회관 앞에 당도했으나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안역 뒤쪽의 신민당사로 퇴각했다. … 오후 6시 10분경 신민당은 대회 연기를 선언했고 경찰은 진압작접을 벌였다. 각지로 흩어진 시위대는 오후 10시경 석바위에서의 2백여명의 마지막 해산 집회로 장장 11시간여에 달하는 5.3민주화운동의 당일 투쟁은 마무리 되었다.
3	5.3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조직대오는 사회운동 단체 진영이 1천여명, 노동운동진영이 2천여명, 학생운동진영이 4천여명, 도합 8천여명으로 추산되며 신민당원 등 비조직 투쟁주체들이 2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당시 재야 운동진영의 총집결 투쟁 현장으로서의 의미가 주어졌다.

⑤ 유시춘 외, “5.3인천사태”

■ 출처: 유시춘·이우재·유시주·김남일·최민희, 『우리 강물이 되어 - 70·80 실록 민주화운동Ⅱ』(2005), 경향신문사
■ 원출처: “5.3인천사태”, 경향신문 2005년 9월 5일자 연재 기사
■ 문서양식: 143~148쪽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차	없음
1	5.3인천사태는 1980년 5월 이후 최대의 시위였다. 그동안 크고 작은 투쟁을 통해 역량을 키워온 민주화 운동권은 수도권 일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이날의 결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운동권 내부의 분열로 이날 시위는 대규모 폭동 이상의 아무런 의의도 얻지 못한 채 해산되고 말았다. 관념적 급진주의는 오히려 대중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탄압의 빌미만 제공했다.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국면이 반전될 때까지 민주화운동은 수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5.3사태를 계기로 운동권 내부에서 반성의 기운이 싹트기에 이르렀다. 관념적 급진주의와 소아병적 헤게모니론이 비판대에 오르면서 현실에 뿌리박고 대중과 함께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⑥ 송동현, “급진, 분열, 고립, 5.3인천”

■ 출처: <D레터: 내가 만난 80년대> 연재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싸이트
■ 문서양식: https://www.kdemo.or.kr/d-letter/all/page/35/post/780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차	없음
1	– 민민투 계역의 대학간 연합조직인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약칭 민민학련)의 전술팀에서는 당시 상황을 '혁명을 예고하는 시기'에서 '혁명의 시기'로 인식하면서 5.3인천대회를 준비하였다. 광주 등과 같이 개헌현판식 집회에서 수십만 군중과 함께한다면 인천 주요 도심을 최소한 2, 3일은 장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인근 경기도청 등에서 무기를 확보한다면 혁명으로 넘어갈 수 있고, 여러 계획이 여의치 않더라도 주안에서 깨지면 제물포로, 제물포에서 깨지면 동인천 등지에서 질서있는 항쟁을 전개하면 군부독재의 폭압통치에 커다란 구멍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그날 정오경 계획대로 전체 싸움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민정당 경기·인천지부 사무실을 타격하면서 수십만 군중과 함께하는 인천봉기 계획을 실행에 옮겼지만, 결정적으로 시민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 … 만 명도 안 되는 군중들을 이끌고 할 수 있는 민중봉기는 계획에 없었다. '지금 여기서 싸움을 정리한다. 경기도경 등 관공서 점거와 제물포, 동인천에서의 2, 3차 전선을 형성하는 계획까지 포기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질서정연하게 퇴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 … 민민학련 전술팀의 한명으로서 각 전투조 책임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

⑦ 김지선, "인천5.3항쟁과 노동자"

■ 출처: 『인천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2014),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1970년대 삼원섬유 등 노동운동 경험
2	인노련 활동 경험과 소위 '학출' 활동가들의 조직활동의 문제점

3	인천 5.3항쟁은 1986년 5월 3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투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이어지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극심한 탄압 속에서 쓰러지면서도 확대되어 역량을 키워온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인노련의 일부 투쟁노선과 안개지도부 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운동 발전에 기여한 측면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⑧ 이우재, “인천5.3항쟁의 영향”

■ 출처: 『인천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2014),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본문의 제목: “5.3인천민주항쟁이 이후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2	– 5.3항쟁을 계기로 주체사상 그룹이 운동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들은 5.3항쟁 당시에도 반미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한 분파를 이루어 참가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운동권에게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 그러나 5.3항쟁을 겪으면서 활동가들은 운동 이전에 사람이 되라는 품성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 진보운동과 양김씨 등 민주당 세력과의 차별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반유신 투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주화운동진영이 질과 양, 양면에 걸쳐 성숙, 발전한 결과였다. 민중당,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3	– 5.3항쟁에 대한 반성의 결과, 대동단결이 우선시되어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6.29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누가 보아도 5.3항쟁이 소아병 주의적이고, 모험주의적이었다는 것은 명백했다. 전경이 진압을 시작한 지 한 시간도 못 되어 해산되어 버린 당시의

	역량으로 '인천을 해방구로'라고 하는 구호는 차라리 코메디였다. 대중은 이해도 못하는 삼민헌법이라는 개념은 운동의 경직된 관념성만을 보여 줄 뿐이었다. – 87년 5월 27일에 결성된 민주헌법쟁취운동본부는 그러한 변화의 산물이었다. 바로 전년도에 있었던 5.3항쟁이 바로 반면교사였던 셈이다. … 그러나 5.3항쟁이 좌편향이었다면 6월 항쟁의 대동단결론은 우편향이었다. 민주화운동진영은 87년 대선 국면에서 양김 씨의 분열이라는 재앙 앞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로 분열되고 말았다.

⑨ 권오광, "인천5.3항쟁에 대한 소고"

■ 출처: 『인천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2014),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본문 제목: "5.3민주항쟁에 대한 해고노동자의 소고(小考)"
2	아마 5.3동지회(인천구치소에 구속된 사람들의 친목모임)의 회원이고, 당시 해고노동자로서 현장에 있었다가 수배되어 구속되었기 때문에 토론자로 제안 받았지만, 사실 5.3민주항쟁에 대해서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는 너무나 힘든 사건이었고, 인천지역을 떠나서 지낸 시간이 많았기에 잊어버린 사건이었다.
3	준비과정: 인노련 부천해고자투쟁위원회 활동을 하였다. 4월 30일에 부평역 앞 우체국 공사장에서 200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1시간 이상 대치하며 투석전 전개하였다. 현장기획모임: 당일 현장투쟁을 준비하는 모임은 중앙조직 2인, 해투위 위원장, 그리고 4개 지역의 현장조직책들이 모여 2차례 논의했다. 당일 이해되지 않는 현장 상황: 페퍼포그 차량이 신기천 방향에서 전경 몇몇을 뒤에 달고 군중 안으로 무조건 쳐들어온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멈춰 서 있었다. 군중들이 모여들면서 격분하여 차를 뒤집어 버리고, 전경들을 때리는 과정이 있었다. … 곧바로 주안역 방향에서 최루탄 공급 트럭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탈취되면서 사람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시민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 대대적으로 경찰들이 진압작전을 수행하여 마구잡이로 연행하면서 구타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인천구치소에는 70명이 넘는 구속자가 한 사동(5사)에 몰려 있었는데, 아무도 트럭에 관련된 사람도 없고, 트럭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4	5월 8일 인천서 정보과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많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유치장에 들어가면서 감짝 놀랐다. 당일 연행된 구속자들이 한결같이 얼굴들이 보름달처럼 부어올라 있었다. … (인천구치소 5사 사동에서) 감옥이 투쟁의 최일선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 5.3투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치열하게 토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5.3투쟁은 다양한 정파가 각기 다른 입장과 구호를 내세웠지만 전두환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직선제 쟁취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민중항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단일한 주장과 공동투쟁의 장을 만들어 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향후 우리나라 민중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든 민중항쟁이었다. 그리고 운동의 성숙하지 못한 초기 조직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도적 투쟁의 성격을 보임으로써 지역 시민들의 광범위한 조직과 공감대를 만들어 내지 못한 한계를 보인 점은 향후 투쟁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등의 의견들로 모아졌다.

⑩ 전희식, “욕망과 소비의 이중구조”

■ 출처: 『인천 5.3민주항쟁 30년을 되돌아보다』(2016),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돌이켜보면 나의 한정된 조직관계와 제한된 시야가 먼저 떠오른다. … 또한 내게 5.3은 공포와 허둥댐이다. … 무지막지한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이 참 무서웠다. 그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더 한 폭력으로 자신을 무장했던 기억이다. … 그렇다 5.3은 우리 운동과 조직, 나 자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간 전환점 역할을 했다.

2	우리 인노련이 인천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던 민통련을 방해해서 미안히다. 집회장을 쑥대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 장기표씨를 비롯 민통련에게 조롱을 퍼붓던 기억이 못내 부끄럽니다. 양김과 신민당을 떠올려도 그렇다. … 노동자 유인물은 “서노련·인노련”이라 표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서노련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다 붕괴된 상태여서 5.3투쟁은 인노련이 전담했다. … 노동진영이 정치적 요구를 최초로 거리에서 제기한 것은 5.3 한 해 전인 1985년 5월 1일의 메이데이 투쟁이다. … 영등포역에서 처음부터 가두투쟁으로 전개한 정치투쟁이었다.
3	과거의 어느 한 부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두는 한 덩어리로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5.3을 실패나 성공, 과격, 대중과 유리, 노동자의 정치성 부상 등의 진단에서 시작하여 잘잘못으로까지 나아가기보다 ‘지극한 바라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⑪ 이성재, “인천5.3항쟁에서 꾸었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 출처: 『인천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주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83개 단체)
- 일시: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5.3항쟁이 가능했던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운동 주체들의 투쟁 상황 -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과 전민항쟁을 벌일 수 있는 태세를 갖추다. …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이 시작되었고, 많은 활동가들이 노동현장에 들어오면서 선도적인 조직들도 생겨나다. … 재야 민주진영에서는 부산, 광주 등에서 20~30만 시민들이 결집하는 것을 보면서 전두환 정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

2	5.3운동의 한계는 몇몇 단체의 한계라기보다 그때까지 민주화운동 전체의 한계라고 봐야 한다. … 5.3민주항쟁부터 6.10항쟁까지 시기는 단선적이 아니었고, 5.3민주항쟁 속에서 6.10항쟁은 잉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5.3항쟁에서 보여준 제정파 조직들과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선도투쟁과 각개약진식 투쟁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야당까지를 아우르는 전국민적인 항쟁만이 독재정권을 끝장낼 수 있다. … 폭력성이나 급진적 주장이 갖는 한계 … 5.3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운동세력에게는 자신감을, 군사독재세력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었다.

⑫ 연종엽, “5.18광주민주항쟁의 계승으로서 인천 5.3민주항쟁의 성격”

- 출처: 『인천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주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83개 단체)
- 일시: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1980년 광주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군부 세력에게 광주 학살의 원죄를 묻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 1980년 서울의 봄과 광주민주항쟁의 좌절은 민주화운동 세력의 조직과 활동 방향에 변화를 불러왔다. 학생들은 단순한 시위 형태로는 전두환 군부정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조직과 사회변혁 이론을 모색했다.
2	이렇게 인천5.3민주항쟁을 5.18광주민주항쟁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인천5.3민주항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⑬ 김중성, “5.3 민주항쟁과 노동자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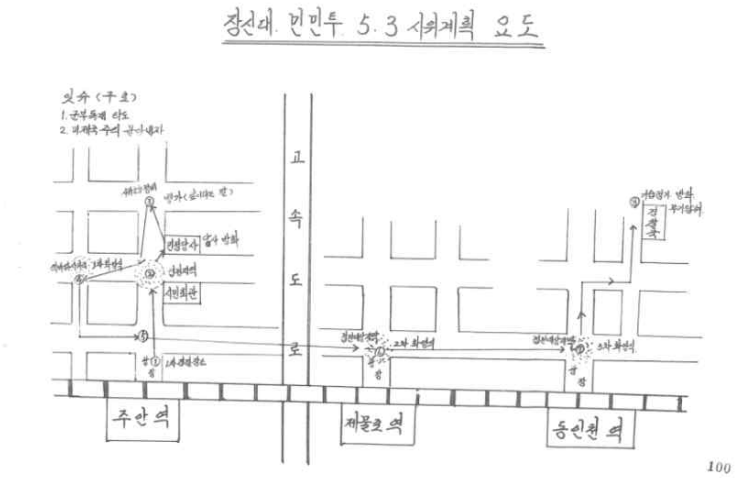
■ 출처: 제35주년 기념『인천5.3민주항쟁 학술토론회』
■ 주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 일시: 2021년 4월 30일 (금) 14시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 당사자 중의 한사람으로써 5.3투쟁을 소위 재야 민주화운동이나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절차적 민주주의 운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 민중 주도의 특히 노동자 중심의 관점에서 이를 재해석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 5.3투쟁의 노동자 중심의 부대였던 인노련 서노련은 노동자 조직운동의 새로운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조직으로까지 표출된 노동자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 5.3투쟁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 참고: 토론자의 발표 영상을 다음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2YH8EnR8c0)

(2) 문헌자료 내 사진 또는 그림

※ 일부 사진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로 반전 효과를 주었음.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1	경찰 측이 장신대 왕주현 등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장신대 민민투의 시위 계획도'	경찰청 자료 「5.3사태 5」(1986), 100쪽
		
2	 (사진 2)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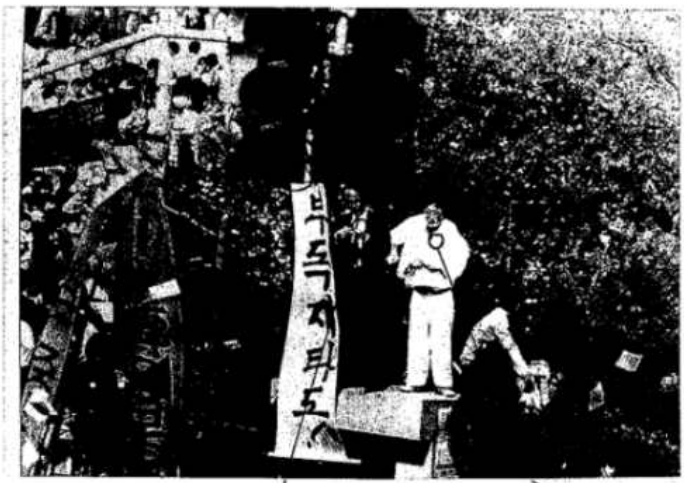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3	 과거 데모 경험담을 들려주며 끝까지 투쟁할것을 선동. 시위 주도하고 있는 "민통련" 정책 연구실장 강 ○ 표 (사진 ㄱ)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1쪽
4	 곽태형(50세) 민통련 인권분과 위원장 ○○○의 시위 선동후 데모대열에 나선 장기표 민통련 정책연구실장)가 시위구호 제창과 자신의 데모 경험담을 연설 (사진 ㅂ)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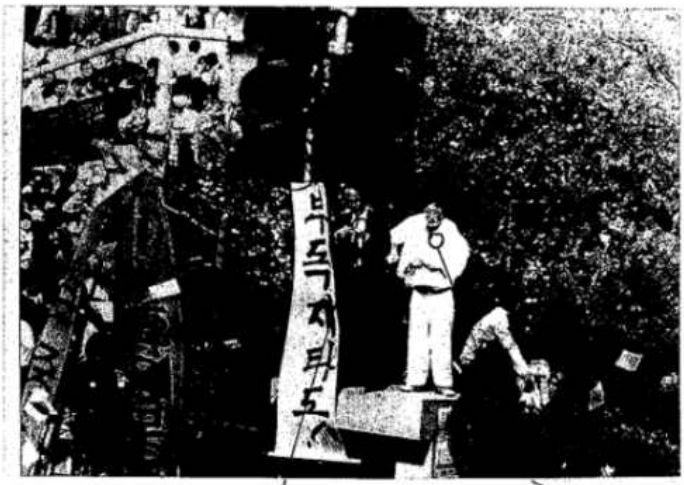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5	 시위 군중속에서 연행을 저항하고 시위선동하는 장기표가 머리를 잡힌 장면 (사진 5)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2쪽
6	 "연통련" 시위대 선두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연통련" 사무차장 조춘구 (사진 6)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2쪽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7	 시위 시민을 주도하고 있는 민통련 회원과 이선장 정동년 (사진 7)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3쪽
8	 시위에 앞에서 시위선동하고 있는 정동년 마 인사연 의장 이호웅 (사진 8)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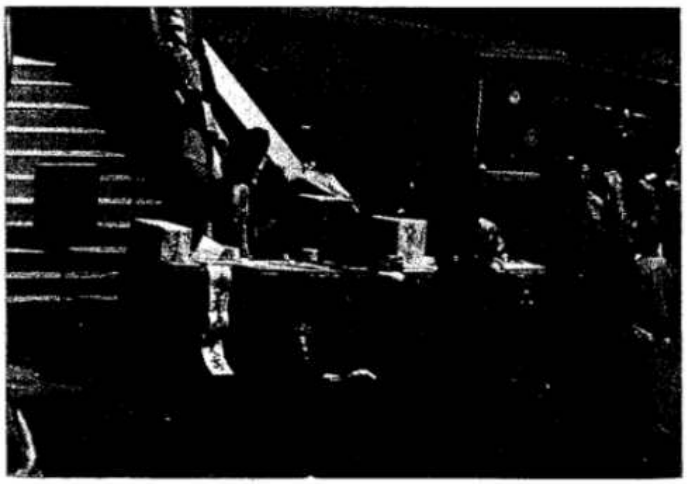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9	 "투쟁다짐" 등 붉은 구호를 외치며 시위 선동하는 "선동꾼" 인천분과위원장 곽태영 (사진 9)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4쪽
10	 시위 선동하고 있는 곽태영 (사진 10)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4쪽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11	 경찰 저지로 시위가 소강 상태에 이르자 대책을 숙의 하고있는 "연통련"전 집행국장 안희대 다 성명미상 (사진 11)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5쪽
12	 시위 주도중에 있는 "인정련" 전 집행국장 안희대 (사진 12)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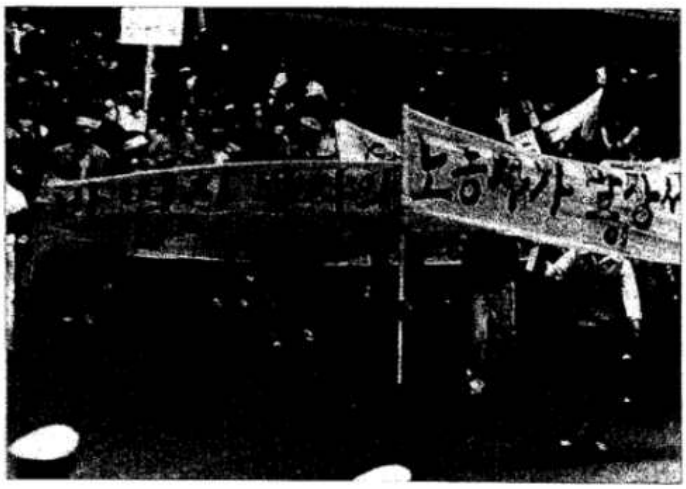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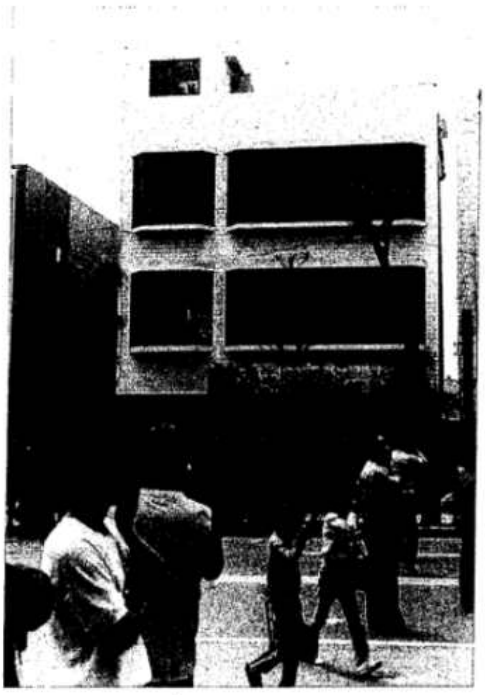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13	 우산의 방면에서 "민통련" 소속 선과 간계를 전도, 시민과 같은 도로로 진출한 "인사련" 집행국장 이우재 가 "막아, 막아" 라는 구호 제창등 시위주도 (사진 13)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6쪽
14	 "미제타도" 등 불순구호 선창으로 시위주도하고 있는 "민청련" 간부 안치여 과 "인사련" 집행국장 이우재 (사진 14)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6쪽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15	 "미제타도" 등 불온구호 선창으로 시위주도하고 있는 "인청련" 전장행총장 안치대 과 "인사련" 장행총장 이우재 (사진 14)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6쪽
16	 화염병을 가방에 은익하고 데모가담하는 근로자 (등북한자는 "인불련" 이명준과 서울대 법대생 등 전원숙 (사진 16)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쪽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17	 대구에서는 수배자라고 하여 오른 경우 인권을 존중하자고 선동 (사진 17)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8쪽
18	 (사진 18)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9쪽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19	 (사진 19)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59쪽
20	 프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민통련"회원 (사진 20)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0쪽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21	 도주례에 각목·깃발등 시위용품을 싣고 시민회관 앞으로 운반하고 있는 데모대 (사진 21)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0쪽
22	 (사진 22)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1쪽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23	 (사진 23)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1쪽
24	 (사진 24)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2쪽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25	 (사진 25)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3쪽
26	 (사진 26)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3쪽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27	 (사진 27)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3쪽
28	 (사진 28)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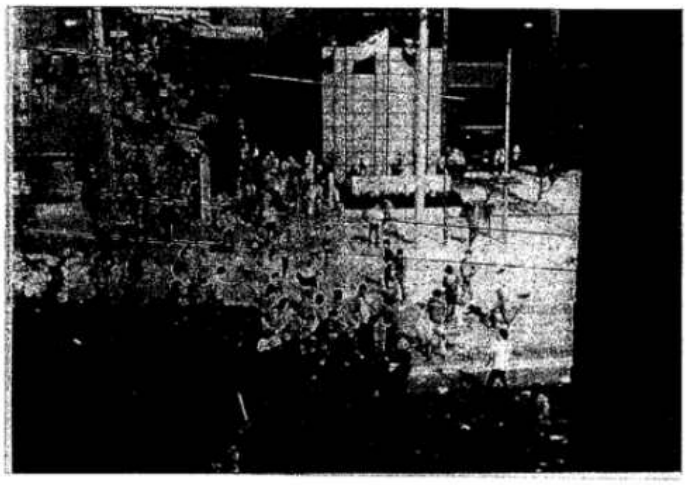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29	 (사진 29)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4쪽
30	 (사진 30)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5쪽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31	 (사진 ㅣ)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5쪽
32	 (사진 ㅣㄱ)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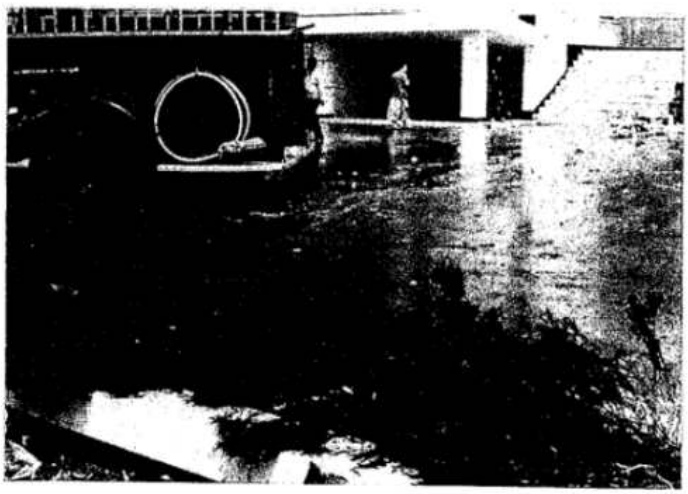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33	 (사진 32)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6쪽
34	 (사진 33)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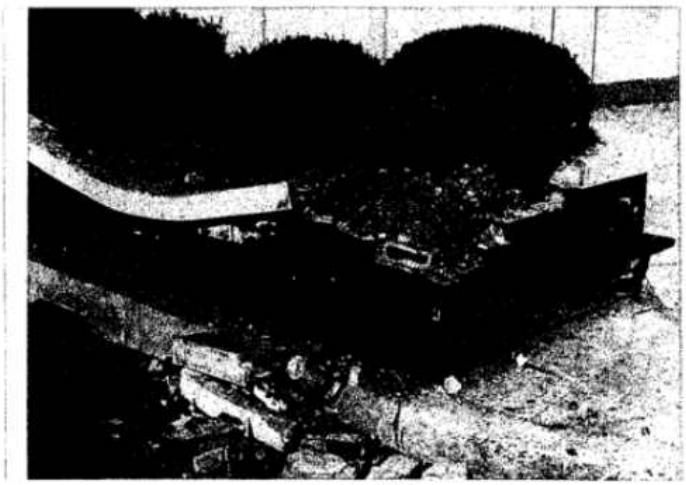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35	 (사진 34)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7쪽
36	 (사진 35)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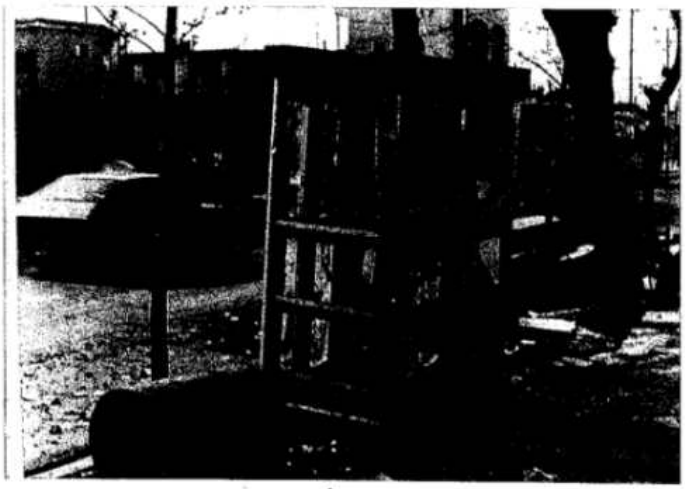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37	 "연안동" 소속 학생들이 깃발을 흔들고 박수치며 데모하는 장면 (사진 36)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8쪽
38	 사물놀이 하는 "인사련" (사진 37)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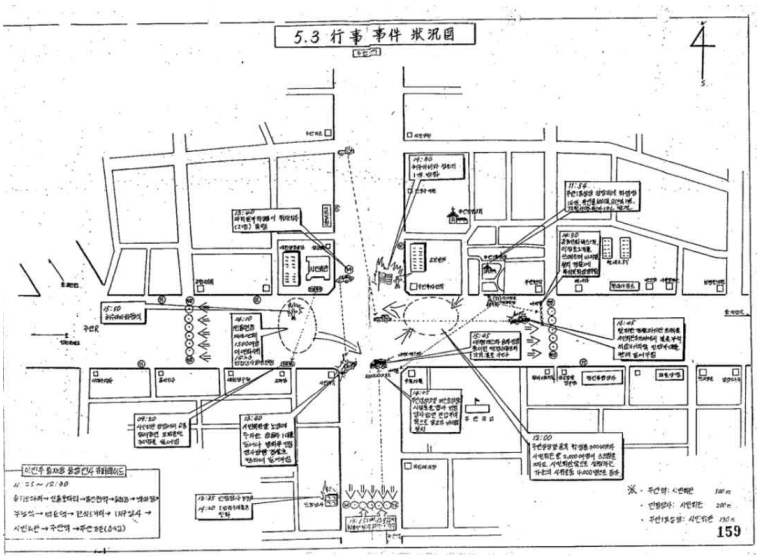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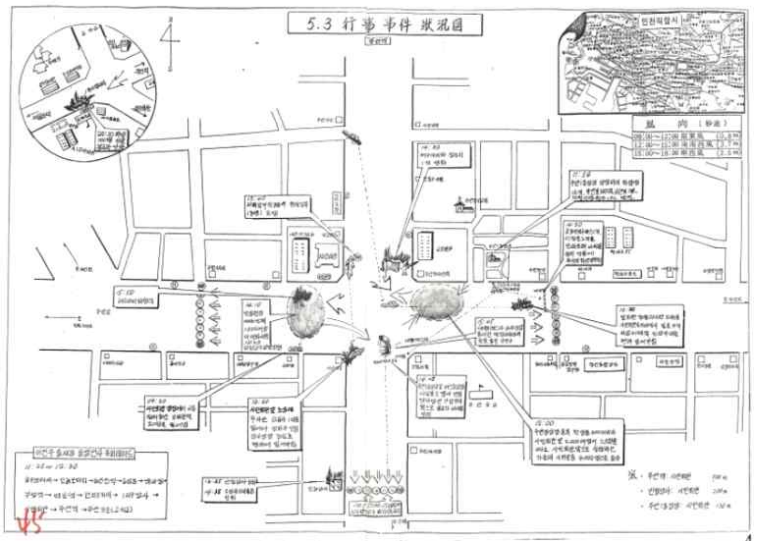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39	 (사진 38)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9쪽
40	 (사진 39)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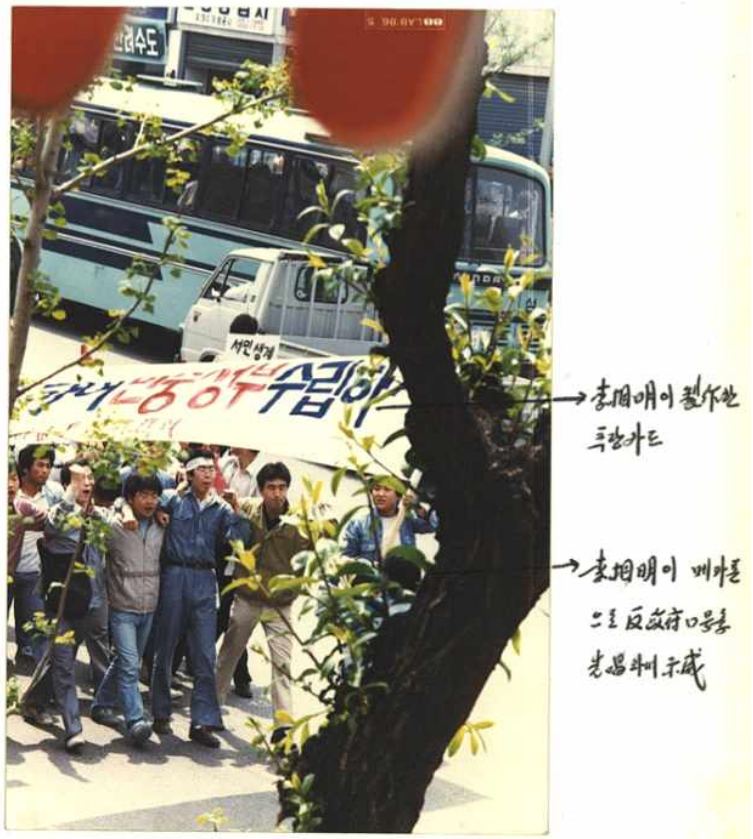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41	 (사진 ㅁ)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70쪽
42	 (사진 ㅁ)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70쪽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43	 (사진 42) 시민회관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71쪽
44	 (사진 43) 시민회관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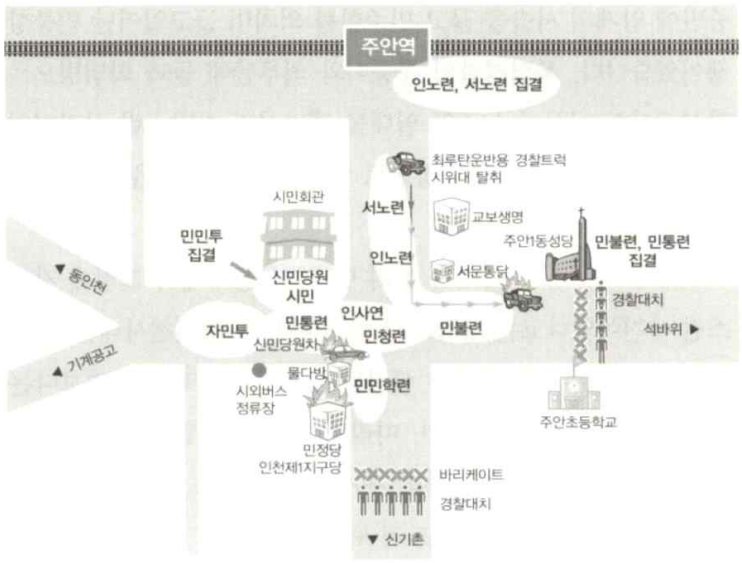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45	 (사진 44) 주안역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72쪽
46	 (사진 45) 도화파출소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72쪽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47	 (사진 46)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73쪽
48	 (사진 47)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73쪽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49	5.3행사 사건 상황도 	경찰청 자료 「5.3사태 10(1)」(1986), 159쪽
50	5.3행사 사건 상황도 	경찰청 자료 「5.3사태 10(2)」(1986), 47쪽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51	수배자 이상명 수사보고 자료(인천동부경찰서, 1986.5.24.)  	경찰청 자료 「5.3사태 18」(1986), 233쪽
52	(도서 내 이미지, 반전 효과 줌) 	방현석, 『아름다운 저항』, 일하는사람들의작은책, 1999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53	(도서 내 이미지, 반전 효과 줌)	방현석, 『아름다운 저항』, 일하는사람들의작은책, 1999
		
54	(도서 내 이미지, 반전 효과 줌)	방현석, 『아름다운 저항』, 일하는사람들의작은책, 1999
		
55	(도서 내 이미지, 반전 효과 줌)	방현석, 『아름다운 저항』, 일하는사람들의작은책, 1999
		
56	(도서 내 이미지, 반전 효과 줌)	방현석, 『아름다운 저항』, 일하는사람들의작은책, 1999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57	(도서 내 이미지, 반전 효과 줌) (시위대가 앉아 있는 모습– 5.3 당시 사진인지는 불분명) 	방현석, 『아름다운 저항』, 일하는사람들의작은책, 1999
58	5.3인천항쟁 시위 상황도  5 · 3 인천항쟁 시위 상황도	『다시 보는 5.3인천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5.3에서 미래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006

구분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59	5.3인천대회 주안 시민회관 앞  85년 5월 3일 주안 시민회관 앞에 모인 시민들	『다시 보는 5.3인천 항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05. 『5.3에서 미래로』(2006),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0	주안시민회관 앞 시위 인파 	『다시 보는 5.3인천 항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05.
61	85년 5월 3일 주안 시민회관 앞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시민 	『다시 보는 5.3인천 항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05. (자료집 사진 설명에서는 '5월'이 아니라 '8월'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타인 것으로 판단됨)

3. 언론 자료

1) 1985년까지

번호	제목	출처
1	「民主정착」 所任의 出帆 창당 「新韓民主黨」 의 政綱과 進路	동아일보 | 1985.01.18
2	"国政 감사권 부활" 新民党 공약	조선일보 | 1985.01.24
3	李 新民총재 會見 "改憲推委 구성하겠다"	동아일보 | 1985.02.02
4	激動'85 <1> 2.12總選과 巨大新民탄생	동아일보 | 1985.12.09
5	与－野 「院外대결」 채비	조선일보 | 1985.12.20

2) 1986년

번호	제목	출처
1	「民主정착」 所任의 出帆 창당 「新韓民主黨」 의 政綱과 進路	동아일보 | 1985.01.18
2	"国政 감사권 부활" 新民党 공약	조선일보 | 1985.01.24
3	李 新民총재 會見 "改憲推委 구성하겠다"	동아일보 | 1985.02.02
4	激動'85 <1> 2.12總選과 巨大新民탄생	동아일보 | 1985.12.09
5	与－野 「院外대결」 채비	조선일보 | 1985.12.20
6	改憲추진支部長 임명	동아일보 | 1986.01.17
7	15개大 千여명모여 시위 최루탄에 돌·화염병 맞서	동아일보 | 1986.02.05
8	新民 중앙堂舍 봉쇄	조선일보 | 1986.02.23
9	내년 3월까지 改憲 매듭짓게	경향신문 | 1986.03.05
10	서울大 연합示威사건 公訴狀 <요지>	동아일보 | 1986.03.06
11	場外투쟁 일부日程 확정	동아일보 | 1986.03.08
12	新民黨 改憲추진위 서울지부 結成대회	경향신문 | 1986.03.11
13	新民,지방대회 준비 박차	조선일보 | 1986.03.14
14	新民 改憲추진 釜山支部 결성	동아일보 | 1986.03.24
15	40여분 연설 拍手 끊이지 않아	조선일보 | 1986.03.25
16	光州시위 69명 연행 新民 서명운동 관련	매일경제 | 1986.03.31
17	群衆들도합세 光州가두行進	동아일보 | 1986.03.31
18	피킷과 口號의 光州중심가는 人波몰려 車없는거리 3시간…두 金씨 결속다짐에 歡呼	동아일보 | 1986.03.31

번호	제목	출처
19	"光州 示威관련 69명 연행"	동아일보 | 1986.03.31
20	署名추진 全南지부 어제 光州서현판식	경향신문 | 1986.03.31
21	"社會混亂조성 행위" 民正 즉각中斷촉구	경향신문 | 1986.03.31
22	街頭政治는 時代錯誤다	경향신문 | 1986.03.31
23	불법示威 혼란조성 嚴斷	경향신문 | 1986.03.31
24	新民改憲 全南지부결성 한때 街頭시위도	조선일보 | 1986.04.01
25	光州 시위관련 69명 연행	조선일보 | 1986.04.01
26	한국 民主발전 逆流 우려	경향신문 | 1986.04.02
27	改憲추진大邱大會 新民黨 현판식가져	동아일보 | 1986.04.05
28	「院內방학」에 「場外공방」 加熱기미	동아일보 | 1986.04.12
29	「改憲공방」 場外로	조선일보 | 1986.04.12
30	李敏雨총재 5월께 訪美	매일경제 | 1986.04.14
31	忠南지부 改憲추진위 新民黨,19일결성대회	경향신문 | 1986.04.15
32	5월政局의 風向 (2) 新民—「民心自信」과 「戰列고민」	동아일보 | 1986.04.24
33	숨가쁜政局 금주가 分水嶺	경향신문 | 1986.04.28
34	평화적 政府이양傳統 반드시 이룩 全대통령·3黨대표 對話내용(요약)	매일경제 | 1986.05.01
35	5월政局의 風向 (7) 「時期」서 「形態」로 옮긴 改憲	동아일보 | 1986.05.01
36	全대통령—3黨대표 對話내용	동아일보 | 1986.05.01
37	新民黨 발표 改憲서명자 70萬	동아일보 | 1986.05.03

번호	제목	출처
38	示威군중·경찰 投石戰 民正지구당 일부 불타	동아일보 | 1986.05.03
39	全国24개大 시위	조선일보 | 1986.05.03
40	폭력示威…新民仁川대회 저지	경향신문 | 1986.05.03
41	경찰과 대치 격렬한 投石戰	경향신문 | 1986.05.03
42	新民 仁川대회 못열어	조선일보 | 1986.05.04
43	運動圈학생 独自행동 大邱대회부터 나타나	조선일보 | 1986.05.04
44	学生運動에 문제 크다	조선일보 | 1986.05.04
45	화염병과 최루탄과…·	조선일보 | 1986.05.04
46	大会전 불길한 조짐…流産예측 적중	조선일보 | 1986.05.04
47	살벌한 表現…극렬口号 난무	조선일보 | 1986.05.04
48	民正당사-新民승용차 불태워	조선일보 | 1986.05.04
49	폭력난무 시가 공포의 도가니 / 신민 '인천대회' 학생 근로자 난동	경인일보 | 1986.05.05.
50	혼란 저의 어디에 있나 / 인천의 과격시위 배후 가려져야	경인일보 | 1986.05.05.
51	仁川사태 논의	매일경제 | 1986.05.05
52	仁川시위사태 관련 1백29명 구속	매일경제 | 1986.05.05
53	仁川시위 百29명 拘束令狀	동아일보 | 1986.05.05
54	自民·民民鬪 容共조직규정 警察수배	동아일보 | 1986.05.05
55	「仁川사건」의 波長	동아일보 | 1986.05.05
56	5월政局의 風向 (9) 충격新民-改憲투쟁街道에 「伏兵」	동아일보 | 1986.05.05

번호	제목	출처
57	돌과 최루탄「우박」…수라장 5시간	동아일보 | 1986.05.05
58	大會場주변 격렬 구호 油印物냉용	동아일보 | 1986.05.05
59	仁川시위 격렬 큰 혼란 … 이날 운동권학생과 근로자등이 주축이 된 5천여명의 시위대와 경찰은 다섯시간 동안이나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시가지에서 벌이는 와중에 투석과 화염병, 각목구타등으로 양측 부상자가 속출하고 민정당지구당사와 신민당승용차 경찰차량등 3대가 불탔으며 경찰의 최루탄운단차량이 탈취되는등 제5공화국이래 가장 과격하고 격렬한 시위양태를 보였다. 이날 시위대는 3천명에서부터 가장 많을때는 5천명에 이르렀으며 대회장에 운집한 일반시민등은 약 5만명에 달했다. … 오수 2시반경 시민회관앞과 옆에서는 '민통련' 등 재야단체가 주도하는 가두집회와 사물놀이가 별도로 진행됐고 '군부독재' '전경' 허수아비화형식이 두차례나 있었으며 이때 성조기도 불탔다.	동아일보 | 1986.05.05
60	金世鎭군 숨져 오늘오전 葬禮	동아일보 | 1986.05.05
61	左翼正體 드러낸 仁川事態	경향신문 | 1986.05.05
62	大学 이대로 좋은가 (6) 反保守 열병	경향신문 | 1986.05.05
63	「仁川시위」 拘束대상자 百29명 명단	경향신문 | 1986.05.05
64	과격한 口號들	경향신문 | 1986.05.05
65	在野·勞·學 구호 제각각…「百貨店式 시위」	경향신문 | 1986.05.05
66	「仁川사태」 129명令狀	경향신문 | 1986.05.05
67	"仁川사태"…民正－新民党과 在野	조선일보 | 1986.05.06
68	新民,仁川사태 妙方에 고심	조선일보 | 1986.05.06
69	仁川시위 拘束－수배자 명단	조선일보 |

번호	제목	출처
		1986.05.06
70	仁川시위 129명 拘束	조선일보 | 1986.05.06
71	大學은「反國家基地」될수없다	경향신문 | 1986.05.06
72	容共흐름 坐視만 할것인가	경향신문 | 1986.05.06
73	反美깃발·左傾사상·共産구호·極烈행동	경향신문 | 1986.05.06
74	6.25는 民衆해방혁명"史實왜곡 버젓이	경향신문 | 1986.05.06
75	在野단체 본격수사	경향신문 | 1986.05.06
76	129명 수감	경향신문 | 1986.05.06
77	新民 仁川사태 곰곰분석	매일경제 | 1986.05.07
78	"仁川사태는 組織的大會방해	동아일보 | 1986.05.07
79	86-88년「好機」간주 民衆蜂起 혁명 유도	조선일보 | 1986.05.07
80	검찰,自民鬪-民民鬪 수사	조선일보 | 1986.05.07
81	"폭력시위 단호 대처"	조선일보 | 1986.05.07
82	"仁川사태조사단 자체가 심각성 인정한것"	경향신문 | 1986.05.07
83	理性이 숨지다	경향신문 | 1986.05.07
84	「仁川시위」조종·주동32명手配	동아일보 | 1986.05.08
85	"「仁川 배후조종」當局발표는 왜곡"	동아일보 | 1986.05.08
86	"新民-在野 협력강화	조선일보 | 1986.05.08
87	政局 타협路線 전폭支持	경향신문 | 1986.05.09
88	대학가「大字報 論爭」한창	조선일보 |

번호	제목	출처
		1986.05.10
89	仁川시위 화염병등 出処밝혀져 검찰,보관경위 조사	조선일보 | 1986.05.10
90	新民 馬山대회 충돌없이 끝나	조선일보 | 1986.05.11.
91	馬山시위 42명 연행	조선일보 | 1986.05.11
92	1천여학생 40분간 示威	매일경제 | 1986.05.12
93	우려와는달리 좋은반응속 진행	동아일보 | 1986.05.12
94	市民精神으로 넘긴 「馬山긴장」 新民 개헌추진 馬山대회 도큐멘터리	동아일보 | 1986.05.12
95	警察,강력범 소탕령 첫날 새벽4시간동안 3千4百명 검거	동아일보 | 1986.05.12
96	「仁川사태」 54명 추가手配	동아일보 | 1986.05.12
97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경향신문 | 1986.05.12
98	"仁川사태는 「이상한」 2千명때문"新民발표	동아일보 | 1986.05.15
99	" 「仁川사태」 는 政府측 工作" 新民 "左傾 급진세력 소행" 반박 民正	조선일보 | 1986.05.16
100	「仁川사태」 異變…与공세 野수세	조선일보 | 1986.05.17
101	"仁川사태 民民鬪·民統聯이 주도"	동아일보 | 1986.05.19
102	急進학생·과격在野 민중봉기 유도	동아일보 | 1986.05.19
103	左傾과의 連繫고리 끊어라	경향신문 | 1986.05.19
104	體制전복 「투쟁의 날」 로 정해	경향신문 | 1986.05.19
105	與野 속셈다른 「場內 부분進入」	동아일보 | 1986.05.20
106	民推協·仁川사태 심층분석 「政經文化」 6月號	경향신문 | 1986.05.21
107	백91명 重輕傷	매일경제 |

번호	제목	출처
		1986.05.24
108	「仁川사태」 民統聯관련 수사	동아일보 | 1986.05.24
109	文益煥목사 拘束수감 集示法적용	조선일보 | 1986.05.24
110	"民統聯서 仁川시위 주도"	조선일보 | 1986.05.24
110	張琪杓씨 구속영장(요지)	조선일보 | 1986.05.25
112	全州는 院外투쟁 종결편	경향신문 | 1986.05.29
113	憲特6월國會서 구성합의	동아일보 | 1986.05.30
114	新民全州대회 진통끝에 열려	동아일보 | 1986.05.31
115	仁川사태 57명구속起訴 88명은 起訴猶豫로석방	동아일보 | 1986.05.31
116	"護憲의지 굴복시켰다"	경향신문 | 1986.05.31
117	新民 場外투쟁이 남긴것	조선일보 | 1986.06.01
118	"별도 集会-시위"에 초비상	조선일보 | 1986.06.01
119	"대회 무산되면 우리책임"在野圈 自制	동아일보 | 1986.06.02
120	「仁川사태」 手配45명 특별검거령	동아일보 | 1986.06.02
121	民正,盧총리 역공에"잘했다"	조선일보 | 1986.06.12
122	「急進」 몸살…異常기류 캠퍼스	조선일보 | 1986.06.15
123	拘束者13명 석방…週內 23명더	경향신문 | 1986.06.18
124	법정서 '소요죄 성립' 법리 논쟁 / '인천사태' 공판 재판장·피고 상해진단증거 싸고 설전 5.3인천사태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검찰이 일률적으로 증거로 제출한 경찰관 등 1백 91명의 상해진단서가 증거능력을 가지느냐의 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법정 공방이 벌어져 인천사	동아일보 | 1986.08.04.

번호	제목	출처
	태 공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일 낮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현경 피고인(23·여·전 서울무학여고교사·아남전기해고근로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피고인은 "소요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찰관 등의 상해 진단서가 나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파란이 일었다. 인천사태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적용된 소요죄의 경우 '다중이 합동으로 폭력 손괴 협박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다중' 속에 포함된 개개인은 구체적으로 '소요'라고 인식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결과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 재판부의 법적 견해여서 앞으로도 법정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5	學園소요 관련立件 올上半期8百13명	동아일보 | 1986.08.26
126	自民·民民鬪 검찰수사 발표문 (요지)	조선일보 | 1986.08.31
127	"憲特·亞洲대회 방해企図"	조선일보 | 1986.08.31
128	"直選改憲대회 재개"	동아일보 | 1986.09.13
129	國民 생존위협 容共논리	매일경제 | 1986.10.15
130	「國是否定」 放置할수 없다	경향신문 | 1986.10.15
130	정치부記者 긴급放談 國基흔든 壇上의 容共發言 "어떻게 그럴 수가…"	경향신문 | 1986.10.15
131	左傾을 直視하자 (10) 野黨-急進의 連帶	경향신문 | 1986.10.28
132	"民主化운동과 容共세력 구별해야"	조선일보 | 1986.11.04
133	치안본부 民統聯 분석내용	동아일보 | 1986.11.13
134	民統聯 油印物 집중조사	동아일보 | 1986.11.13
135	民統聯조직 "단체20개 회원1만명 거느려"	조선일보 | 1986.11.13

번호	제목	출처
136	충돌없이 끝난 「새벽搜索」	조선일보 | 1986.11.13
137	文益煥씨 抗訴 포기 징역3년 확정	조선일보 | 1986.11.13
138	청중 1백만명 동원목표	경향신문 | 1986.11.20
139	沮止와强行…緊張더해가는 「新民서울改憲대회」	동아일보 | 1986.11.22
140	政局 「서울大會」 싸고 超緊張	경향신문 | 1986.11.24
141	極烈化우려 場所불허	경향신문 | 1986.11.24
142	新民대회장 변경 舊 서울高자리로	매일경제 | 1986.11.25
143	政局 週末향해 초긴장	동아일보 | 1986.11.25
144	新民서울大會－强行대沮止 숨가쁜 秒읽기	동아일보 | 1986.11.25
145	改憲政局의 기로－新民서울대회	동아일보 | 1986.11.25
146	"警察3만동원 「新民대회」 봉쇄"	조선일보 | 1986.11.26
147	大学街에 「新民대회」 壁報 잇달아	조선일보 | 1986.11.27
148	改憲대회 봉쇄·强行비상 与野 각각 対国民성명	매일경제 | 1986.11.28
149	"乱動주도 단체·個人 모두 嚴断"	조선일보 | 1986.11.28
150	"議会主義 포기……용납할수 없어 이번에 안막 으면 게릴라式 再発 위험"	조선일보 | 1986.11.28
151	정치부記者 放談 서울大會와 개헌政局	경향신문 | 1986.11.28
152	"霧散전후"속타는 政局…關心은 後遺症	경향신문 | 1986.11.29
153	첫충돌 麻浦서..光化門은 「戰警의 거리」로 不發된 新民 서울大會 도큐멘터리	동아일보 | 1986.12.01
154	경찰"무사히 넘겼다"들뜬 분위기	동아일보 | 1986.12.01

번호	제목	출처
155	警察 과잉連行…市民들 항의 빗발	동아일보 | 1986.12.01
156	버스기다리던 市民 최루탄에 失明위기	동아일보 | 1986.12.01
157	13-14일 9개都市서 개헌대회 新民,전면場外투쟁 선언	조선일보 | 1986.12.04
158	"新民대회는 사회질서 파괴 취소 않으면 강력저지" 民正	조선일보 | 1986.12.04
159	5.3 仁川사태	조선일보 | 1986.12.27

3) 1987년 ~ 1989년까지

번호	제목	출처
1	"拷問(고문)추방 汎國民(범국민)기구 만들자"	동아일보 | 1987.01.28
2	"2.7追悼會(추도회) 강행하면 仁川(인천)사태 능가할 불상사 발생할것"	동아일보 | 1987.02.02
3	"仁川(인천)사태같은 혼란 다시는 없어야"	동아일보 | 1987.02.07
4	親北傀 反美공산혁명 음모사건 檢察발표요지	동아일보 | 1987.02.24
5	時局(시국)관련 手配者(수배자) 검거령	조선일보 | 1987.03.24
6	國法거부 體制전복 民衆革命기도	경향신문 | 1987.06.08
7	李富榮(이부영)씨 6년 求刑(구형) 5.3 仁川(인천)사태관련	조선일보 | 1987.04.02
8	5.3仁川(인천)사태 관련 呂益九(여익구)씨 執猶(집유)2年(연)	경향신문 | 1988.12.17
9	5.3仁川(인천)사태 建大(건대)사태 진실 言論(언론)서 새로 규명해 보았으면	동아일보 | 1988.04.09
10	양심수 석방·수배 철회 박계동씨 등 철야 농성	한겨레 | 1988.05.24
11	"5.3사태 재조명돼야" 국정감사 이모저모	한겨레 | 1988.10.18
12	진상 일요특별기획 한국의 정치사건 (6)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에 폭력탄압	한겨레 | 1988.11.27
13	5共(공)과 言論(언론) <2>-그때 実狀(실상)은 무엇이었나… 秘錄(비록)재조명 報道(보도)지침(下(하))	조선일보 | 1988.12.07

4) 1990년대

번호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1	5共(공) 公安統治(공안통치)의 法的(법적) 淸算(청산)	동아일보 | 1991.11.15
2	'얼굴없는'정인씨 베스트셀러 2권 포함 6년 수배생활중 40여권 펴내	한겨레 | 1991.08.29
3	인터뷰 '백골단'체험수기 펴낸 유영관씨 현역때 항거못한 죄책감 느껴 1백50명 규모의 이 부대는 86년 인천5.3사태 때 우박처럼 쏟아지는 돌멩이를 무릅쓰고 시위군중 속으로 돌진, 수많은 시위자를 체포하는 '전과'를 올려 '진가'를 인정받았다. 이때 처음으로 흰색 헬멧이 지급돼 이를쓰고 근접전을 벌여 시민들에게서 '백골단'이란 별칭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한겨레 | 1991.05.05 기사(인터뷰)
4	운동권 만나 「직업적 革命家(혁명가)」 변신	조선일보 | 1991.03.12
5	時代(시대)상황 반영…建國(건국)이래 69차례	동아일보 | 1993.03.06
6	"사회주의 포기못해" 朴(박)노해씨 진술	동아일보 | 1991.06.08
7	<5.3사태 10주년 재평가(1)> 5공 정점서 저항 폭발	인천일보 | 1996.05.03.
8	<5.3사태 10주년 재평가(2)> 이호웅씨등 재야인천인 주도	인천일보 | 1996.05.06.
9	<5.3사태 10주년 재평가(3)> "군부독재타도" … 5만명 집결	인천일보 | 1996.05.07.
10	<5.3사태 10주년 재평가(4)> 풀리지않는 의혹	인천일보 | 1996.05.08.
11	<5.3사태 10주년 재평가(5)> 민주세력에 상상초월한 고문	인천일보 | 1996.05.09.
12	<5.3사태 10주년 재평가(완)> '독재터널' 뚫고 민주화 대장정	인천일보 | 1996.05.10.
13	李海龜(이해구)-鄭亨根(정형근)과 金文洙(김문수) "알고보니 敵(적)과의 동침"	조선일보 | 1999.02.02

5) 2000년대

번호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1	**6.10항쟁 불붙인 인천5.3사태 재조명** 토론회는 당시 5·3항쟁에 참여했던 이우재(당시 인천사회운동연합 집행국장)씨가 5·3운동의 운동적 의미에 대해,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5·3운동을 학술적으로 정리해 발표한다. 이호웅 의원, 곽한왕(인천시민네트 운영위원장), 양승조(당시 인노련 의장), 최원식 교수(인하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인천 5·3사태에 대해 재조명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 2003.04.24.
2	**실종위기의 6.10민주항쟁의 정신** 최근 5.3인천사태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태를 이끌었던 이호웅 의원(당시 인천사회운동연합 의장), 안영근 의원(당시 인천사회운동연 국장), 송영길(당시 인천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박우섭 인천남구청장(당시 민청련 간부) 등의 인사들이 작년 '5·3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호인수 신부)를 결성하고 재조명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인하프레스 2004.05.04.
3	**약자의 무기 '기억'을 위해 역전의 용사 모이다** 노동자들이 최초로 가두정치 투쟁에 나선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는 1986년 5월3일 인천투쟁. 인천 시민회관 앞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시위를 기념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성공회대 조현연 교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는 기억밖에 없다"며 이 같은 질문에 답했다. 조교수는 "① 그동안 일정한 정치적 연대관계를 보여 오던 보수야당과 민중운동단체들의 시국관과 정치적 지향이 명백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그 즈음 명확히 드러났고, ②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민중운동 세력의 역량을 배경으로 한 '민중항쟁의 결정적 계기'가 도래했다는 인식이 있었고 ③ 당시 노동자가 40만을 넘는 인천지역의 특수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레디앙 2006.05.04.

번호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4	**5.3인천사태('실록 민주화운동' 시리즈 69)** 5·3 인천사태는 80년 5월 이후 최대의 시위였다. 그동안 크고 작은 투쟁을 통해 역량을 키워온 민주화운동권은 수도권 일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이날의 결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운동권 내부의 분열로 이날 시위는 대규모 폭동 이상의 아무런 의의도 얻지 못한 채 해산되고 말았다. 관념적 급진주의는 오히려 대중을 등돌리게 만들었고 탄압의 빌미만 제공했다.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국면이 반전될 때까지 민주화운동은 수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5·3사태를 계기로 운동권 내부에서 반성의 기운이 싹트기에 이르렀다. 관념적 급진주의와 소아병적 헤게모니론이 비판대에 오르면서 현실에 뿌리박고 대중과 함께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6월항쟁이 준비되고 있었다.	경향신문 2004.09.05.
5	**인천민주화운동사(7편) – 5.3인천항쟁** 노동자가 40만이 넘는 인천과 서울의 운동단체들이 총집결하다시피 한 5.3 인천항쟁은 80년 5월의 광주 이후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한 가장 큰 민중투쟁이었다. 인천항쟁은 또한 재야, 노동자, 학생운동권이 정권과 타협적 자세를 취하던 야당과 차별화를 선언하고 각기 실체를 갖춰 민주 변혁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즈음 재야 등 민주화운동권에서도 신민당과의 차별성과 관련해 심각한 노선차이가 있었다. 이같은 노선차는 5.3대회에서 적나나하게 표출돼 운동세력간 공동투쟁은 실패로 돌아가고 시위도 따로 전개돼 혼란을 가중시켰다. (항쟁 참여자 정동근 씨 회고 내용 수록)	인천신문 2006.11.23.
6	**5.3인천민주화운동정신 올바른 계승이 중요하다** 기념식 강연자로 초청된 김영곤 고려대 강사는 '5.3운동에서 노동자의 역할과 해방정신의 계승'을 주제로 노동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강사는 5.3 운동을 인천에서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인천뉴스 2007.05.03.

번호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여러 모순과 세력이 충돌한 대회전이었다고 정의하며 ▲내각제 이원집정제의 거짓과 직선제 민주주의의 요구의 충돌 ▲신자유주의 도입 초기단계로 군사독재와 친미적 민간정부의 충돌 ▲섬유산업의 쇠퇴와 중화학공업의 대두 ▲민중운동의 잠재력을 가진 주체의 형성 등을 운동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는 "5.3운동의 정신으로 민주주의, 자주통일, 사회변혁, 급진주의를 꼽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구체화시킨다면 바로 민주주의의 구체화요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5.3운동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	**'5.3인천사태' 국가가 폭력기관임을 다시 보여줬다** 1986년 5월3일 인천에서 직선제 개헌운동 집회가 열렸다. 나도 민통련 회원의 한 사람으로 참가했다. … '양김씨'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광주에서는 각각 10만과 20만의 학생·시민들이 동참했다. 민통련도 그 공간을 활용해 거리집회를 계속했다. 민통련 가맹단체들의 홍보 선전에 힘입어 대구, 대전, 청주 등에서 최소한 1만여명의 시민·학생이 집회에 참가했다. 3월 들어서는 천주교·개신교·불교 등 종교계와 여성계, 교수사회,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개헌 요구 성명서 발표와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직선제 개헌'을 촉구했고, 3월11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4월4일에는 성공회 소속 신부들, 5월9일에는 조계종 승려들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잇따랐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던 개헌운동은 '5·3 인천사태'로 파탄이 났다. … 경찰은 한동안 어수선한 상황을 방치하더니 오후 5시부터 강제해산에 들어갔고, 5만을 헤아리는 시위대는 순식간에 흩어졌다. 그러자 주안 4거리에는 수백개의 깃발, 수십개의 펼침막, 갖가지 유인물들만 잔해가 되어 남아 있었다.(박우섭, '5·3 인천사태-민통련을 중심으로', <6월항쟁을 기록하다>(제2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찰은 그날 129명을 연행해 구속한 뒤, 6월2일에는 45명에게 특별수배령을 내렸는데, 그 가운데 민통련 간부가 37명이나 되었고, 서노련도 집중적 탄압을 받았다. … 그렇다고 인천집회 같은	한겨레신문 2014.05.19. (수정. 2018.05.10.) ※ 본문 내에 '박우섭'이 필자로 되어있는 『6월항쟁을 기록하다』 2권 "5.3인천사태-민통련을 중심으로"는 확인 결과 한영수가 필자였고, 인용한 내용도 본문과 차이가 있었다. 독자들의 본문 대조가 필요하다.(편집자주)

번호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었다.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모든 참가단체의 대표자가 회의를 해서 연합집회를 열고, 각자 차례대로 단상에 올라가 주장함으로써 학생·시민 모두를 선전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답이다. 나는, 한 사회에서 독재-민주 세력이 대립하고 있을 때 특히 민주세력은 연대를 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믿는다.	
8	**인천 5.3시위 재조명, '사태' 아닌 '민주항쟁'** 경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하기로 한 '소요죄'는 30년 전 인천에서 일어난 '5.3 시위' 때 생겼다. 87년 6월 항쟁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5.3 인천 시위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신한민주당(이하 신민당)이 전국에서 지부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4.19혁명, 5.18항쟁,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민주운동, 대전 3.8민주운동 등이 법률이 인정하는 민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이 지역들에 대규모 민주공원과 민주센터 등이 세워진 것과 대조적으로 인천에선 5.3항쟁과 관련한 평가 등이 거의 없었다. 일부 진보적 단체나 학계에서만 언급할 뿐이었다.	인천투데이 2016.04.28.
9	**발발 30주년 인천 5.3사태, '민주항쟁' 재조명 요구** 행사는 최원식 인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서 교수는 "5.3사태는 민주화운동과 개헌투쟁의 분수령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 참여한 세력들이 외친 각기 다른 구호가 대중성을 가졌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우재 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장은 "5.3사태는 격렬했던 만큼 어두운 그늘도 갖고 있지만 분명한 민주화운동"이라며 아직 통일되지 않은 평가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인방송 2016.04.30.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천 5·3민주항쟁' 자료공개...**	경기브레이크뉴스

번호	제목 / 주요 내용	출처
	안기부 지휘·조정 사실 드러나	2019.05.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인천 5.3 시위사건' (정식명칭 '인천5·3민주항쟁')기록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인천5·3민주항쟁'을 직접 지휘·조정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Ⅳ. 구술·영상자료 분석

Ⅳ. 구술·영상자료 분석

1.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소장 구술자료 현황

■ 녹음파일: 서동석(150715) 21개 녹음파일

번호	구술자	녹음기록일(넘버링)	채록자
1	서동석	150715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2	이현경	150730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3	성효숙 작가	150805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4	권병기	150827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5	호인수 신부	150827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6	정성렬	150917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7	신정길	151001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8	이남희	151016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9	김정택 목사	151018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0	김진국	151022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1	권오광	151025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2	이민우1	151101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3	이민우2	151101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4	김지선	151105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5	김명숙	-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6	양승조	-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7	양재덕	2015_0716_01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8	양재덕	2015_0716_02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9	유동우	-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20	이우재	2015.06.11.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21	정동근	-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2. 구술자료집: 『인천5·3민주항쟁 증언록-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펴냄
■ 출간연도: 2016.6.10.
■ 34명의 구술을 통한 증언
■ 목차

구분	번호	제목	비고
자료	1	인쇄물	11건
	2	기록사진	13건
	3	언론보도	8건
	4	각계의 목소리	10건
증언	1	정말 궁금해요. 다들 현장에는 왜 있었는지_권병기	시민사회
	2	'선도투'에서 창살 아래 '감방투쟁'으로_권오광	노동
	3	을지로 인쇄골목, 또 하나의 저항_권순갑·안삼화	인쇄소
	4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_김명숙	구속자 가족
	5	역사의 진보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_김성복	기독교
	6	학생으로서 맡은 작은 역할이었어요_김수영	대학생
	7	산업선교회 노동운동에서 지역주민운동으로_김정택	기독교
	8	타협하는데 박수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싸웠어요_김지선	노동
	9	선진노동자, 인노련, 삼민동맹_김진국	노동
	10	디딤돌이 아니라 에너지 자체였어요_박계동	시민사회
	11	다시 5·3을 끌어오고 싶어요_박육남	노동
	12	우리가 가진 전투력의 최대치를 보았어요_서동석	불교
	13	강물에 흐르는 수 많은 빛쌀중에 하나일테죠_성효숙	미술

구분	번호	제목	비고
	14	민통련 활동가에서 공장생활로_신순봉	시민사회
	15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였는데_신정길	노동
	16	'타도'였어요. 연설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_양승조	노동
	17	인천을 넘어 시대 속으로_양재덕	노동
	18	보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어요_이우재	노동
	19	'도시봉기'의 현장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서다_윤인중	기독교
	20	유인물 배포로 끌려간 대공분실_윤현수	기독교
	21	반성을 먼저 하는 게 순서겠지요_이남희	시민사회
	22	대중을 움직인 건 직선제 개헌이었어요_이민우	기독교
	23	반면교사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_이우재	시민사회
	24	'개헌 현판식 싸움'의 끝에서_이지호·유종순	시민사회
	25	'5월 3일'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_이해미	대학생
	26	노동운동의 진원지에서 외친 노동자들의 목소리_이현경	노동
	27	민중봉기론에 기초한 민주화운동이예요_장기표	시민사회
	28	함께 모여서 한바탕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_장영달	시민사회
	29	'기만적인' 직선제 구호를 뚫고 가두투쟁으로_전희식	노동
	30	'광주'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투쟁'이었어요_정동근	노동
	31	실패한 집회였어요_정성렬	놀이패
	32	인천5·3민주항쟁의 난장적축제로 민주화운동 열어_최원식	시민사회
	33	저항은 해야하지 않겠어요_호인수	천주교
	34	우리가 선제 공격을 당한 거죠_황선진	시민사회

3. 증언집 중요 내용 분석

증언자별	제목	내 용	비고
신정길 대우전자 해고자 인노련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인노련 해투위 주안 하인천 대표로 참가 -시위용품 5.2일(유인물, 각목, 화염병) 시민회관 주변 상가 건물, 화단에 반입/ 행사 당일에는 리어카를 구해서 김지선 사무국장과 고물상 행색을 한 박래군이 시위용품을 행사장으로 반입 -리어카 개조 집회장 임시연단 만듦. -전희식이 연단에 올라가 선동. -시위중 주안역 쪽에서 학생들이 '미제축출 파쇼타도' 구호를 외치며 행진, 인노련 시위대 일부는 '노동해방이지 무슨 미제축출이냐'고 야유를 보냄, 제일시장 쪽으로 행진한 학생들은 '미제축출 파쇼타도' 구호를 외쳤음 -버스정류장을 스러뜨려 바리케이트 설치 -본래 오후 5시까지 시위계획, 경찰 강제진압으로 주안역으로 철수함	
양승조 인노련 위원장		-시민회관 바라보고 우리는 왼쪽, 민통련은 오른쪽에서..우리는 비타협투쟁한다 했죠. 나도 하여튼 원 없이 싸웠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군부독재를 타도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선도투와 정치투쟁에 동의함)	
양재덕 해태음료 노동자		-5.3은 인천중심이 아니라 확장된 전국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윤인중 목사 용접공 노동자		-현판식에는 관심이 없었다. 미제축출을 선동하는 자민투 존재 처음 접함	
윤현수		-시민회관에서 주안역 거쳐 제물포역으로 이동하며 시위 참가. 일부는 역할을 분담해서 부평 쪽에도 갔다.	

증언자별	제목	내 용	비고
인천기독청년협의회(EYC) 회장		-시민회관 앞에 있었는데 엄청난 양의 최루탄을 쐈어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거칠게 진압했던 것 같아요. -5.3 당일 뿌려진 노동3단체명의 유인물 2종 '일어서자! 이땅의 일천만 노동자여!' "가자! 일천만 노동자의 벼락치는 함성으로 천지를 뒤엎는 노동해방의 대열로!" 건으로 동부서 정보과 연행된후, 구월동 대공분실로 이첩. 유인물 민족인쇄소(?) 인쇄소 대표 만나 미안함을 느낌. -대공분실 3일간 잠안재우기 고문 취조. 구타당하는 소리 들리는 곳에서 공포분위기 속에서 조사	
이남희 민통련 서울지부 조직부장		-서울민통련은 주안1동성당에서 시위준비	인민노련 투쟁부장
이민우 인천도시산선 실무자('81년 EYC회장)		-기획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동원에 참가함. 인천 EYC, 산선에서는 총동원하자, 적극참여하자고 논의하고 조퇴투쟁등 동원 방법 제시. 10시부터 시민회관 집결하여 대오형성 참여 -최하 1만명 참가. 학생 노동자, 택시 노동자도 교대후 참가 / -직선제 개헌에 시민호응 높았음 -주된 구호는 '반제 반파쇼,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 수립하자' -기노련의 주장은 "삼반정권 타도하고 해방된 민중세상 건설하자' -시위현장에서 주안역쪽으로 밀려갔고, 제물포역으로 이동 집회 종료. 종료후 부평	
이우재 인사연 집행국장		-5월 2일 인사연이 삼정동 성당에서 준비한 시위용품은 호인수 신부의 주선으로 주안1동 성당 지하실에다 보관함 (호인수 신부 행사자금 300만원 정도 지원) -12시 5분 성당이동, -12시 30분 플래카드 펼쳐들고 시민회관으로 이동, 인노련도 두명의 여성들이 플래카드 들고 앞에서 이동	

증언자별	제목	내 용	비고
		-전경들이 갑자기 차을 한 대 몰로 시위대 한복판에 기어 들어오고 그래요. 차 놓고 도망가기도 하구요. 들어올 이유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데. '저 차는 왜 들어왔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 확인할 방법이 었어요. -민통련과 인사연은 가급적 집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현장에서 서노련 측에 집회유지를 제안하기도 함 -1시30분 민통련 '민주화촉진시민대회' 개최 -곳곳에서 작은 집회가 별도로 열렸고 구호도 제작각이었다. "전부다 따로따로였어요. 자기들기리 모여서 열었죠. 인노련 따로, 자민투 따로, 민민투 따로. ..전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있는 곳만 알 수 있는 거예요. -5.3 마지막 점검은 고잔동 성당에서 했다. 전국에서 모인 민통련 관계자들은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서 만나 성당으로 이동함. -5.3은 반면교사..	
이현경 아남전기 노동자		-오후 5시 30분경 주안역 담장을 넘다가 연행 -전경 숙소에서 50~60명의 여성들 상대로 가혹행위, 무릎을 꿇리고 원산폭격시키거나, 각목으로 구타하고 한 두명의 전경이 교대로 24시간 가혹행위를 계속함. 생명의 위협을 느낄정도로 구타당함	
장기표 민통련 정책실장		-인천에는 당일 시민회관으로 바로 갔죠. 주안성당에는 들어가지 않고....	
장영달		-하루전에 가서 호인수 신부 주선으로 어디서 묵기도 했고..	10만 군중

증언자별	제목	내 용	비고
		-인천집회를 통해 전두환이 헌법개정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가하려고 했다. -기억에는 10만 이상의 청중이 모였어요.	
전희식 인노련 대외담담		-5.3 준비중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와 접촉시도, 자민투와는 시도하지 않음. 민통련과도 접촉하지 않음 -인노련의 목표는 삼민헌법과 같은 혁명적 구호를 대중화시킨다. -전희식은 수배자로 5.3전날 서울에 도피중 -집회한시간 전 도착, 도착하니 시위군중 운집 -주안1동성장 앞 설치 연단에서 전희식과 서기화 교대로 연단에 올라가 대중연설과 선동, 석바위쪽 최루탄과 투석 공방전 시작. 제일시장 쪽은 경찰과 싸움 없었음 -인노련의 동선은 리어카 이동연단을 중심으로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주안역에 이르는 경로였음 -시위후 앰프와 마이크는 한 자영업자에게 맡기고 찾지 못함 -학생운동 쪽에서 화염병 총 5천개를 준비하여 동인천 역가지 2~3백미터 간격으로 은닉해두겠다고 알려옴	
정동근 인노련 회원 동보전기 노동자		-현장 12시 도착 시민회관에 있다가 주안역 이동, 다시 시민회관으로 이동하며 투석전 등에 참가. -인노련은 석바위에 집결하라는 연락 받고 오후8시, 200명 모여 해산집회후 마무리 -노동자들이 전격적인 정치투쟁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짐	
정성렬 놀이패 한광대		-인사연 황선진으로부터 5.3 집회 길놀이 주도해줄 것 요청받음. 15명 가량의 풍물패 구성. 만장과 플래카드 등 시위용품 항쟁 전날 주안1동성당에서 별도 준비	
황선진		-민문협 산하 문화패 소그룹 100명 정도 시위에 참가	

증언자별	제목	내 용	비고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인천 문화패 한광대, 인천간전 학생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길놀이패 구성	
호인수 인사연지도위원 당시 주안5동 성당 신부		-주안1동성당 박성규 주임신부에데 부탁하여 시위준비 협조함 -항쟁 당일 주안1동성당 사제관에 머물면서 현장 관찰하며 민주인사들과 면담 -5.3항쟁 여파로 1988년 1월, 백령도로 전출	
권오광 인노련		-4.30 투쟁후 5.3투쟁에 대비 세차례 정도 모임을 했어요. 대회 성격에 대해 인노련은 '민중생존권 쟁취와 직선제 쟁취'로 정했어요. -자민투는 무조건 미제축출이 주된 구호였고. 인천을 해방구로 만든다고 해서 신기촌 사거리에서 경찰청까지 계속 행진하면서 세를 구축해 하나의 해방구처럼 만드는걸 모색했죠. -민민투는 주안사거리와 도화사거리로 가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수배당해서 5월 8일에 잡혔는데,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이 맞았어요. 5개월 수감 생활을 함. 구치소에서 5.3의 성격을 광주항쟁처럼 군부독재에 저항한 '5.3민중항쟁'으로 결정하고 5.3동지회를 구성함.	
김지선 인노련 사무국장		-5.2: 시위용품을 주안1동성당 옆 골목 삼원섬유 동료 노동자였던 임선미 가옥에 은닉함. -5.3: 김지선은 당시 수배중이어서 임선미 가옥에 가서 시위용품 꺼내어 동료들이 리어카로 시위현장으로 옮기도록 도와주고 자신은 시위에 참가하지 않고 돌아옴	
김진국		-5.3 준비를 위해 서울대 찾아가 김민석과 면담.	

증언자별	제목	내 용	비고
인노련 '안개그룹' 조직원. 당시 수배중		-인천에서 인노련은 200명 정도가 참가함.	
박계동		5.3항쟁후 송도해수욕장에 인사연 관계를 중심으로 20명 정도 모임.	
신순봉 서울민통련 청년부장		-고잔성당에서 마지막 회의후	
권병기 인사연 사회부장		-민통련 간부들은 고잔동 성당(호인수 신부)에 숨어들어가 있었고 -시위용품은 주안1동성당 지하실에 집결 -시위용품 제작은 삼정동성당(이성득 신부) 사무실에서 1주일 정도 제작,	
권오광 인노련 현장총책		-5.3민중항쟁은 지역에서 운동을 이어가는 전체운동에 새로운 형태였다.... 수도권에서 모든 민족민주운동 세력이 함께 모여서 군부독재에 항쟁한 사건이었다.	
김수영 연세대 4년		-동인천 최종집결 동선 전달받고 참가 -"80년 이후 이렇게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현장에 있었던 게 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연대의 힘'에 대한 경험이 86년 이후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한알의 귀한 씨앗'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김지선 인노련 부위원장 겸 사무국장		-5.3 전날 주안1동 성당 주변 임선미 가옥에 유인물 등 시위 용품 은닉, 5.3일 오전 시위용품 시위대에 전달	

증언자별	제목	내 용	비고
		-5.3 직후 임선미 씨 오빠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음 -김지선은 5.3직후 수배자 검거에 나선 대공과 형사들에게 밤에 산으로 끌려가서 얼굴에 두건 씌우고 수갑 채운 상태에서 집단구타 당하는 등 5시간 넘게 고문당함	
김진국 인노련 회원 삼민동맹 간부		-인천에서만 200명 정도는 동원했을 거예요. 하여튼 인노련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인원들이죠. 인노련 할 때 같이 의논하고 움직이고 이랬던 친구들이 79학번들이 많았어요. - 서울을 거치면서 저쪽의 대응이 꽤 강경해졌어요.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였어요. 신민당에서 자체적으로 시민회관 안에서 하는 것 이의에는 다 막겠다는 식으로 세게 나왔죠. 그 전에는 평화롭게 했죠. '인천에서는 행사 두 개가 따로따로 진행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인천이 잡혔을 때는 저쪽에서도 대대칙으로 경찰을 동원했어요. 다른 지역 경찰까지 동원해서 여기는 원천봉쇄한다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가두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민통련 집회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김진국)	
김중성 인노련부장		-경찰이 그린 실제 인노련 조직과는 다르다. -주안1동성당에서 메가폰을 잡고 시위를 시작했다. -5월 3일 신민당의 인천 현판식 일정이 발표된 후 대전행사를 답사하는 등 준비를 했다. -수배자로 확인된 이후 주로 서울에서 도피생활을 했으며 서노련 신문 발행에 참여했다.	

4. 영상자료

1) OBS 다큐멘터리 「그날, 1986년 5월 3일」

- 자료명:「그날, 1986년 5월 3일」
- 방송정보: 6월 민주항쟁 30주년 특별기획, 2017년 7월 1일 방송
- 출처: OBS다큐 (YouTube 채널) 2018년 1월 20일 업로드
- 제작: OBS
- 감독: 박철현
- 영상정보: 총51분07초
- 영상내용

번호	구성	타임라인	주요내용
1	도입	00:00 ~ 03:40	– 타이틀 –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영상 – 홍미영 – 노회찬 – 권오광 – 양승조 – 박계동 – 장기표
2	–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광장과 작은 해방구를 만들다 – 광주항쟁 이후 정권에 대한 6년만의 전면전, 선전포고	03:40 ~ 08:30	– 6월항쟁 30주년 인천시민대회(부평역광장, 2017) – 86년 주안시민회관 앞 – 권오광 – 김지선 – 이재영 – 노회찬 – 홍미영
3	<5.3항쟁의 배경> – 학살과 폭압	08:30 ~ 16:22	– 1979년 전두환 쿠데타 – 1980년 광주민주항쟁

번호	구성	타임라인	주요내용
	– 저항운동의 변화 – 야당 개헌운동 – 합법 공간의 활용 – 지방도시 시민의 참여 열기		– 이우재 – 송영길 – 제31주년 인천5.3항쟁계승대회 (2017년) – 신민당 개헌 현판식 지역 도시 퍼레이드, 가두시위 – 장기표 – 부산 10만, 광주 30만, 대구 20만, 대전 10만, 청주 7만 운집 – 박계동 – 정치권 '여야 영수회담' – 김윤철
4	5월 3일 시위 상황	16:22 ~ 20:22	– 5.3일 당시 영상과 사진 – 이재영 – 홍미영 – 김지선 – 노동자들의 시위 참여 – 전희식
5	인천 노동자들의 현실	20:22 ~ 23:23	– 김지선 – 1978년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등 – 1985년 대우자동차 노동자 파업 – 전희식
6	5월 3일 시위 양상	23:23 ~ 28:00	– 양승조 – 이재영 – 세 방향에서 전경과 투석전 – 장기표 – 시민회관 내부 영상 – 홍사덕 지부 결성식 연기 선언 영상
7	5월 3일 시위대의 주장과 시위 방식, 그리고 공포	28:00 ~ 39:04	– 민통련 '전두환 정권 타도 투쟁' – 이우재 – 김세진, 이재오 분신 – 서울대 '인천을 해방구로' – 노회찬 – 이재영

번호	구성	타임라인	주요내용
			– 전희식 – 박계동 – 김지선 – 권오광 – 양승조
8	진압 작전과 극심한 탄압	39:04 ~ 46:09	– 권오광 – 장기표 – 언론을 통한 공세 – 박우섭 – 이재영 – 문익환 장기표 구속 영상 – 장기표 – 부천서 문귀동 성고문 사건 – 김지선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 김윤철 '5.3 이후 탄압에도 민주화 운동은 거세어짐' – 6월항쟁으로 연결
9	직선제 개헌 쟁취 그리고 역사적 평가	46:09 ~ 21:07	– 노태우 6.29선언 영상 – 장기표 – 박계동 '5.3과 6.10은 시작과 끝이다' – 이준한 – 권오광, 양승조, 전희식, 이우재, 홍미영

Ⅴ. 결론과 제언

Ⅴ. 결론과 제언

○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전국의 민주화운동단체와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단체, 인천시민들이 1986년 5월 3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인천 시민회관사거리 일대에서 군부독재 퇴진과 민주헌법 쟁취, 신군부 집권연장책인 이원집정제 비판, 노동3권의 보장 등 민중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1만여 명의 진압경찰과 맞서서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천5.3민주항쟁은 1970년대부터 전개되어 온 소규모의 민주화운동이 1980년 이후 전두환 독재정권에 전면적으로 대항할 정도로 성장하였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정당뿐만 아니라 민청련, 민통련 등 사회단체와 활동력이 강한 학생운동, 그리고 서노련, 인노련 등 노동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986년 초부터 신민당이 주도하는 '개헌 서명운동 지역지부 결성대회 및 현판식'은 대대적인 반정부 투쟁의 장이 되었고, 3월 24일 부산대회와 3월 30일 광주대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수십만 명이 운집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대구, 대전, 청주대회를 거쳐 열린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 역량이 집중되어 있던 수도권에서 개최되었으며, 정권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다.

○ 시위 상황을 분석한 결과 5·3항쟁은 약 10시간에 걸쳐 옛 시민회관사거리를 중심으로 주안역·석바위·제물포역·동인천·부천역 일대에서 전개되었으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비롯한 재야단체, 학생 및 노동운동 단체와 인천시민 약 5만 명이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참여단체로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전국학생연맹(민민학련)·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자민투)·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인천기독청년협의회(EYC) 등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대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서울대·연세대·서강대·숭

전대·고려대·장신대·인하대·인천대·중앙대·외대·이화여대·성심여대·안동대 등 24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위 규모로 볼 때 인천5.3민주항쟁은 광주민주화운동이후 6월민중항쟁 이전 단일시위로 최대 인원 참가한 연합집회, 10시간 이상 지속한 최장 시위 (12:00~21:00)였으며 시민회관 시위대 진압 이후에도 남구 도화동, 제물포역, 동암역, 중구 경동4거리, 동인천역, 부천역 등에서 크고 작은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 참가 인원은 5만명 추산[22]되며, 그 규모는 5·3민주항쟁은 광주 5.18 이후 최대의 항쟁이었다.

○ '5.3인천사태'로 표현해온 이 항쟁에 대해 '무산된 사건'으로, 혹은 관념적 조급성, 모험주의적 정치투쟁으로 전두환 정권의 공안정국으로 회귀시켰다는 부정적 평가와 87년 6월 전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가 집회 전술적 차원, 검거와 수배로 인한 역량손실과 같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평가라면 긍정적 평가는 인천5.3민주항쟁을 전후한 한국의 정치적 맥락을 중시한 평가이다. 전두환 정권은 과격 시위를 빌미로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정권의 폭압적 본성과 직선제 개헌에 대한 기만성이 드러났으며, 신민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기회주의적 타협성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변혁운동의 본격적 표출, 민주화운동에 내재화 되어 있던 모든 주장과 요구 표출을 축제적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 '난장적 투쟁성으로 민주화운동을 열었고 87년 6월항쟁으로 가는 결정적 길목이 되었다'는 평가도 제시되고 있다.

○ 민주화운동이 대중적 투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보다 강력한 선도투쟁이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은 사회운동 역사에서 보편적인 주제이다. 인천5.3민주항쟁 당시에도 투쟁 방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선도투쟁론은 정권의 탄압이 대중적 민주화운동의 성장을 극도로 억압하는 현실에서 정권의 지배체제에 '균열'을 내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방법론이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평가는 '선도투쟁론이냐 대중투쟁론이냐'라는

22) 5.3항쟁 참여 인원에 대하여 경찰 내부 보고 자료에는 시간대별 최대 1만 2천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보도는 5만, 집회측에서는 1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시위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연인원 개념을 도입하여 동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동아일보의 추산을 인용한다.

이분법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 선도투쟁을 전개한 세력이 없었다면 공고한 지배체제는 위협받지 못했을 것이고, 저항 세력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광범위한 대중투쟁이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인천5.3민주항쟁 당시 민주화운동 진영의 '분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1980년 광주항쟁 이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암흑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치 일제강점기에 지하운동을 전개하듯 시작된 민주화운동이 급성장한 2~3년 사이에 벌어진 '백가쟁명'식 논쟁 현상은 사회운동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 5.3 당시 경찰차량의 시위 현장 돌진 사건은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

○ 경찰은 집회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전국 경찰 1만여명을 동원하여 행사장 공간을 최소화하며 압박해왔다. 신민당 측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가를 위해 경찰이 시민회관 2㎞ 밖으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시민회관 4거리에서 2~300m 안으로 진압경찰을 배치하여 시위대를 자극하였다. 시위대와의 공방전에서 엄청난 양의 최루탄을 발사하여 시위대 해산 후 시민회관 4거리의 아스팔트에는 최루탄 가루로 뒤덮여 있었다. 집회 현장 한 가운데로 최루탄가스차량과 최루탄 운반트럭이 1시간 간격으로 돌진하는 의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 차량과 가스차의 돌진 사태로 시위대가 차량을 점거하거나 방화를 시도하는 등의 충돌이 격화되었기 때문의 경찰 측의 두 사건은 의도적 전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경찰트럭 탈취 방화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5.3항쟁의 과격성을 부각하는 대표적 사례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두 사건의 원인은 고의성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이 제공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경찰트럭 돌진사건'과 '최루탄차 급진 사건'이라 불러야 하며 이에 관한 증언채록 및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 인천5·3민주항쟁 관련 수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 안기부 치안본부, 경찰 등 5공화국의 국가기관 저지른 불법행위 및 국기문란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특히 검거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

서 구타 고문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도 필요하다. 당시 수사 지휘는 검찰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의해 이뤄졌다.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기록물에 의하면 안기부 인천분실('인화공사')는 '구속 수사 통보' 문건을 경기도경찰국에 시위 관련 구속 수사 대상자를 지목해서 통보한 점, 안기부가 그리고 경기도경찰국이나 치안본부와 별도로 16명의 수배를 요청한 사례도 확인되었다.[23]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안기부의 불법적인 수사지휘한 과정과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당시 수사과정에서의 경찰의 고문 등 인권탄압에 대한 피해도 밝혀야 한다.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 민주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민주화는 한 두차례의 혁명으로 완성되거나 불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멈추면 쓰러지는 팽이처럼 끝없는 혁신과 진화를 통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도정이며, 연속혁명이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경고이다. 인천시는 인천5·3 항쟁을 비롯한 인천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민주의식 고취를 위한 기념공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념공간은 인천시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고 연구·전시함으로써, 민주시민들의 생생한 체험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튼튼한 민주주의 공동체로 깊어지는 것은 시민의 민주역량에 달려 있다.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교육장인 기념공간 조성에 국회의 깊은 관심을 촉구한다.

○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재평가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에 대한 이론적, 법률적 재검토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 광주항쟁과 더불어 현대사에서 '소요죄'가 적용된 몇 안 되는 사례이다. 소요죄는 반정부 투쟁, 반군사독재 투쟁 속에서 발생한 저항폭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 저항폭력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민주항쟁이나 인천5.3민주항쟁 등에 대한 역사적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

23)경기도경찰국「수배자전담수사반편성명단」1986년 5월 10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천5.3민주항쟁이 단순한 정치적 경쟁의 규칙으로서 '직선제 개헌'을 넘어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민주헌법을 요구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체제 변혁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문제는 인천5.3민주항쟁 기념과 계승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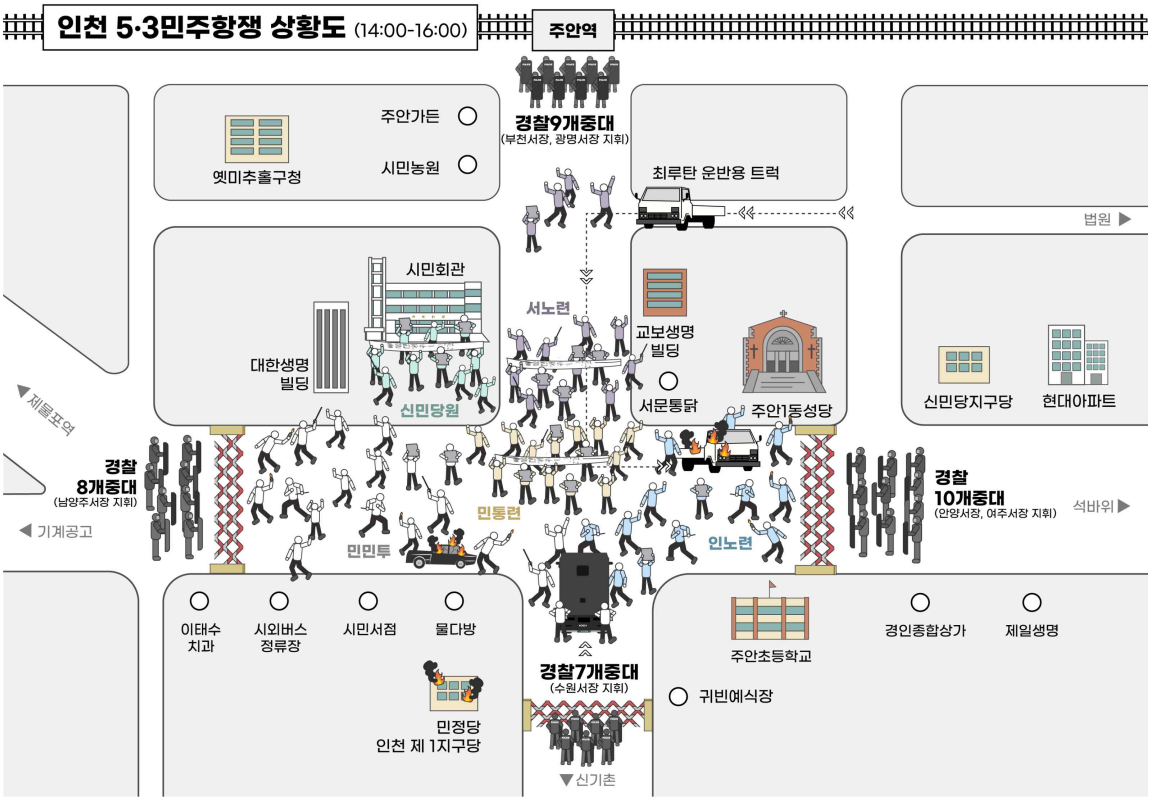
○ 인천은 서울, 광주·전남, 부산·마산 지역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투쟁의 역사를 이어온 도시이다. 그러나 사료수집이나 편찬 작업이 미진한 관계로 인천민주운동사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중심으로 인천민주화운동사 관련 사료 수집과 사료편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곧 그 전모를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5·3항쟁의 요구는 개헌을 통한 제도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함께 민중생존권과 같은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민주화운동의 과제는 반독재 투쟁과 제도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투쟁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생존권 투쟁으로,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인권운동으로, 정부의 부패감시, 경제정의실현을 통한 복지 향상 등 일상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 본격화한 성범죄와 성폭력에 반대하는 '미투운동', 학교, 가정, 군대 내 폭력, 직장내 갑질과 재벌총수 일가의 갑질과 같은 일상적이고 내재적인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심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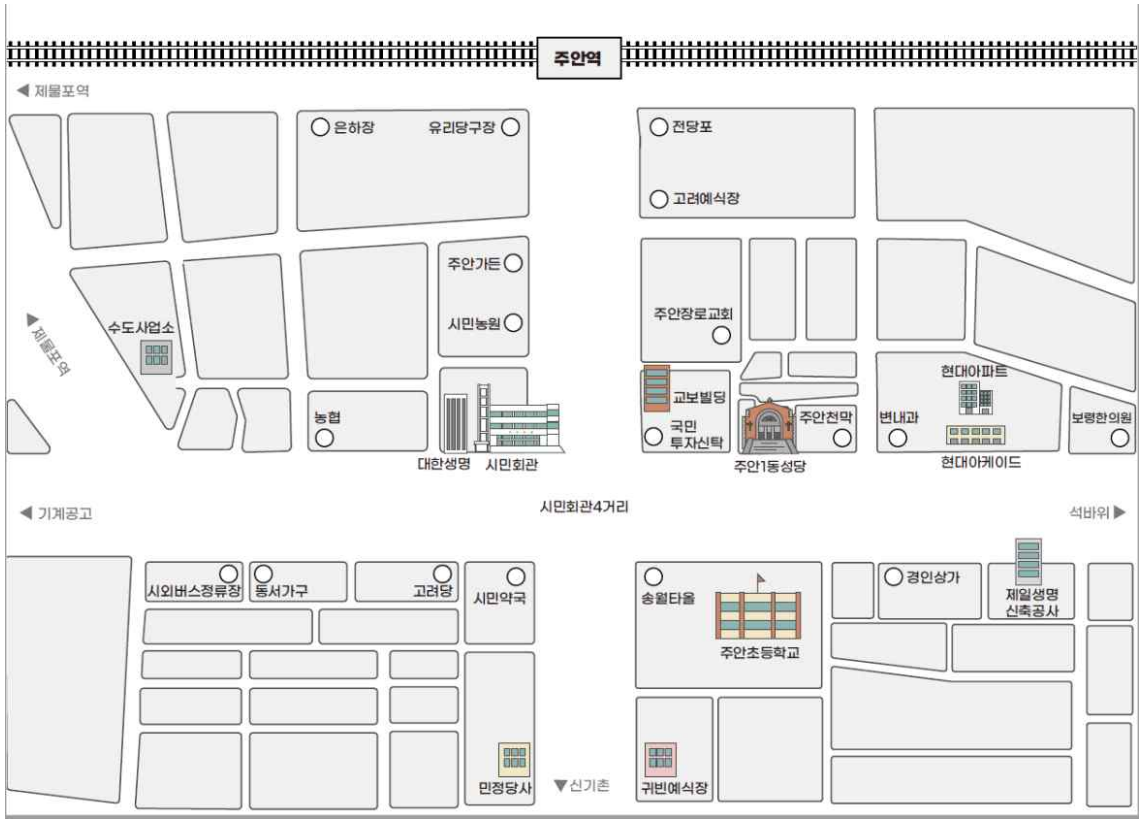
○ 5·3항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5·3항쟁 당시에 요구한 실질적 민주화, 즉 민중생존권 문제는 양상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과제이다.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 문제, 플랫폼 노동 등 노동운동이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듯이 민주주의도 진화가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새롭게 창안하고, 협치와 분권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며, '새로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창안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Ⅵ. 부록

■ 부록 1: 인천5.3민주항쟁 시위 상황도



■ 부록 2: 1986년 당시 시민회관4거리 약도



■ 부록 3: 인천5.3민주항쟁 참가단체별 행진 일러스트

